

연구책임

장현석(경기대다문화교육센터 센터장/ 경기대학교 교수)

공동연구

손녕희(경기대다문화교육센터 연구위원)

이현주(수원대학교 객원교수)

연구보조

이종엽(장대현 중·고등학교 교사)

본 보고서는 경기대다문화교육센터에서 화성시문화재단의 연구 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화성시문화재단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요약문

- 본 연구는 문화다양성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화성시의 문화다양성 현황을 알아보고,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연구 결과, 문화다양성 정책제언에 필요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1. 화성시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결과

1)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연관대상을 ‘민족·인종·국적’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높았음

- 화성시민의 문화다양성 용어에 대한 인지도는 74.6%로 높은 편이지만 문화다양성과 연관된 대상을 ‘민족·인종·국적’ 66.2%로 인지하고 있고, 장애, 성별, 성적지향·성정체성, 세대(연령), 출신지역, 기호, 취향, 비주류예술(독립예술, 실험예술), 소득 등 문화다양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서는 연관성을 낮게 인식함
- 문화다양성을 ‘문화예술’의 표현이라는 협의의 의미가 아닌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며 개인과 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존중하고 그 문화와 표현을 인정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이 사회적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인식

- 모든 항목에서 나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에 대해 차별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인식함. 화성시민 89.7%가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나와 다른 종교의 교리와 의식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면 안 된다’고 인식은 하지만 ‘종교 및 신념이 다른 사람’과는 친해지기 어렵다고 응답해 인식과 수용에는 거리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에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계층이 서로에 대한 인식과 수용을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는 기회와 장이 마련되어야 함

3)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화성시 차원의 문화다양성 정책

-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들이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남. 이를 실천하는 방안의 하나로 화성시 차원의 문화다양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88.3%로 매우 높게 나타남. 문화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이벤트성으로 진행되는 일회성 행사보다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와 녹아들 수 있는 화성시 특색에 맞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4) 화성시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필요함

- 문화다양성의 의미와 가치를 확장하고 실현하기 위해 구성집단과 분야별로 나누어진 정책을 하나로 통합한 화성시의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함

5)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문화다양성 정책이 필요함. 이를 위해 프로그램 기획부터 문화다양성 코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 시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까지 이 모든 과정을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6)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의 다양화(소수집단에서 모두를 대상으로)

- 연구 결과, 화성시에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문화다양성 인식개선 교육이라고 응답함. 화성시민의 84.6%가 화성시에 문화다양성 정책이 중요하다고 함.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확산되면 시민의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고 혐오와 차별문화가 감소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음

-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과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과 낯선 문화에 대해 알아가고 즐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교류를 원하고 있었음
- 따라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2. 정책 제언

1) 문화다양성의 제도적 측면

-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제정
 - 문화다양성의 의미와 가치를 확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화성시의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필요
-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및 확대를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구현하기 위해서는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서와 각 부처와 지역에 있는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전담 기관 필요

2) 문화다양성의 교육적 측면

-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및 수용을 위한 인식 교육
 - 화성시민의 문화다양성 인식전환이 선행되기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이 추진되어야 하며 지역 문화기반 시설이나 학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 진행

○ 모두를 위한 다양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개발

-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내용 구성 필요

3) 문화다양성 교류 측면

○ 지역 네트워크 구축

- 문화다양성은 모두에게 필요한 가치로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시작되어야 함. 다양한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류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이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 내 기관들의 네트워크 구축 필요

○ 문화다양성 문화시설 기반 확충

- 문화시설 확충도 필요하지만, 현재 지역에 있는 시설을 다각도로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문화시설 건물을 새로 짓기보다는 지역 내 학교나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문화다양성 상호 교류 프로그램

- 나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과의 접촉 경험은 고정관념과 편견을 줄이는데 도움이 됨
-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제안: 화성시 문화다양성 서포터즈 양성, 다양한 동아리 활동, 도농복합 축제,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 앉아서 세계 여행(다양한 주제로 각 나라 소개), 전문성을 살린 예술 프로그램 등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4
II. 문화다양성 정책	9
1.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정의	11
2.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	13
3. 해외 문화다양성 정책	31
III. 화성시 문화다양성 현황	41
1. 화성시 사회관련 현황	43
2. 화성시 문화관련 현황	56
3. 화성시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 현황	64
IV. 화성시 문화다양성 인식 조사 설계	67
1. 문화다양성 인식지표 선행연구 검토	69
2. 인식조사 지표 구성	80
V. 화성시 문화다양성 인식 조사 결과	83
1. 설문조사 결과 분석	85
2. 화성시민 심층면접 결과 분석	112
3. 화성시 문화다양성 정책 발전 방안	129

VI. 결론 및 제언	135
1. 결론	137
2. 제언	139
참고문헌	140
부록	143
1. 설문지	145
2.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예시	153

[표 목차]

<표 I -1>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연구 내용	5
<표 II -1>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주요 내용	12
<표 II -2> 문화다양성 정의	13
<표 II -3> 문화다양성 정책 대상	14
<표 II -4> 문화다양성 정책의 특성에 따른 구분	14
<표 II -5> 문화다양성 정책 발전 단계	17
<표 II -6>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19
<표 II -7> 지자체의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 현황	20
<표 II -8> 2021년 중앙부처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현황	22
<표 II -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다양성 정책 추진 현황(건)	23
<표 II -10>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 추진 실적(2016~2021)	24
<표 II -11> 무지개다리 사업 개요	25
<표 II -12> 무지개다리 사업 연도별 추이	26
<표 II -13> 2021년도 무지개다리 사업 추진 현황	26
<표 II -14> 여성가족부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현황(건)	27
<표 II -15> 교육부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현황(건)	29
<표 II -16> 2021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현황	31
<표 II -17> 주요 국가별 문화다양성 정책분석	38
<표 III -1> 화성시 권역별 지역 특성	44
<표 III -2> 화성시 구역별 주민등록 인구 현황	45
<표 III -3> 화성시 연령 구간 인구수	46

<표 III-4> 화성시 구역별 세대 현황	47
<표 III-5> 화성시 유형별 외국인주민 현황	49
<표 III-6> 화성시 외국인주민 관련 기관 현황	51
<표 III-7> 북한이탈주민 현황	52
<표 III-8> 장애 유형에 대한 화성시 장애인(장애 정도) 현황	54
<표 III-9> 화성시 장애인 복지시설 목록	54
<표 III-10> 화성시 종교인 현황	55
<표 III-11> 화성시 종교시설 현황	56
<표 III-12> 화성시 문화재 현황	56
<표 III-13> 화성시 문화기반 시설 현황	59
<표 III-14> 화성시 문화기반 시설 현황 타 지자체 비교	59
<표 III-15> 문화 및 관광, 교육, 사회복지 연도별 예산 현황	60
<표 III-16> 화성시 문화시설 종합현황	61
<표 III-17> 2019 화성시 예술인 현황	63
<표 III-18> 화성시 예술단 및 공연단 현황	63
<표 III-19> 화성시 체육시설 목록	64
<표 III-20> 화성시 다문화 및 문화예술 관련 조례 현황	64
<표 IV-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지표	70
<표 IV-2> 광주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지표	71
<표 IV-3> 인천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지표	73
<표 IV-4> 부산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지표	74
<표 IV-5> 고양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연구	76
<표 IV-6> 수원시 문화다양성 지표 체계	77
<표 IV-7>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지표	79
<표 IV-8> 타기관 문화다양성 인식지표	81
<표 IV-9> 화성시 문화다양성 인식 지표 구성	81

<표 V-1> 화성시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연구 내용	85
<표 V-2>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87
<표 V-3> 사회현상에 대한 수용여부	98
<표 V-4>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이 미치는 영향(서울시와 화성시 비교)	104
<표 V-5>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112

[그림 목차]

[그림 I -1] 연구 절차	7
[그림 II -1] 문화다양성 정책과 다문화정책의 차이	15
[그림 II -2]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과정	16
[그림 II -3] 제1차 문화다양성 정책 목표와 추진 체계	18
[그림 II -4] 2021 문화다양성 주간 포스터	24
[그림 II -5] 2022 문화다양성 주간 포스터	24
[그림 II -6] 미디어 탐구 생활	29
[그림 II -7] 문화다양성 교과서	30
[그림 II -8] 맥킨지의 ‘Diversity wins: How inclusion matters’ 주요 내용	35
[그림 II -9] 문화다양성 발전단계	36
[그림 III -1] 화성시 권역별 특성	44
[그림 III -2] 화성시 주민등록 인구 통계 현황	46
[그림 III -3] 화성시 연령 구간 인구수	47
[그림 III -4] 화성시 세대현황	48
[그림 III -5] 화성시 행정동별 외국인주민 수	50
[그림 III -6] 화성시 행정동별 외국인주민 비율	50
[그림 III -7] 북한이탈주민 인구 현황	52
[그림 III -8] 화성시 문화시설 현황 분포도	60
[그림 III -9] 문화도시 비전 체계도	62
[그림 V -1] 문화다양성이란 말을 들어본 경험	88
[그림 V -2] 문화다양성과 연관성이 있는 대상	89

[그림 V-3] 화성시가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	90
[그림 V-4]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필요성	90
[그림 V-5] 구성원으로부터 느끼는 거리감	91
[그림 V-6] 사회적 차별에 대한 문제 인식정도	92
[그림 V-7] 구성원에 대한 아는 정도	93
[그림 V-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 성소수자관련	94
[그림 V-9] 구성원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95
[그림 V-10]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	97
[그림 V-11] 구성원들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 정도	99
[그림 V-12] 구성원에 대한 혐오표현	100
[그림 V-13] 사회현상에 대한 개선 인식 정도	101
[그림 V-14] 화성시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에 대한 지원 정도	102
[그림 V-15] 화성시의 사회현상에 대한 정책 대응 충분성	103
[그림 V-16]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104
[그림 V-17]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요도	105
[그림 V-18] 화성시 차원의 문화다양성 정책 필요	105
[그림 V-19] 문화다양성 사업 필요성	106
[그림 V-20] 외국인주민 관련 프로그램 경험	107
[그림 V-21] 경험한 프로그램이 없는 이유	107
[그림 V-22] 외국인주민 관련 프로그램 참여 의사	10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화성시는 도농 복합도시이자 전국에서 산업단지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어 도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30~40대의 젊은층 비율과 생산가능인구가 국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생산과 소비가 공존하는 젊고 역동적인 도시임¹⁾
 - 화성시는 신도시 개발과 대규모 산업단지의 풍부한 일자리로 인구 순유입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외국인을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지역사회 내 문화적 다양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런 인구학적 변화는 민족·인종·국적의 다원화와 함께 성 관련 이슈의 부각, 장애인 평등권 보장, 소수문화 취향 존중 등 문화다양성 관련 논의의 증가로 이어짐
- 유네스코는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핵심 요소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두고 문화다양성을 국가, 지역, 인류 사회의 중요한 발전 전략의 하나라고 강조
 - 민족과 인종차별로 집단 학살을 자행했던 세계 2차 대전의 반성에서 출발한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핵심조건으로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의미함
 -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외국인주민의 유입으로 한국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시작됨
 - 우리나라는 2010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을 계기로 다문화 정책을 넘어선 문화다양성 논의가 시작됨. 그 후 2014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됨
- 화성시도 다양한 사회 일원이 지역 구성원이 되면서 새롭게 유입된 문화와 기존의 문화 간의 갈등과 충돌이 야기될 수 있음
 - 화성시의 외국인주민은 2021년을 기준으로 62,542명으로 화성시 주민의 6.9%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안산, 수원, 시흥 다음으로 네 번째로 많음(행정안전부, 2022)
 - 문화다양성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문화다양성에 대한 낮은 이해도는 수많은 갈등을 양산할 수 있음
 - 이에 지역사회와 외국인주민 간 소통이 중요해짐. 이주민의 사회정착을 지원하

1) 경기일보(2022.5.9.). “화성,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기업하기 좋은 도시.” (박수철 기자)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0509580023>)

는 다문화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와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문화다양성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효과적인 문화다양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화다양성 현황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목표를 세워 추진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본 연구는 화성시민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화성시의 문화다양성 현황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관련 이론 탐색
 - 문화다양성 관련 선행연구 분석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문화다양성 정책 및 사례 분석
-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설문지 수집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문화다양성 인식조사의 주요 방향 논의
 - 국내외 문화다양성 인식 실태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를 수집 분석
 - 이를 토대로 화성시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설문문항 도출
 - 설문조사 분석을 통한 화성시 문화다양성 현황파악

<설문지>

- 화성시민 488명을 목표 표본으로 설정하고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을 활용해 화성시 지역을 동부, 서부, 남부로 나누어 설문조사
- 화성시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결과 분석
-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정책방안 도출

<심층면접>

- 한국인주민, 외국인주민, 마을활동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진행
- 설문지에서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완
- 문화다양성 정책방안 도출

○ 화성시 문화다양성 정책방안 모색

- 문화다양성 인식조사와 심층면접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화성시 문화다양성 정책 제언

<표 1 -1>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연구 내용

구분	지표 항목	세부 지표 항목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조사	관심도	- 구성원으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 -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 인식 정도
	수용도	- 구성원에 대한 개인적 수용 정도 - 사회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 정도
	포용도	- 구성원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 정도 - 사회차별에 대한 개선 필요 정도
	필요도	- 사회현상에 대한 개선 정도 - 구성원에 대한 화성시 지원이 충분한 정도 - 사회현상에 대한 화성시 대책 충분한 정도 - 화성시 문화다양성 사업에 대한 필요 정도
	참여경험	- 외국인주민 관련 문화다양성 관련 프로그램 참여 경험 정도 - 외국인주민 관련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정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재구성

2) 연구방법

○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 검토

- 문화다양성 관련 국내외 연구보고서와 지자체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
및 학술논문 등 선행연구 분석
- 정부와 지자체의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 현황 분석
- 화성시의 문화다양성 관련 제도 및 사업 현황 분석

○ 화성시민의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실시 및 분석

- 만 19세 이상의 화성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시민 488명을 대상으로 함
- 설문은 3차에 걸쳐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됨
- 화성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화성시 지역을 동부, 서부, 남부 세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라 설문지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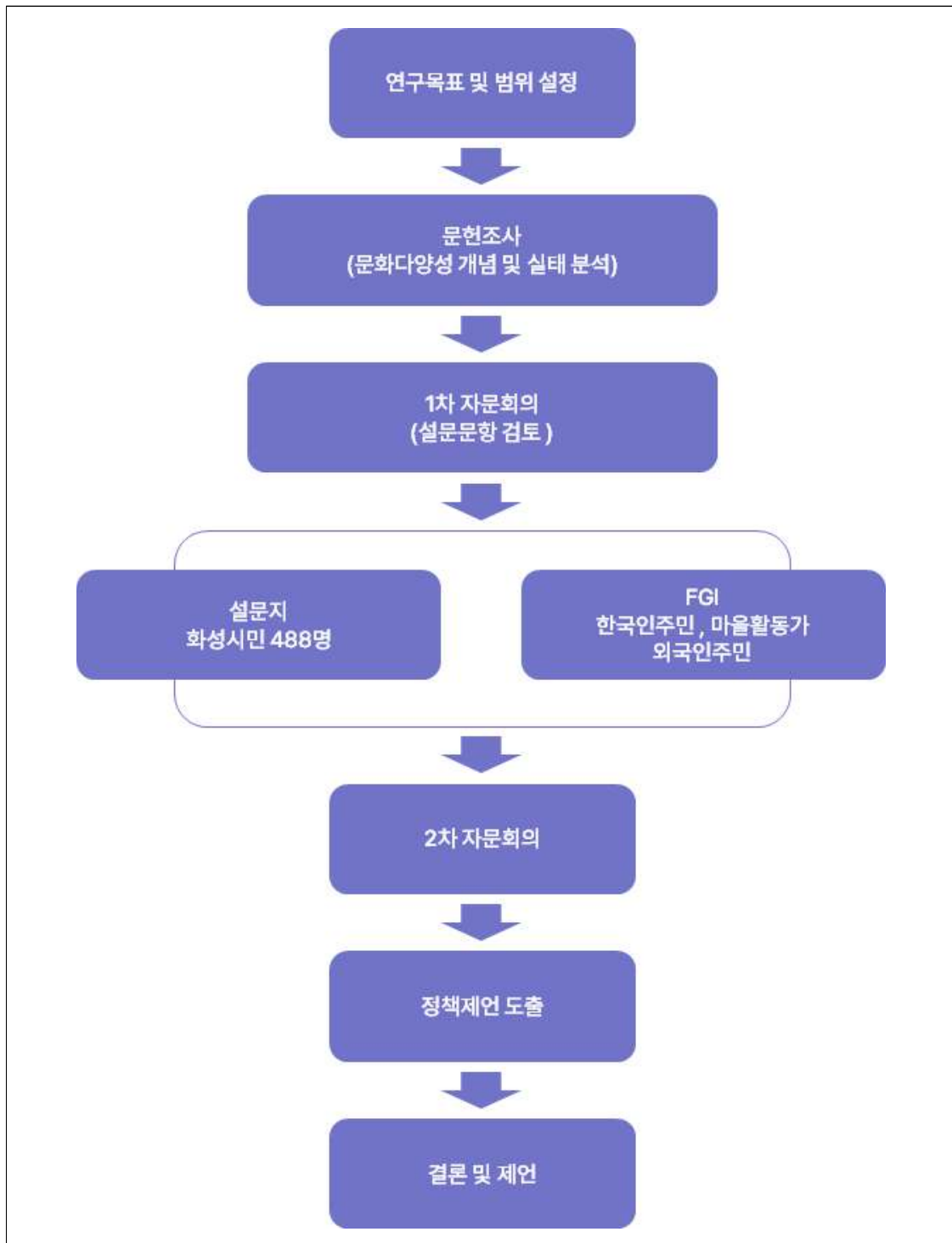
○ 심층면접

- 설문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문화다양성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유형별로 심층면접 실시
- 심층면접은 한국인주민(11명), 외국인주민(6명), 마을활동가(7명)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함
- 심층면접은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되었으며, 문화다양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다양한 집단과의 교류 경험,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해 필요한 요인 등으로 구성함

○ 자문회의 및 정책 제언

- 1차 자문회의를 통해 문화다양성 방향성 설정 및 인식조사 설문 문항 검토
- 2차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 분석 결과 논의. 이를 바탕으로 화성시 문화다양성 정책 제언

3) 연구 절차



[그림 1-1] 연구 절차

Ⅱ . 문화다양성 정책

1.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정의
2.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
3. 해외 문화다양성 정책

1.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정의

1) 문화다양성의 개념

- “문화는 시공간을 넘어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문화의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는 집단과 사회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구현하기 때문에 교류·혁신·창조성의 근원으로서 문화다양성은 인류에게 반드시 필요함. 따라서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공동 유산이자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혜택이라 볼 수 있음”(유네스코문화다양성 선언, 2001)
- 문화다양성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민족과 인종차별로 집단 학살에 이르게 했던 세계 2차 대전의 반성에서 출발함. 세계인권선언(1948),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1966), 시민·정치적 권리의 국제 규약(1966), 소수자 권리 선언(1992) 등에 기초하여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 합의로부터 도출된 가치를 바탕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권선영, 2019)
- 문화다양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90년 세계화 이후라고 볼 수 있음. 1986년 9월부터 시작되어 1993년 종결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문화산업’이 주요한 시장개방의 대상이 되면서 자국의 문화를 지키는 개념으로 ‘문화다양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함(문화체육관광부, 2017)
- 2001년 유네스코 제31회 정기총회에서 「문화다양성 선언」을 채택하면서, 문화다양성을 인류의 공동 유산으로 규정하고 문화다양성 보호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개념이라고 함
- 2005년 유네스코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을 채택하면서 ‘문화다양성’ 선언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국제사회에 실질적 구속력을 갖는 방안을 마련함

- 2010년 이 협약의 110번째 비준국이 된 우리나라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을 이행함
- 이 법률은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법률과 협약을 통해 본 문화다양성 개념은 다음과 같음

<표 II-1>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주요 내용

<문화다양성 협약> 전문-유네스코	
①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공동 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이며, 모든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소중히 하고 보존되어야 한다.	
② 민주주의, 관용, 사회 정의, 그리고, 사람과 문화 간의 상호 존중의 틀 안에서 번성하는 문화다양성이 지역적, 국가 간 국제적 차원에서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다.	
③ 정체성, 가치, 의미를 전달하는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는 경제적 속성과 문화적 속성을 함께 지니며, 그러므로 단순한 상업적 가치로 취급되지 않아야 한다.	
문화다양성 정의	
제4조(정의)	
① "문화다양성"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집단 및 사회의 내부 또는 집단 및 사회 상호 간에 전해진다. 문화다양성은 여러 가지 문화적 표현을 통해 인류의 문화유산을 표현하고 풍요롭게 하며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방식뿐 아니라, 그 방법과 기술이 무엇이든지 간에 문화적 표현의 다양한 형태의 예술적 창조,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② "문화콘텐츠"는 문화적 정체성에서 비롯되거나 이를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말한다.	
③ "문화적 표현"은 문화콘텐츠를 지닌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적 활동의 결과물이다.	
④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서비스"는 그 상업적 가치와 특징으로 하는 활동,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문화 활동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기여한다.	
⑤ "보호"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존, 보호, 진흥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조치들의 채택을 의미한다. "보호하다"는 이러한 조치들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기준(접속일: 2022.11.30.)

2) 문화다양성의 정의

-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문화다양성 정의

<표 II-2> 문화다양성 정의

문화다양성 정의 - 국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기준(접속일: 2022.11.30.)

-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의 내부 또는 집단과 사회 상호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진흥·전달 시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으로 정의할 수 있음(문화체육관광부, 2022)

2.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

1) 문화다양성의 정책 대상 및 구분

- 문화다양성 정책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인주민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연령·세대, 종교, 장애 취향 등의 차이로 초래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들을 정치, 경제, 사회문화 활동에서 배제하지 않고 하나의 표현 방식으로 보는 관점이 중요함(이성호, 2019)

(1) 문화다양성 정책 대상

- 문화다양성 정책 대상은 여섯 가지로 전통 및 문화유산, 언어, 문화적 창조활동, 문화콘텐츠, 매체, 독립 문화산업 등임. 대상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II -3> 문화다양성 정책 대상

구분	내용	
정책대상	전통 및 문화유산	유·무형적 부의 원천인 전통지식, 토착민의 지식체계
	언어	언어는 주요한 표현 수단이므로 문화다양성의 기본 요소이고, 이는 교육과 연결됨
	문화적 창조활동	정체성, 가치 의미를 전달하는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 지적재산권
	문화콘텐츠	정체성에서 유래하는 표현, 예술적 차원의 표현
	매체	문화적 표현을 풍요롭게 하는 매체의 다양성
	독립 문화산업	비공식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독립 문화산업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p.19

(2) 문화다양성 정책 구분

-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정책은 내용에 따라 인권 존중 측면과 문화적 독특성에 기반한 문화적 표현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인권 존중 측면의 ‘문화적 정체성에 기반한 문화적 표현’이란 나이, 성별, 장애, 민족, 인종, 성적지향, 종교 등에 따른 문화의 차이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문화적 표현을 강조하는 정책임
 - 문화적 예외 측면의 문화적 독특성에 기반한 문화적 표현은 주류 문화로 인해 나타나는 문화 획일화 현상을 지양하고 독립예술·전통문화 등 소멸 위기의 문화를 포함하는 소수 혹은 비주류 문화의 가치와 고유성을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임(관계부처합동,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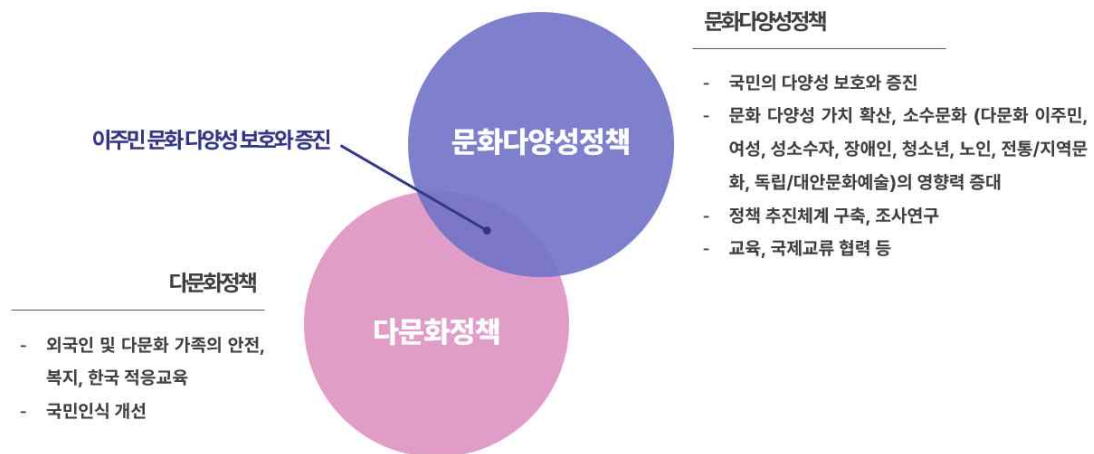
<표 II -4> 문화다양성 정책의 특성에 따른 구분

구분	개념설명	정책 대상
문화적 정체성에 기반한 문화적 표현	다양한 사회문화적 특성을 포함하는 정체성에 대한 다양성, 특히 이들의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인정	여성,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 계층의 문화적 권리 보호 및 활동 지원 정책, 사회구성원의 문화다양성 인식을 확장하고 문화 간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

문화적 독특성에 기반한 문화적 표현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예술적·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으로 모든 문화예술 장르의 다양성	독립예술·전통문화 등의 보호와 증진 정책, 문화의 언어적·지역적 다양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	---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0 문화다양성 시범조사(1권)」, p.40

- 현재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정책은 외국인주민의 사회정착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다문화정책과 혼재되어 있음. 이에 소수자, 하위문화, 비주류문화를 정책대상으로 국민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과 가치 확산에 중점을 둔 문화다양성 정책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그림 II-1] 문화다양성 정책과 다문화정책의 차이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p.29

2)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과정 및 방향

(1)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과정

-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이하 '문화다양성 협약')」을 비준함. 이 협약 비준에 따라 당사국으로 협약 이행을 위해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 우리나라는 2005년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2010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110번째 비준국 가입, 2017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등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 간 위원회에서 2017년 아시아태평양그룹 위원국, 2020년에는 부의장국, 2021년에는 의장국으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



[그림 II-2]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과정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p.16

- 한국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크게 2005년부터 2010년, 2010년부터 2014년, 2014년부터 지금까지로 나누어볼 수 있음
-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과 다문화가족지원법(2008)이 제정되었으며 문화다양성 정책이 다문화에 가깝게 설정되었음
-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는 다문화 정책의 방향성을 정착에서 공존으로 전환하며 다양한 계층, 집단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게 되었음
-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소수의 문화권 보장과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제시되었음. 소수 이주민에 대한 복지가 아닌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표 II -5> 문화다양성 정책 발전 단계

단계	시기	내용
1단계	2005~2009	- 한·미 FTA 협상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논의로 문화산업 영역에서의 문화적 예외 논의 발생 - 문화산업영역에서의 시장개방과 관련한 논의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되기는 하였으나 정책적인 구상은 구체화되지 않았음
2단계	2010~2013	- 2010년 한국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협약」 110번째 비준국이 되면서 문화다양성 측면에서 다문화 정책을 논의 - 기존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철학을 정착에서 공존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계층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데 집중 - 다양한 논의를 통해 문화다양성 정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공론화한 점에 의의 -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무지개다리’시범 사업 추진
3단계	2014~현재 까지	- 2014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소수에 대한 문화권 보장 및 사회갈등 해소로 영역 확대 - 그간 소수 특히 이주민에 대한 복지 차원의 관점이 아닌 다양한 문화에 대한 한국의 수용성 제고로 정책방향을 전환

출처: 경기문화재단(2019), 「경기도 문화다양성 정책 현황 및 발전 방안연구」, p.35 재구성

(2) 문화다양성 정책 목표와 추진 체계

-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021~2024)을 발표함으로써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고,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문화다양성을 보호 및 증진 추구
- 2021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는 10개 관계부처와 함께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021~2024)을 발표함
-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고,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해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 마련을 목적으로 함

- 문화다양성은 ‘문화다양성을 통한 창의와 혁신의 문화국가’를 비전으로 ‘다양성과 포용성의 문화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문화의 다양성 보호 및 확대’, ‘소수자의 문화 참여와 접근성 보장’,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과 공존기반 형성’등 3대 추진 전략과 7개 핵심 과제로 구성됨



[그림 II -3] 제1차 문화다양성 정책 목표와 추진 체계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1),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p.7

3) 문화다양성 법률 및 조례

- 2014년 제정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을 통해 국민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임(최지연, 2020)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규정, 정책기반체계 마련(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문화다양성 위원회), 조사 및 보고서 발행(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연차보고, 국가 보고서 작성), 정책 사업시행 방안마련(문화다양성의 날,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및 교육, 문화다양성 전문 인력 양성)임(국가법령정보센터, 2022.12.20. 검색)
-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의 범주는 다문화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젠더, 장애, 세대, 종교, 계급 차이 등을 아우르고 있음
 - 사회통합적 관점의 정책과 문화적 예외 차원 관점의 정책으로 구분(문화체육관광부, 2018). 사회통합적 관점은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시각이고, 문화적 예외 차원 관점의 정책은 국가·사회·문화 간의 소외에서 특정 문화의 지배를 견제하고 시장의 경제논리에서 다양한 독립예술이나 기초예술 등을 보호·육성하고자 하는 것임
- 제3조와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에 대해 말하고 있음. 이 법률에 대한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표 II -6>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문화다양성 관련 법률	주요 내용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국가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①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

(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여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교육단체 등을 활용하여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기준(접속일: 2022.12.20.)

- 이와 같은 법률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문화다양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함. 2022년 10월 기준 지자체의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은 다음과 같이 총 19개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표 II -7> 지자체의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 현황

소속(개)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
광역자치단체(10개)	전라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조례 제4151호, 2016.12.1. 제정]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조례 제5488호, 2017.3.13. 제정] [경기도조례 제6725호, 2020.8.7. 전부개정]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조례 제5552호, 2017.3.22. 제정]
	서울특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6495호, 2017.5.18.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60호, 2017.6.2. 제정]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877호, 2021.7.9. 일부개정]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조례 제4098호, 2017.11.10. 조례]

	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조례 제4837호, 2017.1.1. 제정] [광주광역시조례 제5111호, 2018.7.24. 일부개정]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조례 제4634호, 2019.4.5. 제정]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432호, 2019.12.16. 제정]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714호, 2021.7.15. 일부개정]
	충청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조례 제4538호, 2019.7.10. 제정]
기초 자치단체(7)	목포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092호, 2017.2.13. 제정]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198호, 2018.12.17. 일부개정]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318호, 2019.12.23.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 제1294호, 2017.11.16. 제정]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1715호, 2017.11.30. 제정]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1294호, 2019.6.28. 일부개정]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2175호, 2021.9.27.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1282호, 2018.1.5. 제정]
	김해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1449호, 2019.10.4. 제정]
	신안군 1004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2234호, 2019.12.19. 제정]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2352호, 2021.3.18.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1766호, 2020.5.18. 제정]
지역교육청(2)	경기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경기도조례 제5625호, 2017.6.14. 제정]
	경상남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조례 제4418호, 2017.12.28. 제정]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p.82

4) 문화다양성 사업 현황

(1) 중앙부처의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현황

<표 II -8> 2021년 중앙부처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현황

연번	중앙부처	핵심과제							사업수 (개)	문화 다양성 사업예산 (백만 원)	중앙부처 예산규모 (백만 원)	전체 예산 대비 문화 다양성 사업예산 (%)
		1	2	3	4	5	6	7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국제기구 및 국가 간 문화 정체성 보호를 위한 협력 활성화	다양한 문화 주체의 참여 및 문화권 보장	문화 시설과 미디어 접근성 지원	문화 다양성 가치 반영 교육 활성화	문화 다양성 인식 제고	차별표현 시정을 통한 문화 다양성 가치 확산				
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	2	-	-	-	2	67,786	17,626,018	0.3846
2	교육부	-	-	-	2	1	-	-	3	-	76,464,481	-
3	국방부	-	-	1	-	-	-	-	1	200	7,728,236	0.0026
4	농림축산 식품부	-	-	1	-	-	-	-	1	400	16,285,615	0.0025
5	방송통신 위원회	1	-	-	3	-	-	-	4	4,149	52,068	7.9684
6	법무부	-	1	-	-	-	1	-	2	314	4,058,249	0.0077
7	여성 가족부	-	-	1	1	1	-	3	6	1,583	1,200,108	0.1319
8	외교부	-	1	-	-	-	-	-	1	145	2,840,945	0.0051
9	행정 안전부	-	-	2	-	-	-	-	2	627	57,445,067	0.0011
소계		1	2	5	8	2	1	3	22	75,204	213,700,787	0.0352
10	문화체육 관광부	10	4	8	5	3	3	-	33	741,158	6,863,712	10.7982
11	문화재청	-	2	-	-	-	-	-	2	3,209	1,141,579	0.2811
계		11	8	13	13	5	4	3	57	819,571	221,706,078	0.3697

주1) 표에 제시된 사업 수 및 사업예산은 중앙부처의 제출자료 기준이며, 지방비를 제외한 국비만 계상하였음

주2) 각 부처 총예산 규모는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세출예산을 참고한(본예산 기준/추경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 제외)

주3) 교육부의 사업 3건은 비예산 사업임.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는 기본계획상 핵심과제 부합 사업이 없어 미제출함.

주4)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외 부처는 가나다 순으로 배열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p.8

① 문화체육관광부

-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는 핵심과제 ①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② 국제기구 및 국가 간 문화정체성 보호를 위한 협력 활성화 ③ 다양한 문화주

체의 참여 및 문화권 보장 ④ 문화시설과 미디어 접근성 지원 ⑤ 문화다양성 가치 반영 교육 활성화 ⑥ 문화다양성 인식제고 ⑦ 차별표현 시정을 통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등 4개의 핵심과제와 33개의 추진과제를 수행함

<표 II -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다양성 정책 추진 현황(건)

핵심과제1	핵심과제2	핵심과제3	핵심과제4	핵심과제5	핵심과제6	핵심과제7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국제기구 및 국가 간 문화정책성 보호를 위한 협력 활성화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 및 문화권 보장	문화시설과 미디어 접근성 지원	문화다양성 가치 반영 교육 활성화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차별표현 시정을 통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합 계
10	4	8	5	3	3	-	33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p.101

-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의 문화다양성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다양성의 날 및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과 무지개다리 사업이 있음

○ 문화다양성의 날 및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 5월 21일은 ‘발전과 대화를 위한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World Day for Cultural Diversity for Dialogue and Development, 이하 문화다양성의 날)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유엔(UN)이 2002년 지정함
- 한국은 2015년부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인 5월 21일부터 일주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진행함
- 2021년에는 문화다양성 주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 25곳에서 ‘취향존중 취향저격’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문화다양성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됨



[그림 II-4] 2021 문화다양성 주간 포스터

[그림 II-5] 2022 문화다양성 주간 포스터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p.225
 출처: 문화다양성주간 (<https://www.diversityweek2022.com/>) 기준 (접속일 : 22.12.20.)

- 2021년에는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기간 동안 25개 기관에서 75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함. 2021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혼합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프로그램이 추진되어 참여자 수가 50만여 명으로 대폭 늘어남

<표 II-10>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 추진 실적(2016~2021)

(단위: 개, 명)

년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참여기관수	24	35	27	26	26	25
프로그램수	62	80	75	73	71	75
참여자수	90,034	70,047	288,646	114,453	121,221	502,714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p.226

○ 무지개다리 사업

-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행사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세대·성별·인종·종교 등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지닌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문화적 표현 기회를 확대하고, 구성원들 간 문화예술을 매개로 다양한 문화 간 상호이해와 교류,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임

- 2012년 다문화이해 차원에서 추진된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까지 매년 진행되고 있음. 2014년 제정된 문화다양성법에 따라 2015년부터 북한이탈주민·장애인·여성·이주민·세대(노인, 청소년) 등 소수문화계층의 문화표현 기회 확대와 지역의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문화체육관광부, 2022)

<표 II-11> 무지개다리 사업 개요

구분	내용
개요	지역 내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다문화, 소수문화, 세대문화, 하위문화, 지역문화 등 다양한 문화 및 문화주체들 간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공공문화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이주민 단체, 문화단체 등과 지역사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화다양성을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
사업 목적	1. 사회 내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을 통한 타 문화 포용성 증진 2. 문화 간 소통·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제고 및 능동적 문화 주체로서 소수자의 역할 확대 3. 지역 내 자생적인 문화다양성 기반의 사업 개발 및 정착
주요 특성	1. 이주배경주민(외국인·동포·다문화가정 등), 장애인, 여성 등 문화적 소수자들의 주체적 문화 활동 2. 다양한 문화주체들 간 소통 및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활동 3.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체계 구축 4. 사업기획 및 관리, 컨설팅, 네트워크 체계 구축 5. 지역사회와 단체 및 개인 간의 문화다양성 기반 네트워크 구축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p.232

○ 무지개다리 사업 추진 현황

- 2012년 6개 지역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 12개 지역, 2014년 17개 지역, 2015년 23개 지역, 2016년 24개 지역, 2017년 25개 지역, 2018년 27개 지역, 2019년 26개 지역, 2020년 26개 지역, 2021년 25개 지역에서 무지개다리 사업을 진행함
- 2020년부터 주관기관의 안정적 사업기획 및 운영을 위해 2020년 선정된 기관은 2022년까지 3년 동안 연속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매해 사업성과 결과를 토대로 다음연도 지원 금액에 반영하도록 신규 평가체계를 구축함

화성시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연구

<표 II-12> 무지개다리 사업 연도별 추이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 (백만원)	시범 사업	2,270	2,470	2,430	2,430	2,309	2,584	2,231	2,231	2,231
참여기관 수(개)	6개 (시범)	12	17	23	24	25	27	26	26	25
프로그램 참가자 수(명)	-	124,812	36,369	108,830	187,012	226,321	249,918	183,261	83,324	301,653
인식제고 정도(점) (‘18년~)*	-	80	85	86	87	89	78.9	76.6	76.2	83.8

* ‘13년~’17년 기간은 만족도(점), ‘18년 이후는 인식제고정도(점)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p.233

○ 2021년도 무지개다리 사업 추진 현황

<표 II-13> 2021년도 무지개다리 사업 추진 현황

구 분	주관기관	사업명	목적별 프로그램(개)				프 로 그 램 (개)
			인식 및 가치 확산	기반 마련	문화권 보장	상호 교류	
1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따로 또 함께 - 경남 무지개 마을	3	3	2	3	11
2	광주문화재단	우리누리(URI-N-URI)	2	2	-	1	5
3	구로문화재단	지구인	1	5	1	1	8
4	김포문화재단	多幸-다양한 행복	12	4	12	8	36
5	김해문화재단	문화공존 김해 ; 함께 가다	2	2	1	-	5
6	대전문화재단	우리多함께	3	1	-	-	4
7	부산문화재단	공감 메이커	4	6	-	2	12
8	성동문화재단	문화다양성 마을-다양성洞!	2	4	1	1	8
9	세종시문화재단	多화만사성: ‘다름’이 ‘다음’을 만듭니다.	3	1	1	1	6
10	영등포문화재단	우정과 환대의 영등포	1	7	1	1	10
11	영월문화재단	영월 문화다방	3	3	1	3	10
12	영주문화관광재단	있다, 그리고 있다. 연결하다, 그리고 共存한다	4	3	-	2	9
13	완주문화재단	존중의 가치	2	2	1	1	6
14	익산문화관광재단	문화로 소통하는 (多多)익산	1	2	3	2	8
15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	디아스포라영화제	2	1	1	1	5
16	종로문화재단	종로문화다양성연극영화제	5	2	-	3	10

17	충남문화재단	서로, 소리	2	4	-	2	8
18	충북문화재단	오색빛깔 조약돌	9	3	1	4	17
19	충주중원문화재단	2021 무지개다리 리어카	3	3	-	5	11
20	경북문화재단	한다발 스물 세송이	4	-	-	-	4
21	금정문화재단	금정 문화다양성 교류 프로젝트 '가가 가가'	8	-	-	-	8
22	당진문화재단	다(多)모인(人)! 당진	7	1	-	4	12
23	울산문화재단	오색빛깔 무지개 새, '진짜 울산' 찾기	3	3	-	-	6
24	인천서구문화재단	서구 문화 예찬: 표현, 나눔, 채움의 문화다양성	2	2	-	1	5
25	포항문화재단	마카多	5	-	-	3	8
계			93	64	26	49	232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p.234

② 여성가족부

- 2021년 여성가족부의 문화다양성 정책 핵심과제는 ①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 및 문화권 보장 ② 문화시설과 미디어 접근성 지원 ③ 문화다양성 가치 반영 교육 활성화 ④ 차별표현 시정을 통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등 4가지 핵심 과제와 6개의 추진과제를 수행함

<표 II-14> 여성가족부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현황(건)

핵심과제1	핵심과제2	핵심과제3	핵심과제4	핵심과제5	핵심과제6	핵심과제7	합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국제기구 및 국가 간 문화정책성 협력을 위한 협력 활성화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 및 문화권 보장	문화시설과 미디어 접근성 지원	문화다양성 가치 반영 교육 활성화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차별표현 시정을 통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	-	1	1	1	-	3	6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p.128

○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 및 문화권 보장

- 여성가족부는 문화 분야 유관기관의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해 문화서비스 제공 기관의 조직 내 다양성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의사결정권한을 높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도모함
- ‘문화 분야 유관기관의 여성 관리자 확대’ 사업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의 핵심과제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18~'22) 계획 수립·이행에 따라 공무원, 공공기관 등 12개 분야별 목표를 총괄·조정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을 점검함(문화체육관광부, 2022)

○ 문화시설과 미디어 접근성 지원

- 미디어 이용 역량 강화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해 다문화가족의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함

○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사업의 목적은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지역주민과 교류·소통할 수 있도록 공간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함.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 주민과의 교류·소통 증진을 위한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코로나-19 상황 시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운영함. 2021년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은 79,863명이 이용함

○ 문화다양성 가치 반영 교육 활성화

-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과 공존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을 다문화교육과 연계하여 수행함
- 다문화 지원 시설 종사자, 다문화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안) 마련 및 부처협의를 추진함(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2021.9.2.)

○ 2021년 다문화 이해교육 참여인원은 '20년 144,943명에서 '21년 189,863명으로 확대되었음. 2021년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에 공무원 7,321명, 다문화시설종사자 3,182명이 참여함

○ 차별표현 시정을 통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해 차별 표현 금지 규정 마련

- '차별표현 금지 규정 마련' 사업은 특정 문화, 인종, 국가 관련 혐오 발언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차별발언 금지와 관련된 조항의 신설

등 개정을 추진함(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2021.9.2.) (문화체육관광부, 2022)

③ 교육부

- 교육부의 문화다양성 핵심과제는 ① 문화시설과 미디어 접근성 지원 ② 문화 다양성 가치 반영교육 활성화로 핵심과제 2개와 추진과제 3개로 수행됨

<표 II -15> 교육부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현황(건)

핵심과제1	핵심과제2	핵심과제3	핵심과제4	핵심과제5	핵심과제6	핵심과제7	합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국제기구 및 국가 간 문화정책성 협력 활성화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 및 문화권 보장	문화시설과 미디어 접근성 지원	문화다양성 가치 반영 교육 활성화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차별표현 시정을 통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	-	-	2	1	-	-	3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P.119

○ 문화시설과 미디어 접근성 지원

- 교육부는 미디어 이용 역량 강화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디지털기기 대여 사업을 추진함
- 미디어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을 위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추진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통 및 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함



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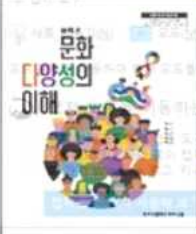


중등

[그림 II -6] 미디어 탐구 생활

출처:미리네(<http://www.miline.or.kr/>) 기준(접속일: 2022.12.25.)

- 문화다양성 가치 반영 교육 활성화를 위해 문화다양성 교과서(중·고등) 보급 확대함
 - 교육부는 미디어 이용 역량 강화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디지털기기 대여 사업을 추진함
 - 교육부는 청소년 대상 문화다양성 교과서 개발·보급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과 공존기반을 형성하고, 생애주기에 맞춘 문화다양성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다양성 교과서 보급 및 확대 사업을 수행함
 - 문화다양성 교과서 사업은 자유발행제 시범사업의 일환인 정부부처 협업 교과서 개발 사업으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시도교육청, 학교가 함께 협업함

				
핀테크 일반 (과기정통부)	동시대미술 (문체부)	문화다양성의 이해 (문체부)	HMR 편의식품가공 (농식품부)	농창업일반 (농식품부)
				
반려동물 복지론 (농식품부)	전력자동화 시스템실무 (산업부)	치과간호임상실무 (복지부)	피부미용의 기초 (복지부)	살은 환경 (환경부)

[그림 II-7] 문화다양성 교과서

출처: 대학저널(<http://www.dhnews.co.kr>) '교육부, 타 부처와 현장 맞춤형 교과서 개발 (접속일 : 2022.12.25)

(2)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현황

<표 II-16> 2021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현황

연번	지방자치단체	핵심과제							사업수 (개)	문화다양성 사업예산 (백만 원)	지방자치 단체 예산규모 (백만 원)	전체예산 대비 문화다양성 사업예산 (%)
		1	2	3	4	5	6	7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국제기구 및 국가 간 문화정책 협력을 통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문화 시설과 미디어 접근성 지원	문화다양성 가치 반영 교육 활성화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차별표현 시정을 통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1	서울특별시	17	3	13	15	8	3	-	59	31,861	288,308,320	0.01
2	부산광역시	6	1	9	1	3	1	-	21	17,634	14,415,991	0.12
3	대구광역시	10	-	10	2	4	-	-	26	8,266	10,125,520	0.08
4	인천광역시	17	6	15	9	2	3	1	53	45,432	13,307,454	0.34
5	광주광역시	-	2	5	1	-	1	-	9	3,367	6,576,718	0.05
6	대전광역시	4	-	8	3	3	2	4	24	12,857	6,015,945	0.21
7	울산광역시	3	2	15	-	3	2	-	25	5,273	4,865,304	0.11
8	세종특별자치시	4	-	7	2	4	4	-	21	1,225	1,665,747	0.07
9	경기도	43	-	38	14	5	10	2	112	128,277	51,454,732	0.25
10	강원도	15	2	18	4	3	-	-	42	24,869	12,917,687	0.19
11	충청북도	23	8	19	13	4	7	-	74	42,479	10,250,433	0.41
12	충청남도	9	-	13	9	2	4	-	37	10,330	14,422,887	0.07
13	전라북도	8	1	7	2	3	3	-	24	41,086	13,989,775	0.29
14	전라남도	17	3	11	14	2	1	1	49	50,417	16,695,308	0.30
15	경상북도	8	-	30	4	5	3	-	50	10,823	20,110,469	0.05
16	경상남도	6	-	9	3	5	5	1	29	6,580	19,977,704	0.03
17	제주특별자치도	5	1	9	5	-	-	-	20	20,941	5,559,804	0.38
계		195	29	236	101	56	49	9	675	461,717	510,659,798	0.09

주1) 표에 표시된 사업 수 및 사업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제출자료 기준이며,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만 계상하였음. 시행계획으로 제출되었으나 기본계획상 적합성이 떨어지는 총 50개 사업은 집계 및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주2) 각 지자체 총예산 규모는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세출예산을 참고함(본예산 기준/추경 및 기금은 용계획 변경 제외)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p.10

3. 해외 문화다양성 정책

1) 국제사회의 문화다양성 정책 환경의 변화

(1) 문화다양성 개념은 세계화 열풍에 따른 문화 종속화 우려로 탄생

○ 세계화에 따른 국제환경의 변화로 정치적으로는 국민국가의 역할과 주권, 국제기구나 국가 간 협정의 영향력이 높아졌고 경제적으로는 무역 자유화 및 단일 시장화 경향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와 대응에서 문화다양성이 논의되기 시작함(문화체육관광부, 2017)

○ 문화다양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90년 세계화 이후. 1993년 종결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문화산업'이 주요한 시장개방 대상이 됨으로써 경제적 자본에 의해 특정 문화가 다른 문화를 지배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나타남. 이에 자국의 문화를 지키는 개념으로 '문화다양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함

(2) 문화적 권리의 발전과 문화다양성 논의

○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은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발전위원회에서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Our Creativity Diversity)'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시작됨. 세계문화발전위원회 보고서에서는 문화다양성이 생물다양성만큼 중요한 것으로 국가, 지역, 인류사회의 중요한 발전 전략이라 밝힘

○ 이에 2001년 10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31차 유네스코 정기총회에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천명하는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을 채택하고, 같은 해 11월 유네스코 세계문화다양성 선언(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을 발표하여 문화다양성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확장됨

○ 문화다양성에 대한 논의는 민족과 인종차별로 집단 학살에 이르기까지 했던 세계 2차 대전의 반성에서 출발함, 세계인권선언(1948),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ESCR, 1966) 시민·정치적 권리의 국제 규약(ICCPR,

1966) 소수자 권리 선언(1992) 등에 기초하여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 합의로부터 도출된 가치를 바탕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권선영, 2019)

(3)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유네스코 선언과 협약

-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이 대두되기까지 유네스코의 활동과 이민자 등 소수자 민권 운동의 역할과 공헌이 있었음. 유네스코는 ‘풍요로운 다양성’의 확보를 헌장에 명시하고 문화 개념을 예술이나 문학과 같은 협의로 한정하지 않고 인간의 생활양식과 기본적인 권리들을 포함하여 한 사회나 사회집단을 설명해주는 독특한 정신적, 지적, 정서적, 특질들의 복합체 전체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함(유네스코, 2009; 문화체육관광부, 2017 재인용)
- 2001년 유네스코는 ‘문화다양성 선언’에서 문화는 “한 사회와 집단의 성격을 나타내는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이며, 예술이나 문자의 형식뿐 아니라 함께 하는 방법으로서 생활양식, 인간의 기본권, 가치, 전통과 신앙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함(문화체육관광부, 2018)
- 2005년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을 채택함. 문화다양성 협약은 WTO 출범 이후 문화가 자유주의 시장개방의 주요 대상으로 거론되기 시작해 각국의 문화주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로 문화주권을 지키기 위한 서비스 상품의 완전한 개방에 ‘문화적 예외’를 국제적으로 합의함(유네스코, 2005; 문화체육관광부, 2018)

(4) 코로나 19의 장기화 및 인종 갈등 심화

- 코로나 19 장기화 및 인종갈등이 심화되면서 아시아계 증오 정서가 미국, 유럽, 호주 등 세계 각지로 확산됨. 이로 인한 일상 속 인종차별, 증오 범죄가 전 세계로 확대됨
 - 아시아계 미국인 증오범죄 2019년 대비 2020년 149%(122건) 증가 및 2021년 3월부터 미국 전역에서 “STOP ASIAN HATE(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를 멈춰라)”운동을 통해 반아시아 감정에 대한 반대 확산

- 이에 미국 내 아시아계 증오범죄 확산에 대응하여 ‘코로나 19 증오범죄법 (COVID-19 Hate Crimes Act)’ 법안(‘2021.4)이 통과되어 여러 언어로 제공 됨. 증오범죄 온라인 신고를 허용하고 사법당국의 신속한 처리를 의무화함 (관계부처 합동, 2021)

(5) 다양한 문화콘텐츠 반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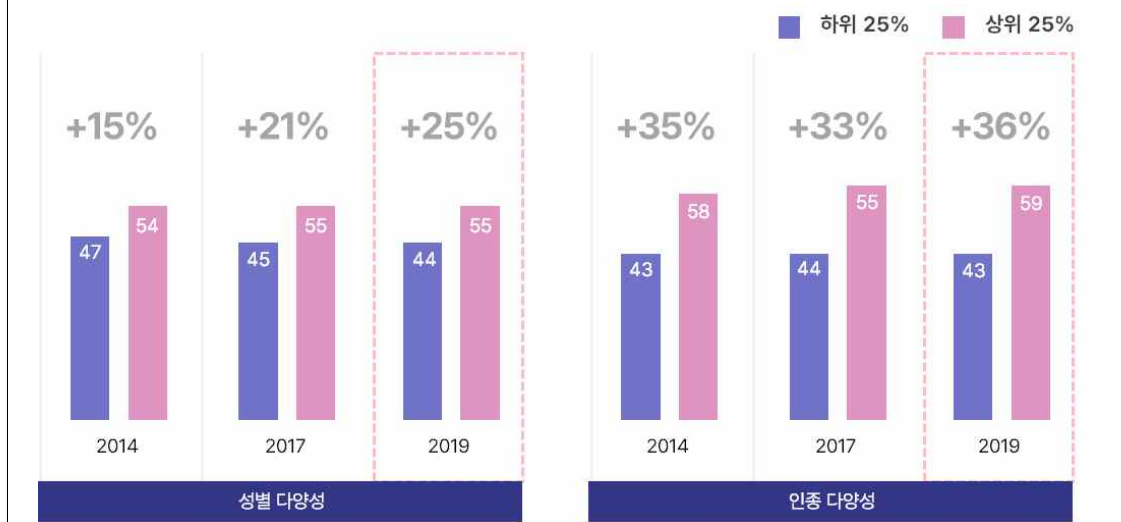
- 문화소비자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아카데미상 시상식, 글로벌 OTT 등에서 다양성 기준 마련 및 관련 조사를 실시함
- 미국 아카데미상 선정 시 주류 영화에서 소외되었던 여성, 소수인종·민족, 성 소수자, 장애인 등이 비중 있게 참여하도록 수상자격에 4가지 기준을 신설 (2020, Academy Aperture 2025)(관계부처 합동, 2021)

(6) 기업 운영의 주요 가치로 다양성 주목

- 기업 운영의 주요 가치로 다양성이 주목됨. 다양성과 포용성이 기업 성장의 중요 요인으로 분석됨에 따라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됨
- 관계부처 합동(2021) 보도자료에서 맥킨지(McKinsey)는 경영진의 성별 다양성과 수익률 간의 관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기업을 위해 다양성 가치 강조

맥킨지의 ‘Diversity wins: How inclusion matters’ 주요 내용

- 2020년 경영진의 성별 다양성 상위 25% 기업이 다양성이 낮은 하위 25% 기업보다 수익률이 25%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경영진의 인종 다양성 상위 25% 기업이 다양성이 낮은 하위 25% 기업보다 수익률이 36%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에는 젠더와 인종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연령·세대 등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성 강조



[그림 II -8] 맥킨지의 ‘Diversity wins: How inclusion matters’ 주요 내용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1),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p.6

2) 문화다양성 발전 단계

- 유네스코는 문화의 개념을 지식, 예술, 정체성, 민주주의 등과 연계시키면서 그 의미와 역할을 확대함
- 2007년 유네스코 보고서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검토 및 전략’에서는 문화다양성의 발전 과정을 5단계로 제시함. 1단계는 문화와 지식의 단계, 2단계는 문화와 정치의 단계, 3단계는 문화와 발전의 단계, 4단계는 문화와 민주주의 단계, 5단계는 문화와 전지구화 단계로 설명할 수 있음(Stenou, 2007 ; 권선영, 2019, 재인용)

문화다양성 발전 단계



[그림 II-9] 문화다양성 발전단계

출처: 고양시정연구원(2019), 「고양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연구」, p.14 재구성

3) 국가별 문화다양성 정책

○ 독일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자국 내 소수민족과 이주민 소수자 그룹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독일계 실향민, 동독주민, 외국인노동자 등과 같이 시대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주민의 형태도 변화하였지만, 정책의 방향성은 사회통합에 있음. 주요한 통합계획으로 학교와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상호문화 관련 교육을 포함하고 있음. 독일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정책대상 집단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사회갈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문화등대사업을 통해 동서부 지역 간 내적 통합을 도모(문화체육관광부, 2018)

○ 프랑스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세계화와 경제자본에 대응하는 '문화적 예외'라는 개념을 대두시킴. 이 목표로 문화예술교육,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문화예술의 창작을 제시함. 프랑스는 문화예술정책을 통한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 이를 통해 다문화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소수문화에 대한 수용성 향상을 위해 공교육에서 문화다양성 교육 강화함. 프랑스는 정책대상자에 따라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함(문화체육관광부, 2018)

- 캐나다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초기부터 다문화정책에 근거한 개방성에 바탕을 두고 있음. 소수민족의 다문화 국가인 캐나다는 신규 이주민의 유입을 폭넓게 수용하여 1971년 다문화주의를 지향함. 1988년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법을 제정하면서 다문화주의 국가로서의 기틀 마련. 사회통합 정책방향은 상호문화교류 증진과 성소수자의 권리 증진과 이주민지원책에 있음. 캐나다 문화다양성 정책은 중앙정부가 정책을 주도하고, 지자체와 민간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2천 개 문화관련 연합단체가 문화다양성 연대에 참여,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음(문화체육관광부, 2018)
- 네덜란드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성소수자에 대한 개방이 가장 큰 특징임. 특히, 네덜란드는 2001년 동성 간 결혼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합법적으로 인정한 국가임. 동성 부부가 입양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물론 수술 없는 성전환 권리 등을 합법화하여 성소수자에게 친화적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문화체육관광부, 2018)
- 스웨덴 문화다양성 정책의 기본원칙은 평등, 선택의 자유, 협력임. 평등은 제도적 차별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선택의 자유는 소수자들이 문화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협력은 소통과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 및 협력하는 것을 의미함. 특히, 스웨덴은 평등기회법령(1984)을 발표하여 여성의 사회적 참여활동 지원 등 국가적으로 양성평등 정책을 지원함(문화체육관광부, 2018)
- 베트남 문화다양성 정책의 특징은 정부 주도로 헌법을 개정하고 규제를 변경하여 문화다양성의 기틀을 마련한 데 있음.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다양성에 비중을 두고 문화다양성 정책을 개발함(문화체육관광부, 2018)
- 국가별 문화다양성 정책 분석

<표 II-17> 주요 국가별 문화다양성 정책분석

국가	배경	특징
독일	- 2007년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① 전후독일계실향민 대량 이주 ② 1990년 동서독 통일	- 사회통합정책의 변천흐름: ① 1990년 외국인 거류자 법, ② 2000년 시민권 ③ 2005년 이민법의 개혁이 시도됨

화성시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연구

	③ 외국인 노동자 유입 ④ 국내 소르보, 집시, 데인족 소수민족 보호 ⑤ 혈통주의, 자민족 우선 vs 다문화정책 논쟁	- 연방 및 주정부 내 부처 간 협력과 재정투입을 통한 문화다양성 정책운영 - 구동독 연방지역의 문화통합을 위한 문화등대 운영 - 문화미디어행정부(BKM) 산하 세계문화의 집을 통한 국제문화교류활동
프랑스	- 2006년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 미국주도 세계화와 문화 획일화에 맞선 ‘문화적 예외’ 정책 제시 - 전통적 문화예술창작 및 향유자 증대를 지향하는 문화정책과 연계됨 - 유럽계와 아프리카계 주민갈등문제에 대응 필요	- 프랑스 사회계약 프랑스정부의 능동적 대처로 동화주의를 추구하되 폐쇄적 단일문화국가 아닌 역동적 통합문화창조 - 창작자유, 문화재, 건축법을 통한 문화공동체 추구(2015) - 차별퇴치평등고용청 - 공교육기관 문화다양성 교육강화를 통한 문화감성증대, 시민성 함양 추구
캐나다	- 2005년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 다인종, 다민족 문화, 이민자에 대한 평등한 대우추구 - 이민자와 연방제의 국가 - 영국계와 프랑스계 주류사회 - 공업국으로 전환, 노동력 필요에 의한 경제 이민 활성화	- 백인주의 동화정책에서 이민자 고유 민족성과 다양성 인정 - 상호문화 교류증진정책 - 다문화사회의 모범국 - 연방정부의 확고한 정책방향제시와 기금지원 - 퀘백 문화아젠다 21정책
네덜란드	- 2009년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 전체인구 중 22%가 이주민(1700만 명)으로 대표적 다문화국가 - 1970년부터 터키, 모로코, 인도네시아 등 이주 본격화 - 암스테르담 50% 이상 이주민 구성 - 국민 90% 이상 동성결혼찬성 및 성소수자 친화성	- 진정한 다문화주의, 다양한 문화공존 속에서 서로의 다양성 인정 추구함 - 현재 정부는 공동의 언어와 가치를 갖는 시민공동체를 추구하고,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을 특별 정책에서 일반정책으로 분류 - 성소수자 친화적 정책운영 - 동성부부권리, 성전환권리 합법화
스웨덴	- 2006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 1975년 의회다원, 다문화 사회통합법, 정책 제정 - 세계경제포럼(WEF) 세계성격차지수 최상위권 지위유지 - 1980~2006 이주민 100만 명 유입	- 외국인노동자는 스웨덴 노동시장의 중요한 요소 - 1988년 양성평등기회진증 5개년 계획수립으로 여성노동자 가치를 높임 - 학교 내 문화다양성 인식 교육확산 노력 - 극우 성향 특정 그룹(이슬람인, 유대인, 아프리카인, 집시 등) 적대 성향퇴치 노력

베트남	- 2007년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 중국과의 항쟁 1천 년, 프랑스와의 투쟁 100년 등 외세의 침략에 의해 투쟁의식이 강함 - 중국으로부터 유교적 영향을 받았고 여성차별이 사회에 만연함 -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문화 산업의 역할과 위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관심이 높음	- 2013년 헌법개정 : 사회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안 개정 추진, 세계 헌법의 맥락 차용 - 문화 및 예술 분야의 NGO가 법인으로 공식화할 수 있도록 규제 변경 - 국제 개발 협력 프로그램(경제, 교육, 빈곤퇴치, 환경보호 등)에 문화발전 및 문화창의성 문제 거론 - 베트남 통계청 주도로 문화산업을 위한 국가 기준 및 자료수입 시스템 구축 예정
-----	--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 「제2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 국가 보고서 작성연구」, p.24

Ⅲ. 화성시 문화다양성 현황

1. 화성시 사회관련 현황
2. 화성시 문화관련 현황
3. 화성시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

1. 화성시 사회관련 현황

1) 화성시의 권역별 특징

- 화성시는 2021년1월 기준 698,194km²의 면적으로 경기도 내 자치단체 중 5번째로 넓음. 동쪽으로 용인시, 서쪽은 황해, 남쪽은 평택시·오산시, 북쪽은 바다를 거쳐 안산시·시흥시·군포시·수원시와 접하고 있음
 -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철도, 국도 등 도로망이 잘 연결되어 있고 1시간 안에 서울 진입이 가능해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
 - 용·건릉, 용주사 등 관광자원과 68.46km의 해안선에 접하고 있어 볼거리와 먹거리를 모두 보유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화성시문화도시추진단, 2021)
- 화성시는 도심권 편중 및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보임
 - 주거지를 중심으로 도심권 편중 및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마도면과 향남읍을 중심으로 넓은 토지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해양·제조 산업이 발달함
 - 잘 발달 된 4개의 고속도로, 5개의 국도, 12개의 지방도가 있어 서해안까지 물류 이동이 가능하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와 연결되어 있음(화성시, 2021)
- 도농복합도시로 권역별 격차 심화
 - 화성시는 서부권, 남부권, 동부권으로 권역을 구분하고 있음
 - 서부권은 서해안에 위치해 농·어업과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한 관광사업 및 행정의 중심임
 - 남부권은 많은 공장과 대규모 산업단지가 소재해 있으며 외국인 거주자가 많음
 - 동부권은 신도시 개발 이후 급속도로 증가한 인구 현황 및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으며 권역 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확인됨(화성시문화도시추진단, 2021)
- 화성시는 3개의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지역적 특색을 지님
 - 택지개발 및 신도시 개발로 동부 생활권으로 인구가 밀집되는 현상이 일어남

<표 III-1> 화성시 권역별 지역 특성

권역	지역 특성
동부권	- 화성시 인구의 72.97% 집중 - 유·아동 및 청소년 유입 활발 - 동탄복합문화센터 등 문화향수 기반시설 구비 - 교육 인프라 형성 - 용릉과 건릉, 용주사 등이 위치해 역사문화유적 활용 가능
서부권	- 행정의 중심 - 서해안 해안을 따라 해양레저, 공룡알 화석지, 국제테마파크 등 관광인프라 조성 중 -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문화기반시설 부족
남부권	- 많은 공장과 대규모 산업단지 소재 - 높은 외국인 거주비율 - 향남읍 중심으로 문화원, 생활문화센터 - 제암리 유적, 역사박물관 등 역사자원 활용 가능

출처 : 화성시문화도시추진단(2021), 「화성시 문화도시 조성계획」, p.10



[그림 III-1] 화성시 권역별 특성

출처: 화성시문화도시추진단(2021), 「화성시 문화도시 조성계획」, p.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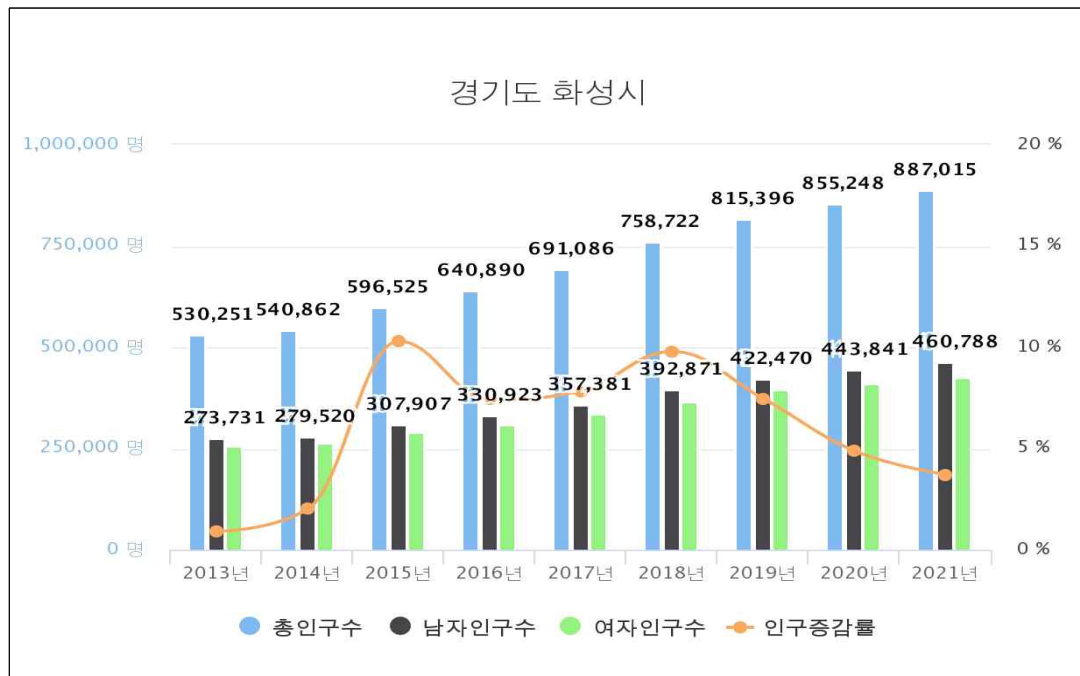
2) 화성시 인구 현황

- 2022년 10월 기준 화성시 인구는 904,267명임(행정안전부, 2022)
- 구역별 인구수는 동부 678,079명, 남부 129,434명, 서부 96,754명 순으로 높으며 동부에서는 동탄7동, 남부에서는 향남읍, 서부에서는 남양읍의 인구수가 높음
-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남부와 서부에서는 향남읍과 남양읍에 거주하는 인원이 구역 전체 대비 각각 67.5%, 47.8%를 차지함
- 화성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도시로 특히 2011년부터 동탄 2신도시가 개발되고 완료된 시점인 2015년에 인구가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음
- 최근 10년 동안 화성시의 인구 및 세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경제활동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화성시는 인구 순유입을 전국 1위를 기록함

<표 III-2> 화성시 구역별 주민등록 인구 현황

지역		인구수(명)	비례(%)
화성시	동부	678,079	75.0
	서부	96,754	10.7
	남부	129,434	14.3
	합계	904,267	100.0

출처, 행정안전부(<https://jumin.mois.go.kr/index.jsp>), 기준(접속일: 2022.12.15.)



[그림 III-2] 화성시 주민등록 인구 통계 현황

출처: 행정안전부(<https://jumin.mois.go.kr>) 기준(접속일: 2022.12.23.)

3) 연령

- 2022년 12월 기준 화성시의 연령별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40세 미만의 인구가 전체의 50.8%로 나타남. 경기도의 40세 미만 인구비율 44.1%와 전국 40세 미만 인구비율 41.4%와 비교하면 화성시는 40세 미만 인구가 많은 젊은 도시임
- 2022년 12월 기준 화성시의 평균 연령은 38.4세로 전국 평균 연령 44.3세, 경기 평균 연령 42.4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60세 이상 인구도 15.4%로 전국 평균 26.2%, 경기도 평균 22.3%에 비해 노년 인구가 적음. 화성시는 노년 인구는 적고 젊은 인구가 많은 젊은 도시임

<표 III-3> 화성시 연령 구간 인구수

총 인구수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910,814	96,724	105,971	109,750	150,262	178,243	129,461	84,803	36,008	19,592

출처 : 행정안전부(<https://jumin.mois.go.kr>) 기준(접속일: 2022.12.15.)

- 2022년 12월 기준 화성시는 15~64세의 연령층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매년 화성시 전체 인구수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음



[그림 III-3] 화성시 연령 구간 인구수

출처 : 행정안전부(<https://jumin.mois.go.kr>) 기준(접속일: 2022.12.15.)

4) 가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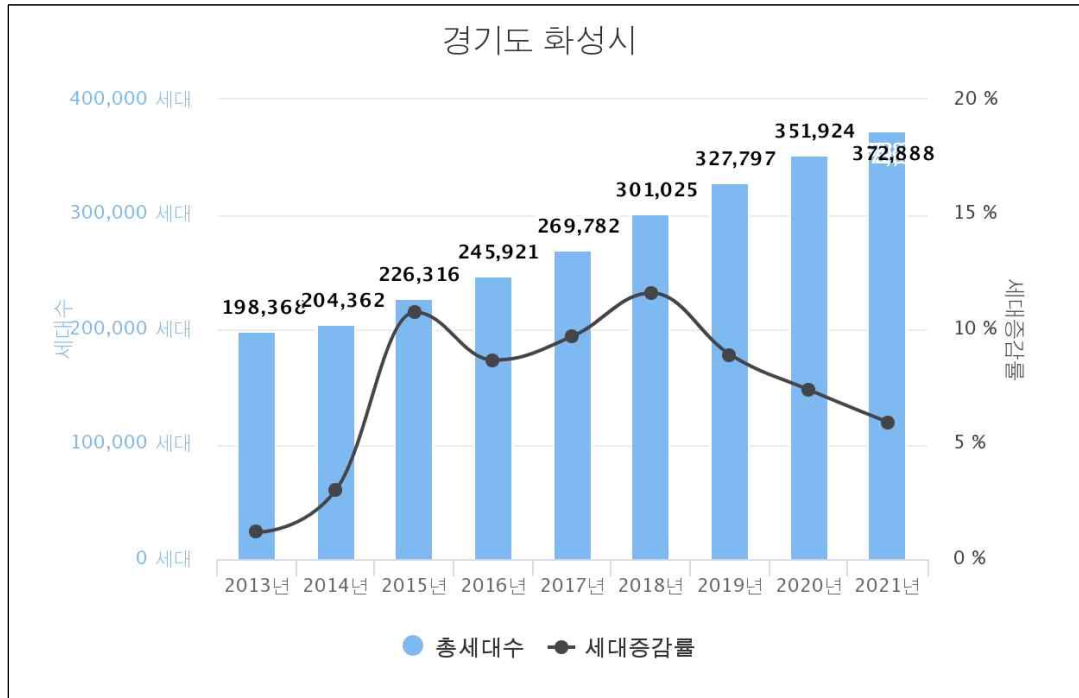
- 2022년 10월 기준 화성시에 거주하는 총 세대수는 384,777가구임(행정안전부, 2022)
- 구역별 세대수는 동부 275,447가구, 서부 45,225가구, 남부 64,105가구 순으로 높으며 동부에서는 봉담읍, 서부에서는 남양읍, 남부에서는 향남읍의 세대수가 높음

<표 III-4> 화성시 구역별 세대 현황

지역		세대수(가구)
화성시	동부	275,447
	서부	45,225
	남부	64,105
	합계	384,777

출처 : 행정안전부(<https://jumin.mois.go.kr>) 기준(접속일: 2022.12.15.)

-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서부와 남부에서는 남양읍과 향남읍에 거주하는 세대수가 구역 전체 대비 각각 62.6%, 50.5%를 차지함
- 화성시 총 세대수는 동탄 2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2015년에 급격히 상승폭을 보였으며 이후로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그림 III-4] 화성시 세대현황

출처: 행정안전부(<https://jumin.mois.go.kr>) 기준(접속일: 2022.12.20.)

5) 외국인주민 현황

(1) 외국인주민 인구

- 2022년 4월 기준 화성시 외국인 주민 수는 62,550명으로 화성시 총인구대비 6.9%을 차지하고 있음. 전국에서 안산, 수원, 시흥 다음으로 네 번째로 많음(통계청, 2022)
- 화성시는 안산이나 시흥에 비해 중국동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고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22,11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생

활하고 있음(행정안전부,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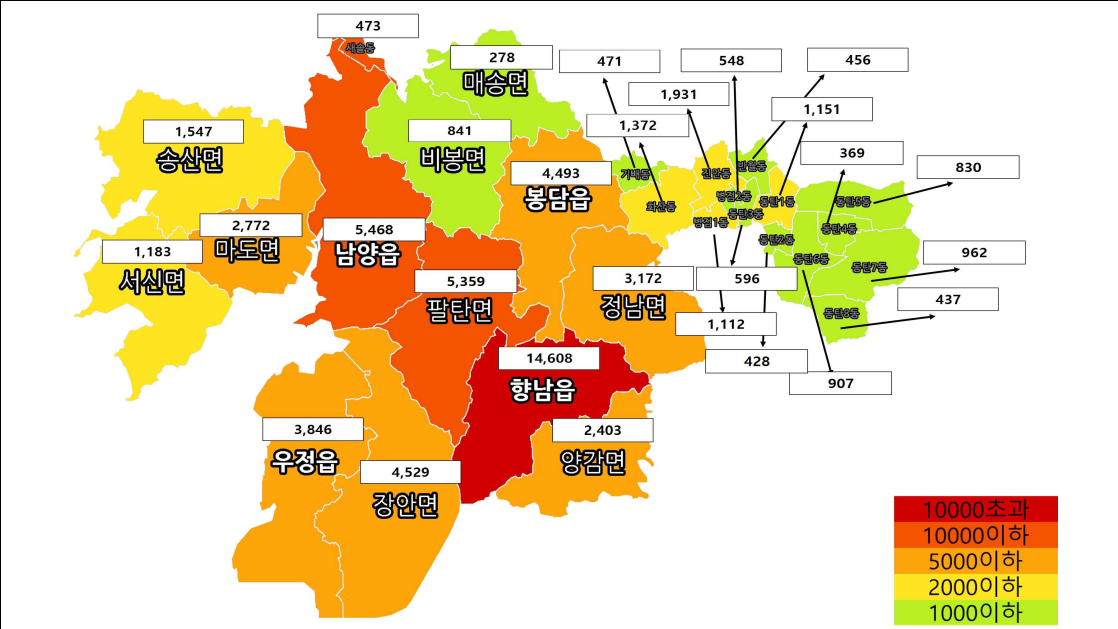
- 또한 산업단지 주변인 화성시 남부와 서부 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외국인주민 수는 2013년에서 2014년으로 넘어가며 크게 증가했다가 이후 증가폭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그러나 2017년부터 다시금 증가하고 있음
- 화성시 등록외국인은 38,967명으로 읍면동별로는 향남읍 8,062명, 팔탄면 4,255명, 남양읍 3,352명 순서로 많으며, 주로 남부권에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21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화성시 내 등록 외국인주민 현황은 체류자격으로는 전체 35,077명 중 비전문취업(E9, 17,253명), 영주(F5, 3,696명), 방문취업(H2, 3,676명) 순으로 많음

<표 III-5> 화성시 유형별 외국인주민 현황

(단위 : 명)

연도	합계	한국국적 미취득자						한국국적을 취득자	외국인 주민 자녀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2017	51,928	46,130	25,552	2,908	561	5,367	11,742	2,517	3,281
2018	59,278	52,522	27,556	3,270	765	6,250	14,681	2,941	3,815
2019	65,040	57,123	27,310	3,641	923	6,787	18,462	3,331	4,586
2020	63,718	54,937	25,183	3,959	773	7,922	17,100	3,761	5,020
2021	62,542	52,962	22,110	4,099	769	9,302	16,682	4,173	5,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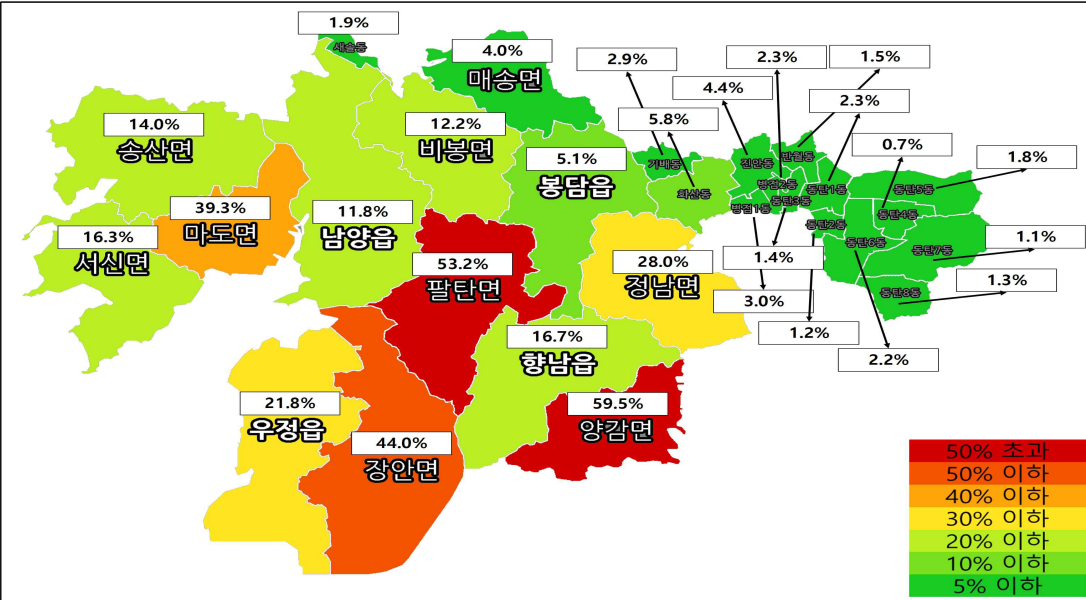
출처: 행정안전부(<https://jumin.mois.go.kr>), 2017~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Ⅲ-5] 화성시 행정동별 외국인주민 수

출처: 화성시(2022), 「화성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p.30

○ 2022년 1월 발표된 「화성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화성시는 타지역에 비해 외국인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화성시의 중심부와 읍면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음



[그림 Ⅲ-6] 화성시 행정동별 외국인주민 비율

출처: 화성시(2022), 「화성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재구성

(2) 화성시 외국인주민 관련 기관 현황

- 화성시에는 외국인주민 관련 기관이 11개 있음. 기관별로 주요 사업에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생활 적응,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취업, 상담, 자녀 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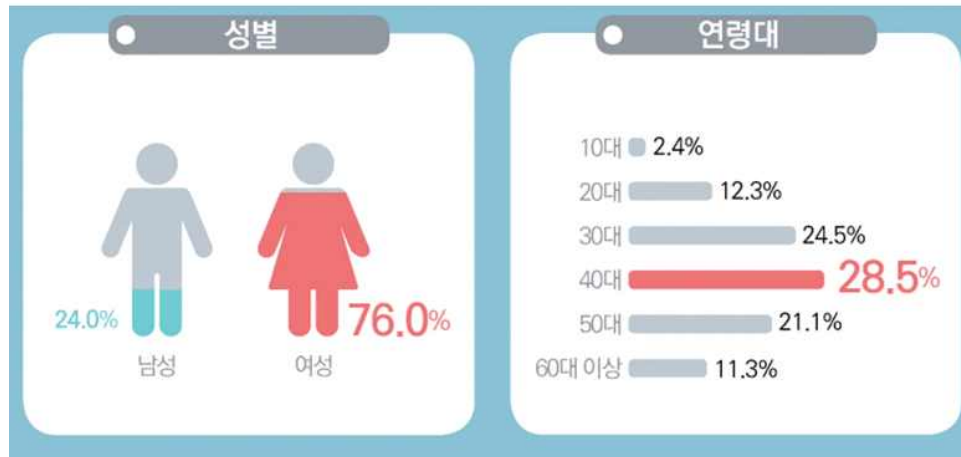
<표 III-6> 화성시 외국인주민 관련 기관 현황

기관명	주요 프로그램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 지원사업	외국인주민 지원
		무료 급식
		외국인주민 상담지원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외국인주민 건강증진
		외국인주민 자율봉사단
	교육 문화 사업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문화·역사 체험
		외국인주민 체육대회
		화성시 세계문화 축제
		한국어 교육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사회통합 프로그램
화성시 가족센터	한국어 교육 서비스	
	방문교육 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개인·가족상담 및 사례관리	
	결혼이민자 서포터즈 사업	
	이중언어환경 조성 사업	
용주사	한국어교육	
까리따스이주민화성센터	상담, 한국어교육	
발안엠마우스	상담, 컴퓨터운영	
화성시외국인노동자센터	노동자 상담, 인권보호, 체불임금 회수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상담, 한국어교육, 취업교육, 컴퓨터	
다모임한사랑복지회	상담, 한국어교육, 컴퓨터, 행사(가요제 등)	
문화공간더함 서로	외국인 주민 소통 공간	
조암신흥이주민센터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적응 지원(더불어학교)	
굿파트너즈	다문화아동 교육지원	

출처: 화성시(2020), 「화성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p.82-83 재구성

6) 북한이탈주민 현황

- 2021년 5월 기준 통일부에 등록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29,880명임
 - 성별은 여성 22,723명, 남성 7,157명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3배 정도 많음
 - 연령대는 50대 이상 9,673명, 40대 8,515명으로 40대와 50대가 가장 많음



[그림 III-7] 북한이탈주민 인구 현황

출처: 남북하나재단(2022),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 조사」

- 통일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에 따르면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10,877명임
- 경기남부하나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화성시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은 1,304명임. 경기도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12.0%가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음
- 하나원 퇴소 후 경기남부 지역(평택, 화성 오산, 안성)에 거주하게 된 북한이탈주민은 경기남부하나센터를 통해 초기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사업, 지역취업지원 사업 등 7가지의 사업을 지원받게 됨

<표 III-7> 북한이탈주민 현황

거주기간	성별	거주지역	합계	연령대				
				1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합계			29,880	706	3,672	7,314	8,515	9,673
5년 미만	남성	수도권	655	48	227	150	105	125

5년 이상		비수도권	182	14	50	39	32	47
		수도권	2,758	72	660	868	626	532
	여성	비수도권	1,162	24	153	358	334	293
		수도권	4,296	204	754	1,166	918	1,254
	남성	비수도권	2,024	79	288	444	424	789
		수도권	11,648	183	1,139	2,773	3,620	3,933
	여성	비수도권	7,155	82	401	1,516	2,456	2,700
		수도권						

※ 사망자, 거주불명자, 이민자, 특별보호대상자, 보호취소, 보호종지, 보호종료, 비보호자 등은 제외함
 ※ 거주지역에서 수도권은 전국 17개 시도 기준 3개 광역시도(서울, 경기, 인천)이며, 비수도권은 14개(부산, 광주, 대전, 울산,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임
 ※ 거주기간은 남한에서의 거주기간을 의미함

출처: 남북하나재단(2022),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 조사」, p.30

7) 장애인 현황

(1) 화성시 장애인 인구

- 2022년 11월 말 기준 화성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남녀 총 31,090명으로 화성시 인구 910,814명의 3.4%에 해당하는 수치임.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장애인 수는 약 1:2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심한 장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장애는 지체 장애와 지적 장애이며, 심하지 않은 장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장애는 지체 장애임
- 심하지 않은 장애 중 지체 장애를 제외하면 청각 장애와 시각 장애가 가장 많은 장애 유형임
- 화성시 내 읍면동 중 화성시 전체 장애인 수의 3%(약 900명) 이상인 곳은 28곳 중 12곳임
- 봉담읍, 향남읍, 남양읍, 동탄7동, 진안동, 우정읍, 동탄5동, 화산동, 동탄3동,

화성시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연구

병점1동, 장안면, 송산면 순으로 등록 장애인 수가 많음

<표 III-8> 장애 유형에 대한 화성시 장애인 현황

(단위 : 명)

장애 유형	합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합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31,090	19,326	11,764	11,046	6,806	4,240	20,044	12,520	7,524
지체	14,719	9,468	5,251	2,639	1,829	810	12,080	7,639	4,441
시각	2,807	1,808	999	436	231	205	2,371	1,577	794
청각	4,402	2,455	1,947	1,045	582	463	3,357	1,873	1,484
언어	361	265	96	121	87	34	240	178	62
지적	2,557	1,566	991	2,557	1,566	991	0	0	0
뇌병변	2,742	1,572	1,170	1,622	865	757	1,120	707	413
자폐성	621	510	111	621	510	111	0	0	0
정신	980	497	483	969	490	479	11	7	4
신장	1,232	752	480	816	504	312	416	248	168
심장	70	45	25	48	30	18	22	15	7
호흡기	103	65	38	94	60	34	9	5	4
간	195	133	62	9	7	2	186	126	60
안면	36	25	11	19	12	7	17	13	4
장루· 요루	198	125	73	23	16	7	175	109	66
뇌전증	67	40	27	27	17	10	40	23	17

출처: 화성시(<https://www.hscity.go.kr/>), '장애인 유형 및 장애 정도별 등록 현황.' 기준(접속일: 2022.12.26.)

(2) 화성시 장애인 복지시설 목록

- 2022년 10월 기준 화성시 장애인 복지시설은 총 48개이고, 유형에 따라 재활 시설과 거주시설 등으로 구분되며 기관의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III-9> 화성시 장애인 복지시설 목록

지역	유형	시설명
동부	장애인 거주시설	다사랑 장애인 단기 거주 시설, 사랑의 집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나래울 장애인 주간 보호 센터, 동부 장애 아동 재활 센터, 동탄 어울림 장애인 주간 보호 센터, 동탄 장애 아동 재활 센터, 봉담 장애 아동 재활 센터, 봉담 해밀 장애인 주간 보호 센터, 와우리 장애인 주간 보호 센터, 화성시 동탄 아르딤 복지관, 화성시 동탄 아르딤 장애인 주간 보호 센터

III. 화성시 문화다양성 현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더 아름다운 세상, 와우리 보호 작업장, 행복 플러스 보호 작업장, 화성시 드림 장애인 직업 적응 훈련 센터, 화성시 아름 장애인 보호 작업장 동탄점
남부	장애인 거주시설	브니엘복지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아르딤 장애인 주간 보호 센터, 장안 장애 아동 재활 센터, 화성 남부 장애인 주간 보호 센터, 화성시 수어 통역 센터, 화성시 아르딤 복지관, 화성시 장애인 생활 이동 지원 센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한국 장애인 협회 생산 시설, 화성시 아름 장애인 보호 작업장 양감점
서부	장애인 거주시설	그루터기, 남양그룹홈A~C, 둘다섯해누리, 별빛누리 그룹홈 가온~아온, 불이원, 자오섬터A~D, 화성아름 마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송산 장애 아동 재활 센터, 화성시 서부 장애인 주간 보호 센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스코 직업 적응 훈련 센터, 행복한 일터

출처 :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data/3044428/fileData.do>), ‘경기도 화성시 장애인 복지시설현황’ 기준(접속일: 2022.12.26.), 재구성

8) 종교 현황

- 201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화성시 전체인구 중 596,525명으로 40.8%가 종교가 있다고 응답함. 이 중에서 개신교가 51.1%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10> 화성시 종교인 현황

구분	%	명
전체 종교인	40.81	243,442
불교	24.62	59,935
천주교	22.47	54,701
개신교	51.1	124,399
기타종교	1.81	4,406
화성시 총 인구수	596,525명	

출처 :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기준(접속일: 2022.12.20.)

○ 종교시설은 전국은 31,495곳인데 화성시에는 325곳에 종교 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11> 화성시 종교시설 현황

(단위 : 동)

전국	화성시
31,495	325

출처 :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기준(접속일: 2022.12.20.)

2. 화성시 문화관련 현황

1) 문화재 현황

○ 2022년 9월 기준 화성시에는 85개의 문화재가 있음. 유형별로는 국가지정문화재 15개, 도지정문화재 37개, 향토문화재 33개를 보유하고 있음. 유형별 문화재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III-12> 화성시 문화재 현황

연번	구분	문화재명	지정번호
1	국가지정문화재	용주사 동종	국보제120호
2		화성 봉림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보물제980호
3		봉림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전적 일괄	보물제1095호
4		불설대보부모은중경판	보물제1754호
5		안성 청원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복장전적	보물제1795호
6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보물제1942호
7		화성 용릉과 건릉	사적제206호
8		화성 당성	사적제217호
9		화성 제암리 3.1운동순국 유적	사적제299호
10		화성 마하리 고분군	사적제451호
11		화성 고정리 공룡알화석 산지	천연기념물제414호
12		화성 전곡리 물푸레나무	천연기념물제470호
13		화성 용릉 개비자나무	천연기념물제504호
14		화성 정시영 고택	민속문화재제124호
15		화성 정수영 고택	민속문화재제125호
1	도지정문화재	금동향로	유형문화재제11호
2		청동향로	유형문화재제12호
3		용주사	유형문화재제13호
4		전적수사본	유형문화재제14호

III. 화성시 문화다양성 현황

5		용주사 병풍	유형문화재제15호
6		용주사 대웅전 후불탱화	유형문화재제16호
7		윤계선생순절비	유형문화재제85호
8		계갑일록 및 관련문서	유형문화재제187호
9		화성 용주사 오층석탑	유형문화재제212호
10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목조삼세불좌상	유형문화재제214호
11		화성 용주사 목조감실	유형문화재제222호
12		화성 용주사 지장전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일괄	유형문화재제223호
13		화성 용주사 삼장보살도	유형문화재제225호
14		화성 용주사중 종	유형문화재제226호
15		화성 용주사 남무대성인로왕보살변	유형문화재제237호
16		백자청화정부인 영광정씨 묘지 및 지식함	유형문화재 제264호
17		고령신씨 북백공파 고문서 85건	유형문화재 제265호
18		화성 용주사 전답양안 2건	유형문화재 제269호
19		화성 흥법사 묘법연화경	유형문화재 제360호
20		송곡 조복양 관련 고문서	유형문화재 제361호
21		남이장군묘	기념물제13호
22		백천장 선생묘	기념물제86호
23		수원고읍성	기념물제93호
24		화성 남양리 신빈김씨 묘역	기념물제153호
25		만년제	기념물제161호
26		화성 흥법리 남양흥씨 묘역	기념물제168호
27		화성 화량진성	기념물제224호
28		정원채 고가	민속문화재제6호
29		남양향교	문화재자료제34호
30		용주사 천보루	문화재자료제36호
31		홍승인 고가	문화재자료제74호
32		남양풍화당	문화재자료제112호
33		추연 우성전 묘역(우하영 묘역 포함)	문화재자료제121호
34		화성 용주사 목조불패	문화재자료 제151호
35		화성 용주사 목조소대	문화재자료 제152호
36		여주 신록사 청동시루	문화재자료제156호
37		화성팔탄민요	무형문화재 제65호
1	향토 문화재	안곡서원	유형문화재 제1호
2		최루백	유형문화재 제2호
3		이곤선생 효자문	유형문화재 제3호
4		홍담효자각	유형문화재 제4호
5		한명윤, 밀양박씨 충열각	유형문화재 제5호
6		박장철 효자각	유형문화재 제6호
7		금산사	유형문화재 제7호
8		최윤식 기념비문	유형문화재 제8호
9		남양흥씨 열녀정려문	유형문화재 제9호
10		차운혁 충신정려문	유형문화재 제10호
11		연안차씨 집안문서	유형문화재 제11호
12		정부인 영광정씨묘 출토유물	유형문화재 제12호
13		고령신씨 소장 고문헌	유형문화재 제13호
14		신면공 영광정씨 정부인 화관비	유형문화재 제14호
15		원평 금수사 석조아미타불 및 좌대	유형문화재 제15호

화성시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연구

16		남양도호부선정비	유형문화재 제16호
17		정숙옹주 태실비	유형문화재 제17호
18		오산리 석불입상	유형문화재 제18호
19		수성최씨 한림공파 독정종중 고문서	유형문화재 제19호
20		안녕리 표석	유형문화재 제20호
21		최일항·최우흥 부자 효자정려	유형문화재 제21호
22		신용개 신도비	유형문화재 제22호
23		수촌교회	기념물 제1호
24		홍한 묘역	기념물 제2호
25		반남박씨 묘역	기념물 제3호
26		노작 홍사용 묘역	기념물 제4호
27		수성최씨 시조묘	기념물 제5호
28		반남박씨 박원도묘	기념물 제6호
29		조기수 묘역	기념물 제7호
30		양노리 조세성묘, 조동점묘, 조완묘	기념물 제8호
31		반송 탄요유적공원 탄요지	기념물 제9호
32		청계중앙공원 매장문화재 유적	기념물 제10호
33		병점동 지석묘(고인돌)	기념물제11호
합계		85점	

출처: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 ‘경기도 화성시 지정문화재 현황’ 기준(접속일: 2022.12.20.)

2) 문화기반 시설 현황

- 2019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화성시 문화기반 시설은 총 31개로 이는 경기도 내 문화기반시설 순위 7위로 상위권에 속함
- 화성시 문화기반시설은 공공도서관과 박물관이 상대적으로 많고, 대부분이 시민 향유 중심 기반시설로 이루어져 있음
- 주로 예술 장르별로 용도가 정해진 공간이 대부분으로 특히 예술활동을 준비하거나 창작하는 곳보다는 결과 발표를 위한 공간이 많음
- 문화예술교육 관련 공간이나 생활문화센터 등 시민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넓은 지역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화성시는 급속한 인구성장과 맞물려 경제, 복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이 동부권에 있고, 문화기반시설 역시 동부권에 집중되어 있음

III. 화성시 문화다양성 현황

<표 III-13> 화성시 문화기반 시설 현황

구분	합계 (개)	공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 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 의 집	문학관	미디어 센터	생활 문화센터	평생 학습센터	복합 문화공간
화성시	31	13	4	1	3	1	2	1	1	1	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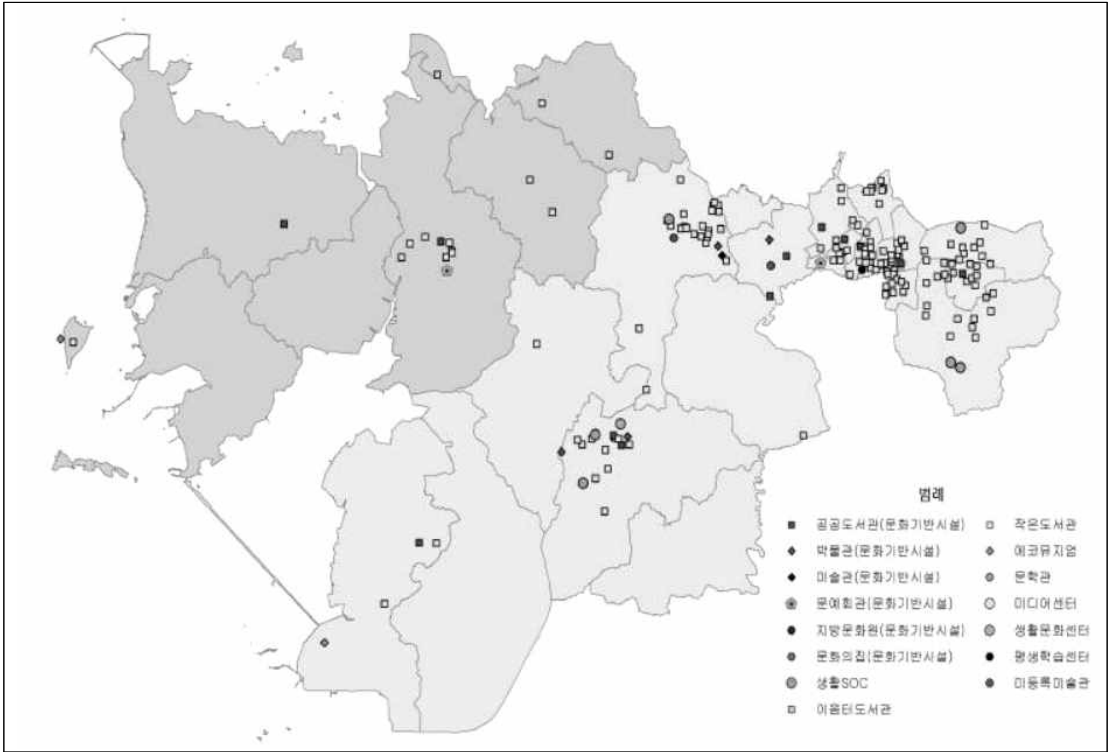
출처: 화성시문화도시추진단(2021), 「화성시 문화도시 조성계획」, p.39

- 화성시 문화기반 시설 현황을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화성시는 24개로 용인시 42개, 수원시 39개, 고양시 34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14> 화성시 문화기반 시설 현황 타 지자체 비교

구분	합계	국립 도서관	공공도서관				박물관			
			계	지자체	교육청	사립	계	국공립	사립	대학
용인시	42	0	18	17	0	1	15	3	8	4
수원시	39	0	26	23	2	1	7	4	1	2
고양시	34	1	17	17	0	-	8	2	5	1
화성시	24	0	13	12	1	0	4	2	1	1
구분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 집			
	계	국공립	사립	대학						
용인시	5	1	4	0	3	1	0			
수원시	2	1	1	0	3	1	0			
고양시	3	1	2	0	3	1	0			
화성시	1	0	1	0	3	1	2			

출처: 화성시문화도시추진단(2021), 「화성시 문화도시 조성계획」, p.39



[그림 III-8] 화성시 문화시설 현황 분포도

출처: 화성시문화도시추진단(2021), 「화성시 문화도시 조성계획」, p.44

○ 화성시 문화 및 관광, 교육, 사회복지 연도별 예산 현황

<표 III-15> 문화 및 관광, 교육, 사회복지 연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 원, %)

세출 분야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교육	59,503	4.26	87,832	4.96	62,600	3.23	56,754	3.00	45,742	2.18
문화 및 관광	97,427	6.98	157,960	8.93	144,304	7.43	156,678	8.29	122,543	5.84
사회 복지	425,321	30.47	547,521	30.95	637,974	32.87	62,097	31.86	811,44	38.64

출처: 화성시문화도시추진단(2021), 「화성시 문화도시 조성계획」, p.14

<표 III-16> 화성시 문화시설 종합현황

구분		기업명	기업수
생활문화시설	도서관	- 국립 : 경기도화성교육도서관 - 지자체 : 동탄북합문화센터도서관,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봉담도서관, 송림이음터도서관, 정남도서관, 다원이음터도서관,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진안도서관, 남양도서관, 시립동지나래어린이도서관, 시립송산도서관, 병점도서관, 삼괴도서관, 태안도서관	15
		- 작은도서관 글로벌 작은도서관, 솔향기책터 작은도서관, 공감 작은도서관, 서봉 작은도서관, 아이비 작은도서관, 나뭇잎 작은도서관, 드림 작은도서관 등	196
	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동탄북합문화센터, 유앤아이센터, 화성시미디어센터, 화성서부북합문화센터, 모두누림센터, 다원이음터	7
	문화의 집	향남문화의 집, 봉담문화의 집	2
문화공간	박물관	화성시 향토박물관,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용주사효행박물관, 수원대학교박물관, 누에박물관, 협성대학교 성서고고학 박물관	6
	미술관	소다미술관, 엄미술관	2
	공연장	반석아트홀, 화성아트홀, 라인아트홀, 누림아트홀	4
	전시관	동탄아트스페이스, 제부도아트파크, 궁평아트뮤지엄아카이브, 창문아트센터, 노작홍사용문학관, 3.1운동만세길방문자센터, 로얄엑스(Royal X), 화성시공계문화관, 마법의정원	9
	기타문화공간	한미요 배씨토가, 창문아트센터, 쟁이골, 옥란문화재단, 비봉담자연미술학교	5
문화산업시설		화성문화원, 화성시문화재단	2
체육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하내테마파크, 새싹동산청려수련원, 화성드림파크	3
	체육시설	화성종합경기타운, 경기도사격테마파크, 발리오스CC	3
	복지시설	나래울	1
근린시설	공원	동탄호수공원, 공룡알화석지, 화산생태공원, 매향이편화생태공원, 동화마을생태공원, 동탄목동공원, 삼봉근린공원, 제부놀이공원, 기배동역사공원, 독재울공원, 신남근린공원, 봉선체육공원, 노작근린공원, 영천공원, 석우리천공원, 능리저류지공원, 송리공원, 하늘빛공원 등	262
총 합 계			517

출처: 화성시문화도시추진단(2021), 「화성시 문화도시 조성계획」, p.40

○ 문화도시 비전 체계도



[그림 III-9] 문화도시 비전 체계도

출처: 화성시문화도시추진단(2021), 「화성시 문화도시 조성계획」, p.75

3) 예술단 및 공연단 현황

<표 III-17> 2019 화성시 예술인 현황(출처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실태조사)

구분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다원 (복수)	계 (명)
고양시	170	404	42	0	472	53	83	366	301	160	56	118	2,252
수원시	121	188	18	0	344	120	99	203	99	63	42	79	1,376
성남시	90	317	32	0	222	56	53	235	138	53	33	62	1,291
화성시	35	70	7	0	79	17	17	56	28	14	10	14	347

출처: 화성시문화도시추진단(2021), 「화성시 문화도시 조성계획」, p.32

<표 III-18> 화성시 예술단 및 공연단 현황

협회	내용
문인	시, 수필, 공연분과
무용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분과
국악	농악, 민요, 무용, 기악분과
미술	동양화, 서양화, 공예, 조각, 서예, 수채화분과
음악	동탄 여성 합창단 동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라인 예술단 사) 한국 하모니카 협회 사) 화성 심포니 오케스트라 화성시 소년소녀 합창단 화성 펠리체 여성 합창단 화성 피아노 소사이어티 홍난파 합창단
연예예술인	가수, 연주, 연기, 가요창작, 무용, 가요강사, 매니저먼트분과
연극	극단 열정 극단 민성 청소년 예술단 뮤지컬 타악 마당극
사진작가	풍경사진분과 다큐사진분과 보도사진분과 스포츠사진분과 환경생태사진분과 창작사진분과 인물사진분과

출처: 한국예총 화성지회(http://www.hsyechong.or.kr/bbs/board.php?bo_table=intro03) '조직도' 재구성, 기준(접속일 22.12.20.)

4) 체육시설 문화시설

- 화성시 체육시설은 8개로 동부 6개, 남부에 2개 운영 중임

<표 III-19> 화성시 체육시설 목록

순번	권역	시설명
1	동부	화성국민체육센터
2	동부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3	동부	동탄어울림체육센터
4	남부	화성남부국민체육센터
5	동부	화성반월체육센터
6	남부	화성드림파크
7	동부	소규모 체육시설
8	동부	인조잔디구장

출처: 화성도시공사(<https://www.hsuco.or.kr>) ‘화성시 체육시설’ 기준(접속일 2022.12.17.)

3. 화성시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 현황

- 화성시는 기존에 제정되어 있던 세 가지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관한 조례를 모두 폐지하고 2020년 7월 「화성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지원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함
- 2020년 이후 문화다양성이라는 개념 아래에 문화에 관련한 조례도 상당수 제정하였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각 지자체 별로 자체적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화성시도 2011년부터 문화예술 분야에서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표 III -20> 화성시 다문화 및 문화예술 관련 조례 현황

구분	법령명	제정·개정 구분	법령 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다문화	화성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	조례	제1661호	2020. 7. 15.
	화성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	제1907호	2022. 3. 14.
문화 예술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902호	2022. 3. 14.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902호	2022. 3. 14.
	화성시 시민중심 문화자치 지원 조례	제정	조례	제1873호	2022. 1. 6.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810호	2021. 7. 30.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791호	2021. 7. 19.
	화성시 생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791호	2021. 7. 19.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791호	2021. 7. 19.
	화성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	제1799호	2021. 7. 19.
	화성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조례	제1778호	2021. 5. 18.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모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767호	2021. 4. 13.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861호	2021. 12. 31.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조례	제1701호	2020. 9. 28.
	화성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676호	2020. 8. 5.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676호	2020. 8. 5.
	화성시 해양 문화·관광 축제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676호	2020. 8. 5.
	화성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제630호	2020. 11. 17.
	화성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708호	2020. 11. 17.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489호	2019. 6. 14.
	화성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	제1442호	2019. 4. 15.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모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규칙	제538호	2018. 7. 13.
	화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282호	2017. 11. 21.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제479호	2016. 7. 1.
	화성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	제893호	2013. 11. 26.
	화성시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816호	2012. 11. 15.
	화성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정	조례	제755호	2011. 11. 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기준(접속일 2022.12.20.)

IV. 화성시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설계

1. 문화다양성 인식지표 선행연구 검토
2. 인식조사 지표 구성 인식조사

1. 문화다양성 인식지표 선행연구 검토

1)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1) 연구목적

-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는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현황 인식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과제 발굴 및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기존에 개발된 문화다양성 지표에서 일원화되어있던 소수자집단별 지표 항목을 ‘소수자집단별’과 ‘사회적 소수문화 현상’으로 구분해 한국 정책의 효과와 수준을 국제사회와 비교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분류체계를 기본범주와 환경범주의 국제적 기준으로 개선함(최지연, 2020)

(2) 문화다양성 대상

- 문화다양성을 소수자 집단과 사회문화 현상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 소수자 집단은 결혼이주민,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타종교인 여섯 가지로 구분하였음
- 사회문화 현상은 성별 불평등, 독신 가구의 증가, 세대 간 갈등, 주류 문화의 예술 독점, 전통문화의 위기, 지방문화에 대한 차별,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 일곱 가지 항목을 구분하였음

(3) 조사 내용 및 방법

- 대국민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소수자 인식조사, 정책 및 여건조사의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음

-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인지도, 관심도, 수용도, 포용도 등 5개의 지표로 구성함

<표 IV-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지표

구분	대분류	중분류	세부 지표 항목	비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인식 지표	인지도	문화다양성 개념에 대한 이해도 및 가치평가	설문조사 온라인조사 (일반국민)
		관심도	구성원으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 사회현상에 대한 문제 인식 정도	
		수용도	구성원에 대한 개인적 수용 정도 사회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 정도	
		포용도	구성원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 정도 사회차별에 대한 개선 필요도	
		필요도	구성원에 대한 정부 지원 충분한 정도 사회현상에 대한 정부 대책 충분한 정도	
소수자 집단 인식조사	활동 지표	인지도	문화다양성 의미에 대한 이해도	설문조사 1:1 대면조사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친밀도	우리 사회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	
		수용도	구성원에 대한 국민 수용 정도	
		포용도	구성원에 대한 사회 포용 정도	
		만족도	구성원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 정도	
시·도 지방자치 단체 실태조사	정책 지표	정책수립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규칙 수	지자체 행정자료
		정책실행	문화다양성 관련 지원사업 수	
		정책예산	문화다양성 예산	
	여건 지표	기반시설여건	소수자 문화다양성 활동 지원기관 및 시설 수	
		자원여건	소수자 문화다양성 활동 관련 단체 수	
		지원인력여건	소수자 문화다양성 활동 지원 인력 수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p.80

2) 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1) 연구목적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후 광주광역시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실태와 인식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맞춤형 정책수립에 목적이 있음(권선영, 2019)

(2) 문화다양성 대상

- 문화다양성 대상을 사회적 소수자와 비주류 문화예술로 구분함
- 사회적 소수자는 다문화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노인 등 다섯 개 집단으로 구분함
- 비주류 문화예술은 전통문화, 지역문화, 독립문화예술, 대안문화예술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함
- 조사대상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함. 심층면접은 정책일반, 다문화이주민, 여성, 독립문화예술, 전통지역문화 등 16명임

(3) 조사 내용 및 방법

- 시민 인식조사와 전문가조사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음
- 문화다양성 시민인식 조사 항목은 문화다양성의 인식과 태도, 사회적 소수자와의 거리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 비주류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 문화다양성 정책, 개인의 성향을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함

<표 IV-2> 광주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지표

조사 항목	세부 문항
문화다양성의 인식과 태도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의미 인지도
	문화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라는 인식 정도
	문화다양성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 정도
	문화다양성 관련 교육 정도
	정부 및 공공부문 지원의 필요성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의 공존 정도
	문화예술 행사나 프로그램 참여 의향
	문화다양성 관련 교육 참여 경험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사회적 소수자와의 거리감	사회적 소수자와의 지인관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거리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수용도(알고지내는 사이, 이웃, 직장동료, 가족) 사회적 소수자 문화예술활동에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에 대한 견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노인)	노인들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관심 노인들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참여 의향 노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의 예산 증액에 대한 견해
비주류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 (전통문화, 지역문화, 독립문화예술, 대안문화예술)	비주류문화에 대한 관심 정도 비주류문화 관련 문화예술행사 참여 의향 비주류에 대한 인식 비주류문화 활동가들에 대한 인식 비주류문화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에 대한 견해
문화다양성 정책	문화다양성의 날에 대한 인지 정도 무지개다리사업에 대한 인지 정도 2016년 무지개다리사업 세부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례제정 찬반 여부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기타 의견
개인의 성향	개인의 정치적 성향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 문화예술활동 지출 비용
인구통계적 특성	성별, 연령대, 최종학력, 거주지역, 종교

출처: 광주문화재단(2016), 「2016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pp.6~8

3)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연구

(1) 연구의 목적

- 인천시의 문화다양성 실태 파악을 통해 인천시 여건에 맞는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을 위한 지표 개발에 목적이 있음

(2) 문화다양성 대상

- 문화다양성 대상을 소수자와 소수문화로 구분함
- 소수자 집단은 지역(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젠더(여성, 성소수자), 장애, 세대(청소년, 노인)등 8개의 집단으로 구분
- 소수문화는 독립문화, 전통문화, 생활문화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함

(3) 조사 내용 및 방법

- 문화다양성 지표를 정책, 여건, 활동, 인식 네 가지로 설정하였음
- 정책지표는 정책수립, 정책실행, 정책예산, 여건지표는 시설여건, 지원여건, 인력 여건, 활동지표는 인지도, 수용도, 참여도, 평등도, 인식지표는 인지도, 수용도, 참여도, 평등도, 찬반여부로 구성

<표 IV-3> 인천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지표

지표	세부지표	세부분류	조사방법
정책	정책수립	문화다양성 조례·규칙·정책 수립 유무 건수	행정자료
	정책실행	문화다양성 지원사업 건수	
	정책예산	문화다양성 지원사업 예산	
여건	시설여건	문화다양성 지원기관·시설 수	행정자료 통계자료
	자원여건	문화다양성 단체 수	
	인력여건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수(여성 비율)	
활동 (소수자)	인지도	소수자/문화예술가 문화예술활동 지원정책(사업) 인지도	소수자 대상 설문조사
	수용도	소수자/문화예술가가 체감하는 사회적 수용	
	참여도	소수자/문화예술가 문화예술활동 참여도 소수자/문화예술가 문화예술·시설·자원·인력 활용도	
	평등도	소수자/문화예술가 문화예술활동 참여기회 평등도/차별	
인식 (일반)	인지도	각 소수자 집단/소수문화 인지도	일반시민 설문조사
	수용도	각 소수자 집단/소수문화 수용도	
	참여도	각 소수자 집단/소수문화 참여도	
	평등도	각 소수자 집단/소수문화 우선지원 필요도	
	찬반여부	인천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출처: 인천발전연구원(2017),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연구」, p.104

4)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1) 연구목적

- 부산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 수립 및 부산시 여건 현황 파악
- 부산시민의 문화다양성 인식수준 파악 후 향후 부산시 문화다양성 정책 수립 방향 제시

(2) 문화다양성 대상

- 문화다양성을 소수자 집단과 사회갈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 소수자 집단은 장애인, 인종(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 이주민의 자녀, 난민

유학생),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등 일곱 가지로 구분하였음

- 사회갈등은 성별불평등, 세대 간 갈등, 소득 차이로 인한 갈등, 다른 지역 출신과의 갈등,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이주민에 의한 갈등 여섯 가지로 구분하였음

(3) 조사 내용 및 방법

- 인구 구조 특성조사, 인식조사, 문화다양성 관련 여건 현황 파악 등 세 가지로 구분함
- 조사대상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한 지 1년 이상 된 만 15~79세 시민 1,200명을 대상으로 하였음

<표 IV-4> 부산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지표

구분	분류		세부내용	비고
인구구조 특성조사	인구구조		연령별 성비, 가구구성, 행정구역별 인구수	통계자료/ 행정자료
	경제수준		1인당 지역총소득,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수	
	소수집단 현황		장애인 인구수, 배리어프리인증 시설 현황, 외국인현황, 다문화지원센터 현황, 북한이탈주민 거주 현황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소수 집단	소수집단 접촉 경험	소수집단별 접촉경험 정도	설문조사 온라인조사
		소수집단 인식지표(수용도)	소수집단별 동네이웃 및 가족으로서의 수용도	
		소수집단 인식지표(수용도)	소수집단의 사회적 차별정도 인식	
		소수집단관련 활동경험	다문화, 장애인, 성소수자, 성별불평등 관련 경험	
	사회 갈등 요소	사회갈등현상 인식지표	각 사회갈등 현상 문항에 대한 인식 정도	
		사회갈등현상 인식지표(수용도)	성별불평등, 세대 간 갈등 수용도	
		활동수준에 따른 연령대 수용도	동호회, 문화센터 프로그램, 공간 및 안부인사 가능한 연령대	

		사회갈등현상 개선 필요도	6개 사회갈등현상 개선 필요도	
		전반적 문화다양성 인식수준	문화다양성 관련 5개 문항 인식 정도	
문화다양성 관련 여건 조사		갈등현황	해당 소수자 집단 현황 및 사회갈등 현황	심층인터뷰 6명(장애인, 인종, 성소수자, 청년)
		인식도	해당 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산시민의 인식도	
		정책현황	해당 소수집단 관련 부산시 정책 현황	
		정책 개선방향	지원정책 개선방향	

출처: 부산광역시·부산문화재단(2018), 「부산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을 통한 실태조사」, p.5

5) 고양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1) 연구목적

- 고양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실태를 파악해 기초연구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고양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의 기본 방향 제안 및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2) 문화다양성 대상

- 문화다양성 대상을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시민과, 고양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설정

(3) 조사내용 및 방법

- 문화다양성 인식조사는 문화 다양성 인식 수준, 고양시 내의 차별과 소수자, 문화 예술적 참여와 표현, 사회 문화적 현상에 대한 수용도 등 4개의 항목으로 구성함
- 문화다양성 인식조사는 계층영역, 사회적 현상, 문화적 현상 3개의 항목 선정

<표 IV-5> 고양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연구

중분류	소분류
계층 영역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사회적 현상	국적/민족/인종에 대한 차별
	종교 간의 갈등
	성별 불평등
	장애인 차별
	고양시 내 지역갈등
	-
	세대 간 갈등
문화적 현상	주류 문화예술 독점
	전통문화 위기
	-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
	고양시 지역 간 문화차이
	고양시 문화적 정체성 부재
	고양시 새로운 문화 유입 현상
3대 지표(정책, 여건, 인식)	

출처: 고양시정연구원(2019), 「고양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연구」, p.78

6) 수원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연구

(1) 연구목적

- 수원시 문화다양성 실태를 파악해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제안을 위한 문화다양성 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음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토대로 수원시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 설정과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2) 문화다양성 대상

- 문화다양성 대상을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민과 외국인 주민

(3) 조사내용 및 방법

- 문화다양성 인식조사는 정책지표, 여건지표, 활동지표, 인식지표로 구분함
- 정책지표는 정책수립, 정책실행, 정책예산, 여건지표는 시설여건, 지원여건, 인력여건, 활동지표는 인지도, 친밀도, 포용도, 수용도, 평등도, 만족도, 인식지표는 인지도, 관심도, 포용도, 포용도, 수용도, 필요도 등 총 6개 영역 17개 설문 문항으로 구분함

<표 IV-6> 수원시 문화다양성 지표 체계

대분류	중분류	지표명	조사방법
정책지표	정책수립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 수립 건수	행정자료
	정책실행	문화다양성 관련 지원 사업 건수	
	정책예산	문화다양성 지원 사업 예산	
여건지표	시설여건	소수자 문화다양성 활동 지원 기관/시설 수	행정자료 통계자료
	자원여건	소수자 문화다양성 활동 관련 단체 수	
	인력여건	소수자 문화다양성 활동 지원 인력 수	
활동지표	인지도	문화다양성 개념 이해 및 가치 평가	소수자 대상 설문조사
	친밀도	일상생활에서 소수자의 사회적 거리감	
	포용도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도(차별 인지)	
	수용도	시민들의 소수문화 수용도	
	평등도	소수자들의 사회/정책 참여도	
	만족도	문화다양성 정책 만족도	

인식지표	인지도	문화다양성 개념 이해 및 가치 평가	일반시민 대상 설문조사
	관심도	소수자/소수문화에 대한 관심과 경험	
	포용도	소수자/소수문화에 대한 차별 인지도	
	수용도	소수자/소수문화에 대한 수용 가능성	
	필요도	문화다양성 정책의 필요성	

출처: 수원시정연구원(2020), 「수원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연구」, p.62

7)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 개발과 시범조사

(1) 연구목적

- 서울시민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정책수요 파악
- 향후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문화다양성 대상

- 문화다양성 대상은 서울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70세 이하 성인남녀

(3) 조사 내용 및 방법

- 개인 차원의 문화다양성 인식과 서울시 차원의 문화다양성 인식으로 구분하여 조사
- 서울시 차원의 문화다양성 인식은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수용도,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요도와 필요도로 구성함

<표 IV-7>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지표

구분		세부내용
개인적 차원	인지도	문화다양성 인지도
		문화다양성 연관대상
	수용도	문화다양성 수용도
		다른 집단의 문화표현에 대한 나의 존중도
	차별 경험도	문화표현을 이유로 차별 받은 경험도(온라인, 오프라인)
		문화표현을 이유로 차별받았을 때 대응도
		문화표현을 이유로 다른 사람이 차별받았을 때 대응도
		다른 문화표현에 대한 거부도
	비주류 문화표현 보유도	비주류 문화표현 보유도
		비주류 문화표현 표현도
		나의 비주류 문화표현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존중도
		나의 비주류 문화표현에 대한 요인별 저해도
사회적 차원	서울시 문화다양성 수용도	다른 집단의 문화표현에 대한 서울시민의 존중도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구현도
	문화다양성 정책 중요도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이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도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중요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사업별 필요도

출처: 서울연구원(2021),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 개발과 시범조사」, p.55

2. 인식조사 지표 구성

1) 지표 구성

- 지표 구성은 2017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와, 2020년 「수원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연구」, 2021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 개발과 시범조사」를 토대로 화성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적용 가능한 문항을 도출함
- 자문회의를 통해 화성시 문화다양성 인식조사를 위한 방향 설정 및 문항 검토 후 확정
- 화성시 문화다양성 결과를 타 시도와 비교하기 위해 2017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와 2021년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 개발과 시범조사」를 기준으로 함

- 문화다양성 인식조사를 통해 화성시민들의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과 사회 현상에 대한 인식에 주목하고자 함
-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한 지표를 그대로 적용 시 화성시에 필요한 정책과 방향성을 설정하거나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화성시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문항을 추가함
- 추가한 문항은 외국인주민에 관련 문항으로 화성시에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 중 이들에 대한 화성시민의 인식과 상호작용을 파악하고자 함

2) 지표 확정

- 최종적으로 도출된 지표는 다음과 같음

<표 IV-8> 타기관 문화다양성 인식지표

문화체육관광부(2017)		수원시 지표항목(2020)		서울시 지표 항목(2021)						
소수자 집단	외국인근로자	대분류	중분류	서울시 문화 다양성 인식	구분	지표항목				
	북한이탈주민	정책지표	정책수립				개인적 차원	인지도		
	결혼이주민		정책실행		수용도					
	성소수자		정책예산		차별 경험도					
	장애인	여건지표	시설여건		서울시 문화 다양성 인식	개인적 차원		비주류 문화표현 보유도		
	타 종교인		자원여건							
	인력여건									
사회 문화 현상	성별 불평등	활동지표	인지도				서울시 문화 다양성 인식		개인적 차원	서울시 문화 다양성 수용도
	독신가구의 증가		친밀도							
	세대 간 갈등		포용도							
	주류 문화예술 독점		수용도							
	전통문화 위기		평등도							
	지방문화에 대한 차별	인식지표	만족도		서울시 문화 다양성 인식	개인적 차원	서울시 문화 다양성 수용도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		인지도	서울시 문화 다양성 인식				개인적 차원	서울시 문화 다양성 수용도	
			관심도							
	포용도	서울시 문화 다양성 인식	개인적 차원							서울시 문화 다양성 수용도
	수용도									
	필요도									

<표 IV-9> 화성시 문화다양성 인식 지표 구성

구분	지표 항목		세부 내용
개인적 차원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가치		- 문화다양성 인지도 - 문화다양성 연관대상 -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		-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 사회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 정도
	사회현상에 대한 수용정도		- 구성원에 대한 개인적 수용정도 - 사회현상에 대한 개인적 인식 정도
	문화다양성의 차별경험		-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 인식 정도 - 구성원들에 대한 혐오표현 경험 정도
	참여경험		- 외국인주민 관련 문화다양성 관련 프로그램 참여 경험 정도 - 외국인주민 관련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정도
사회적 차원	문화다양성 정책지원 필요도	문화다양성 정책 필요도	- 사회현상에 대한 개선 정도 - 구성원에 대한 화성시의 지원 정도 - 화성시 차원의 문화다양성 정책 필요도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사업별 필요도
		문화다양성 정책 중요도	- 사회현상에 대한 화성시 정책 대응 충분 정도 -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이 화성시에 미치는 영향도 - 화성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요도

V. 화성시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결과
2. 심층면접 결과
3. 화성시 문화다양성 정책 발전 방안

1.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화성시민의 문화다양성 인식 및 정책 수요 파악
- 이를 토대로 화성시의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조사 설계

- 조사 대상 : 화성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 표본 규모 : 488부 (지역에 따른 인구비례 할당)
- 조사 방법 : 온라인
- 조사 기간 : 2022. 11. 16. ~ 11. 25.

(3) 조사 내용

- 화성시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설문 문항은 문화체육관광부 (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의 조사 틀을 토대로 각 지자체에서 연구된 자료의 설문 문항 분석 후 자문회의를 통해 최종적인 설문 문항 도출함

<표 V-1> 화성시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연구 내용

구분	지표 항목	세부 내용
개인적 차원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가치	- 문화다양성 인지도 - 문화다양성 연관대상 -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	-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 사회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 정도
	사회현상에 대한 수용정도	- 구성원에 대한 개인적 수용정도 - 사회현상에 대한 개인적 인식 정도
	문화다양성의 차별경험	-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 인식 정도 - 구성원들에 대한 혐오표현 경험 정도
	참여경험	- 외국인 주민 관련 문화다양성 관련 프로그램 참여 경험 정도 - 외국인 주민 관련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정도
사회적 차원	문화다양성 정책지원 필요도	- 문화다양성 정책 필요도
		- 문화다양성 정책 중요도

2) 응답자 특성

- 응답자 488명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성별로는 남성이 189명(38.7%), 여성이 299명(61.3%)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다소 많음
- 연령별로는 30대 233명(47.7%), 40대 110명(22.5%), 20대 102명(20.9%), 50대 35명(7.2%), 60대 이상 8명(1.6%)이 분포함
- 거주기간은 10년 이상 168명(34.4%), 3~5년 미만 128명(26.2%), 5년~10년 미만 107명(21.9%), 1년~3년 미만 66명(13.5%), 1년 미만 19명(3.9%) 순으로 10년 이상 거주자가 가장 많음
- 학력은 대학교 재학~졸업이 353명(72.3%), 고등학교 재학~졸업 84명(17.2%), 대학원 재학이상 50명(10.2%), 중학교 졸업이하 1명(0.2%)으로 대학교 재학~졸업이 다수를 차지함
- 거주지역에 따른 분포는 화성시를 동, 서, 남의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화성시 전체 인구수 대비 지역별 거주 인구수 비율에 맞추어 응답자 수를 할당 조

사함. 동부 366명(75.0%), 서부 52명(10.7%), 남부 70명(14.3%)임

- 지위는 사무직 187명(38.3%), 전업주부 74명(15.2%), 서비스직 52명(10.7%), 전문직 45명(9.2%), 판매직 38명(7.8%), 생산·기능직 31명(6.4%), 학생 26명(5.3%), 관리직 12명(2.5%), 단순노무직 11명(2.3%), 실업상태 7명(1.4%), 농림·어업직 4명(0.8%) 순으로 나타남

V. 화성시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결과

<표 V-2>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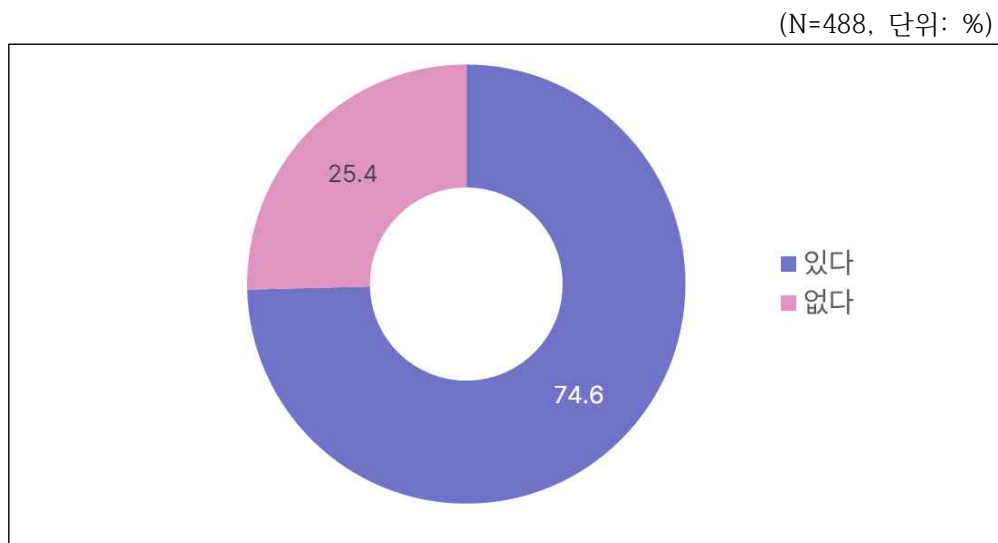
전체		빈도	%
		488	100
성별	남성	189	38.7
	여성	299	61.3
연령	20대	102	20.9
	30대	233	47.7
	40대	110	22.5
	50대	35	7.2
	60대 이상	8	1.6
거주기간	1년 미만	19	3.9
	1년 ~ 3년 미만	66	13.5
	3년 ~ 5년 미만	128	26.2
	5년 ~ 10년 미만	107	21.9
	10년 이상	168	34.4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	0.2
	고등학교 재학 ~ 졸업	84	17.2
	대학교 재학 ~ 졸업	353	72.3
	대학원 재학 이상	50	10.2
지역	동부	366	75.0
	서부	52	10.7
	남부	70	14.3
지위	관리직	12	2.5
	전문직	45	9.2
	사무직	187	38.3
	서비스직	52	10.7
	판매직	38	7.8
	농림·어업직	4	0.8
	생산·기능직	31	6.4
	단순노무직	11	2.3
	직업군인	1	0.2
	전업주부	74	15.2
	학생	26	5.3
	실업 상태	7	1.4

3) 주요 결과 분석

(1)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가치

① 문화다양성이란 말을 들어본 경험

- ‘문화다양성이란 말을 들어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 74.6%, 없다 25.4%로 들어본 적이 있는 비율이 ‘없다’ 보다 3배 정도 높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서 ‘문화다양성 개념과 의미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48.6%만이 그렇다고 응답했고 경기도는 51.4%가 문화다양성 개념과 의미를 인지하고 응답함. 화성시는 74.6%로 전국과 경기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V-1] 문화다양성이란 말을 들어본 경험

② 문화다양성과 관련 있는 대상

- ‘문화다양성과 연관성이 있는 대상’으로 민족·인종·국적, 종교·정치적 견해, 장애, 성별, 성적 지향·성정체성, 세대(연령), 출신지역, 기호·취향, 비주류예술(독립예술, 실험예술 등), 소득의 10개의 대상을 제시하고 복수 선택하도록 함
- 그 결과 민족·인종·국적이 6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종교·정치적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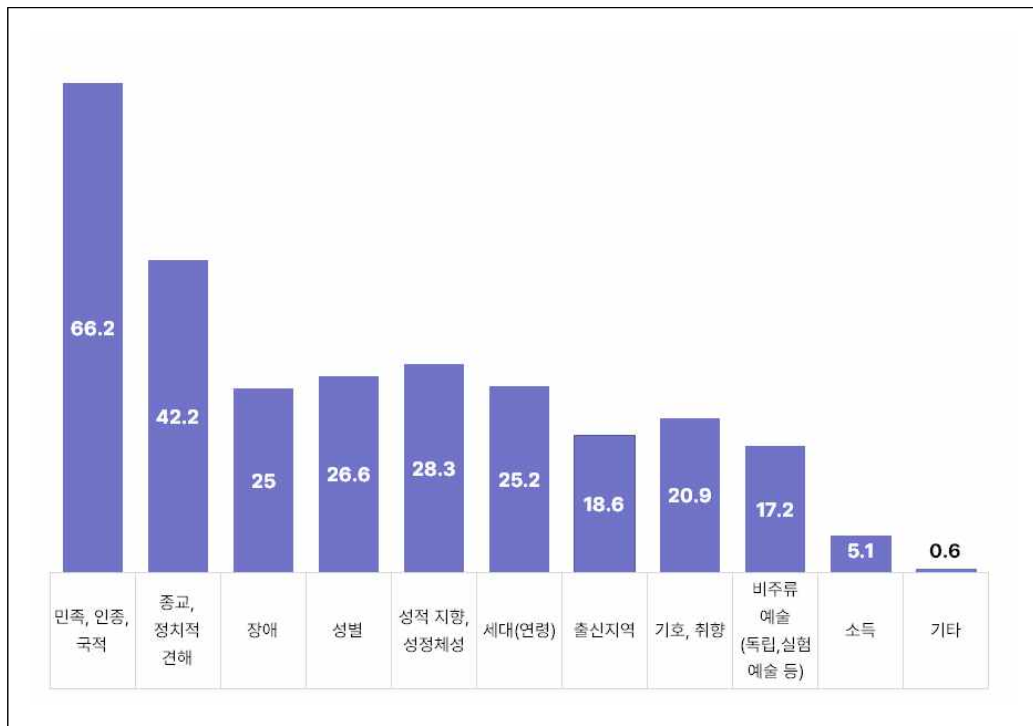
V. 화성시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결과

42.2%, 성적지향·성정체성 28.3%, 성별 26.6%, 세대·연령 25.2%, 장애 25.0% 순으로 나타남

- 서울시에서 2021년 조사한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 개발과 시범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서울시는 민족·인종·국적이 89.8%로 화성시 결과보다 높게 나타나 이 결과에서도 문화다양성과 연관된 대상을 민족·인종·국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문화다양성 관련 대상으로 민족·인종·국적을 가장 높게 인지하는 것에 비해, 장애, 성별, 성적지향·성정체성, 세대·연령, 출신지역, 기호, 취향, 비주류예술(독립예술, 실험예술), 소득 등을 문화다양성으로 인지하는 정도는 낮다고 볼 수 있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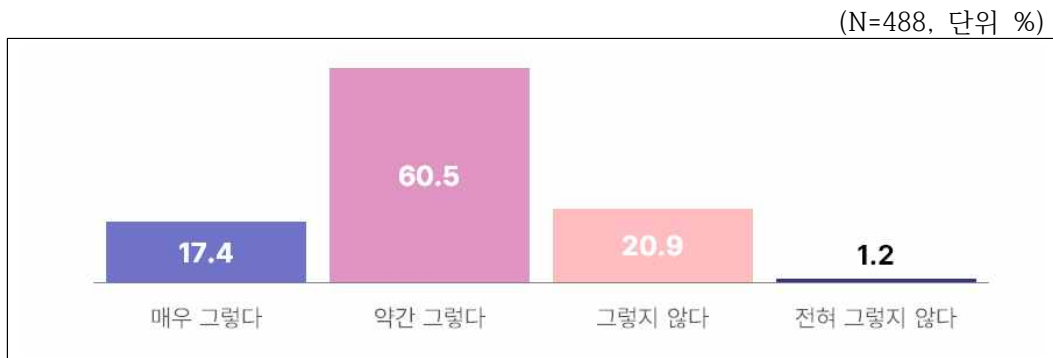


[그림 V-2] 문화다양성과 연관성 있는 대상

③ 화성시가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

- ‘화성시가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인가’라는 질문에는 약간 그렇다(60.5%), 그렇지 않다(20.9%), 매우 그렇다(17.4%), 전혀 그렇지 않다(1.2%) 순으로 나타남

- ‘화성시가 문화적으로 다양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다양한 외국인들이 있다’, ‘다문화가정이 많다’, ‘다양한 나라의 문화체험이 자주 있다’, ‘간판이나 상점을 볼 때’ 등으로 응답함



[그림 V-3] 화성시가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

④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필요성

- ‘화성시에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필요하다 38.7%, 약간 필요하다 51.0%, 필요 없다 9.6%, 전혀 필요 없다 0.6%로 응답자의 89.7%가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이 필요하다고 함
-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서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 국민 73.8%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화성시는 89.7%가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2017년 전국 평균보다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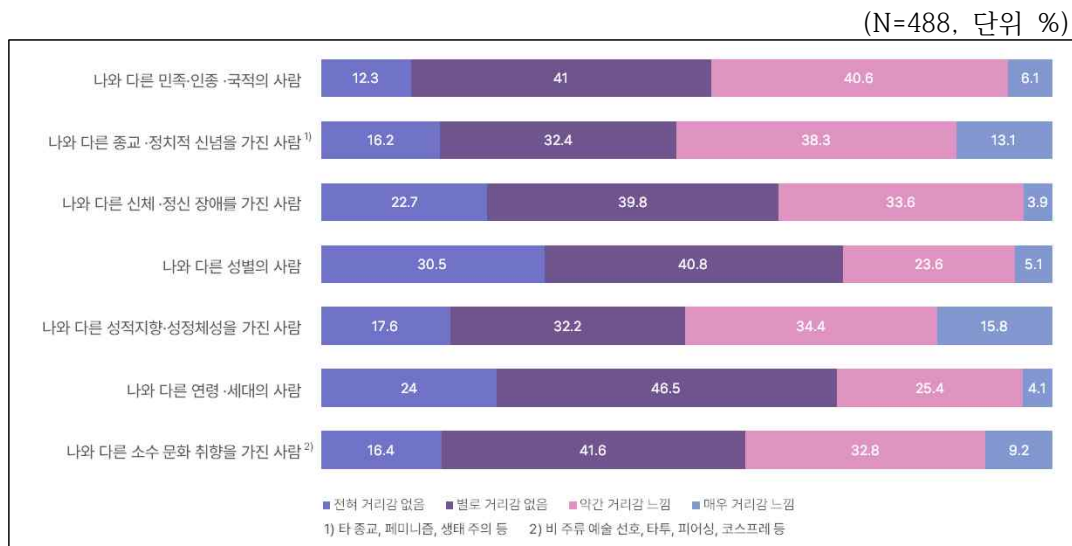


[그림 V-4]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필요성

(2)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도

① 구성원으로부터 느끼는 거리감

-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을 측정하기 위해 나와 다른 민족·인종·국적의 사람, 나와 다른 종교·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 나와 다른 신체·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 나와 다른 성별의 사람, 나와 다른 성적 지향·성정체성을 가진 사람, 나와 다른 연령·세대의 사람, 나와 다른 소수문화 취향을 가진 사람의 7가지 항목에 대해 측정함
- 각 구성원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을 조사한 결과 가장 거리감을 느끼지 않는 집단은 ‘나와 다른 성별의 사람’으로 71.3%가 거리감을 느끼지 않(전혀 거리감 없음 + 별로 거리감 없음)이라고 응답함. 그 다음으로 연령·세대의 사람 70.5%, 나와 다른 민족·인종·국적의 사람 53.3%의 순으로 나타남
- 거리감(약간 거리감 느낌 + 매우 거리감 느낌)을 느끼는 집단으로는 종교·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 5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와 다른 성적 지향·성정체성을 가진 사람 50.2%, 나와 다른 민족·인종·국적의 사람 46.7%, 순으로 나타남
 -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서는 성소수자 62.8%, 북한이탈주민 41.9%, 외국인근로자 42.9%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약간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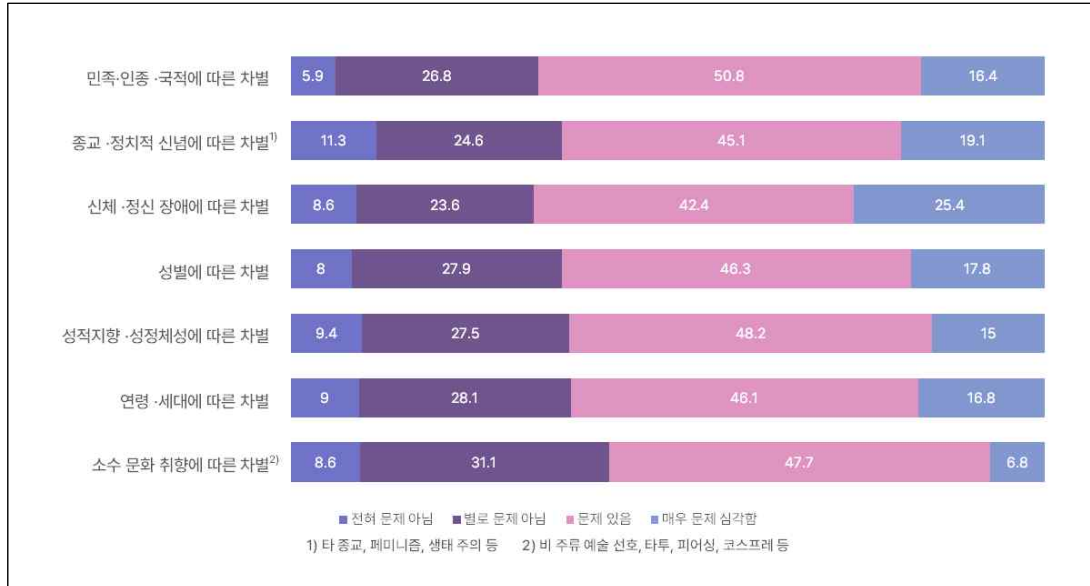


[그림 V-5] 구성원으로부터 느끼는 거리감

② 사회적 현상에 대한 문제인식 정도

-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측정하기 위해 민족·인종·국적에 따른 차별, 종교·정치적 신념에 따른 차별, 신체·정신 장애에 따른 차별, 성별에 따른 차별, 성적지향·성정체성에 따른 차별, 연령·세대에 따른 차별, 소수 문화 취향에 따른 차별의 7가지 항목에 대해 측정함
- 민족·인종·국적에 따른 차별(50.8%)이 가장 높게 나왔고, 성적지향·성정체성에 따른 차별(48.2%), 소수 문화 취향에 따른 차별(47.7%)의 순으로 나타남
- 이 중 ‘문제 있음과 매우 문제 심각함’을 합하면 신체·정신 장애에 따른 차별(67.8%), 민족·인종·국적에 따른 차별(67.2%), 종교·정치적 신념에 따른 차별(64.2%) 순으로 나타남
-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들이 받고 있는 차별’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이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이 중 신체·정신 장애에 따른 차별과 민족·인종·국적에 따른 차별을 좀 더 문제가 있다고 응답함

(N=48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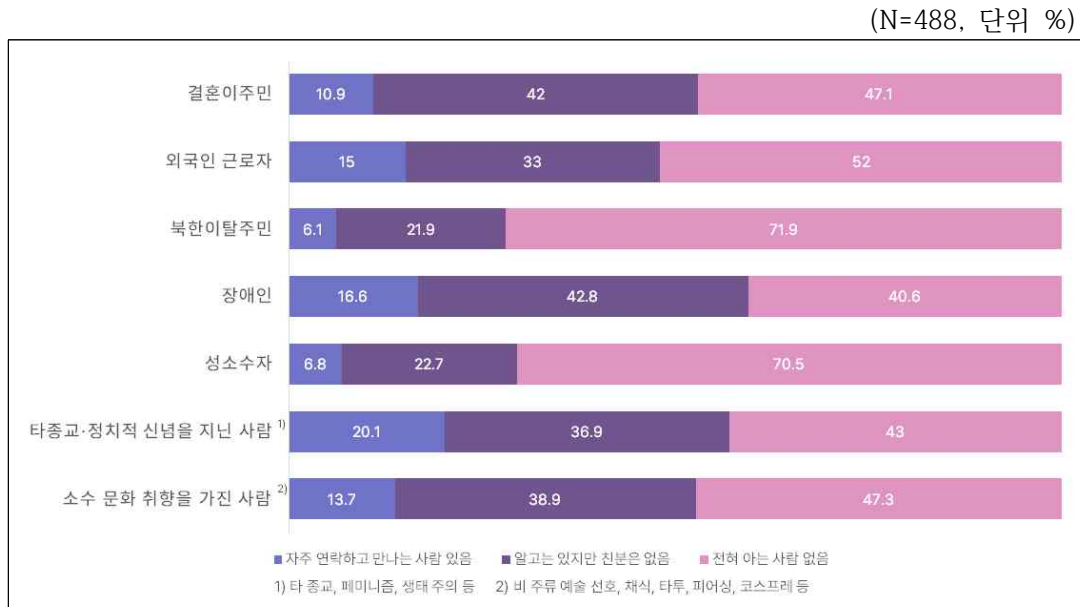
[그림 V-6] 사회적 차별에 대한 문제 인식정도

(3) 사회현상에 대한 수용도

① 구성원에 대한 아는 정도

-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아는 사람 없음’은 북한이탈주민 71.9%, 성소수자 70.5%, 외국인근로자 52.0%, 소수문화 취향을 가진 사람 47.3%, 결혼이주민 47.1% 순으로 나타남
- 북한이탈주민이나 성소수자의 경우, 본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알 수 없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보임
- ‘알고는 있지만 친분 없음’은 장애인 42.8%, 결혼이민자 42.0%, 소수문화 취향을 가진 사람 38.9% 순으로 나타남
-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사람 있음’은 타 종교·정치적 신념을 지닌 사람 20.1%, 장애인 16.6%, 외국인근로자 15.0%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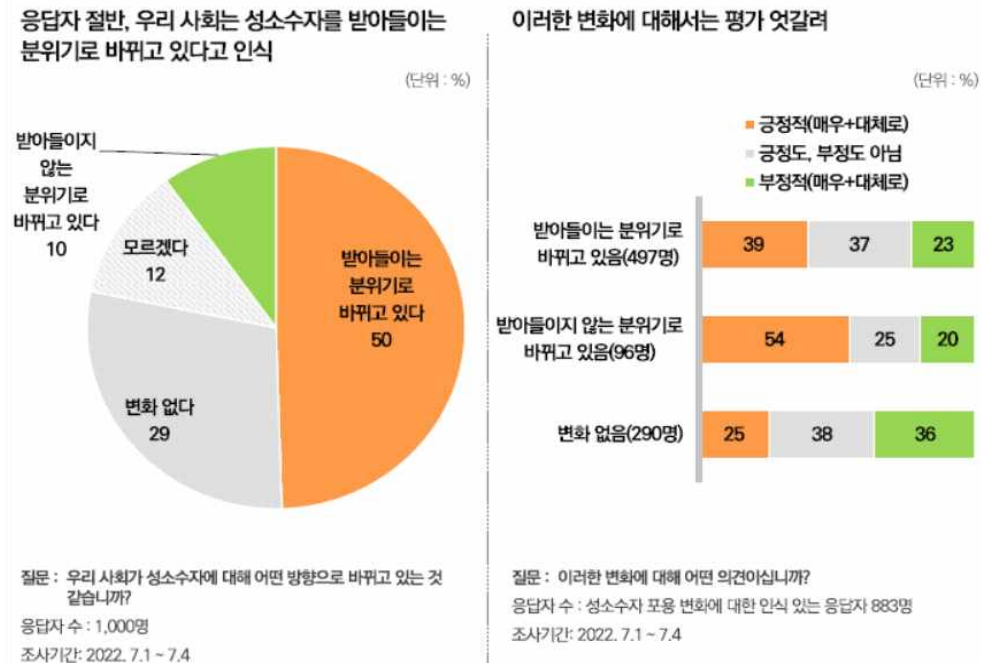
- 응답자의 대부분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과의 접촉 경험이 거의 없거나 자주 만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V-7] 구성원에 대한 아는 정도

② 구성원에 대한 개인적인 수용도

-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들을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단순히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될 수 있다’는 성소수자가 3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외국인 근로자가 9.4%로 가장 낮게 조사됨
- 2022년 8월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2022 성소수자 인식조사」결과 응답자 절반이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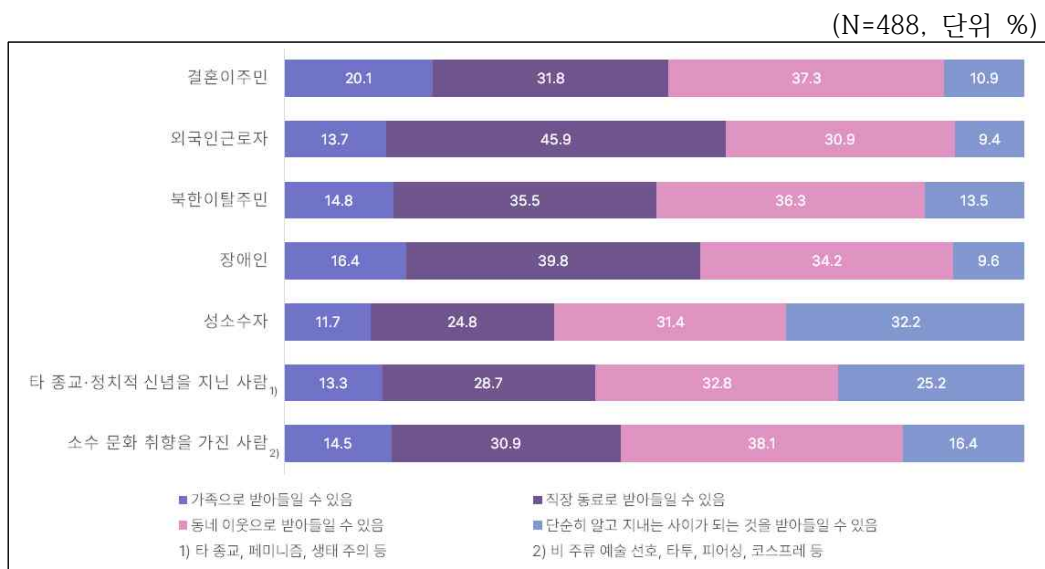


[그림 V-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 성소수자관련

출처: 여론(2022.8.22.).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를 받아들여야 할까?” (이동한 기자)
(<https://hrcopinon.co.kr/archives/23960>.)

- ‘동네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은 소수문화 취향을 가진 사람 38.1%, 결혼이주민 37.3%, 북한이탈주민 36.3%, 장애인 34.2%의 순으로 나타남
- 2021년 서울시의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 개발과 시범조사」는 장애인 61.7%, 결혼이주민 59.4%, 소수문화 55.7%, 종교 56.6%, 북한이탈주민 45.4%, 외국인근로자 44.5%, 성소수자 34.2% 순으로 나타남
-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서 각 구성원에 대한 수용도는 장애인 77.7%, 결혼이주민 71.1%, 종교 71.4%, 외국인근로자 68.8%, 북한이탈주민 66.4%, 성소수자 36.5% 순으로 조사됨
- ‘직장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음’은 외국인근로자 45.9%, 장애인 39.8%, 북한이탈주민 35.5% 순임
- 2021년 서울시의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 개발과 시범조사」에서 직장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냐는 질문에 종교 61.6%, 결혼이주민 60.5%, 소수문화 58.3%에 비해 성소수자가 39.8%로 조사됨. 이러한 결과는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직장동료로 함께 일하는 것은 불편해하는 것으로 보여짐

-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은 결혼이주민 20.1%, 장애인 16.4%, 북한이탈주민 14.8% 순으로 나타남. 성소수자 11.7%로 조사됨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알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전혀 없음에도 가족이나 직장 동료 그리고 동네 아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 분석 결과, 다른 문화적 배경 집단에 대한 개인의 수용 정도는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수용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타종교·정치적 신념을 지닌 사람, 그리고 소수문화 취향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화성시민 89.7%가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에는 매우 동의하지만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과 이웃이 되거나 직장동료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거리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그림 V-9] 구성원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③ 사회현상에 대한 수용 여부

- 민족·인종·국적
 - ‘우리나라에 다양한 인종·민족의 문화가 많이 들어와도 괜찮다’는 질문에 그

렇다 64.3%로 그렇지 않다 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남

- ‘피부색이 달라도 한국국적을 취득했으면 한국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질문에는 그렇다 52.0%, 매우 그렇다 24.5%로 높게 나타남
- ‘나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주민이 모여 본국의 음악이나 무용, 공연을 즐기는 것을 보면 함께 참여하고 싶다’는 그렇다 68.5%, 그렇지 않다 31.6%로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종교·신념

- ‘나와 다른 종교의 교리와 의식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면 안 된다’는 78.4%가 그렇다라고 응답해 높게 나타남. ‘종교 및 신념이 다른 사람과 깊이 친해지기 어렵다’는 그렇다 43.56.1%로 그렇지 않다 보다 높게 나타남
- 두 응답 결과, 나와 다른 종교의 교리와 의식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면 안 된다고 인식은 하지만 종교 및 신념이 다른 사람과는 친해지기 어렵다고 응답해 인식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장애

-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학 입학, 취업 전형을 실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57.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내가 사는 지역에 장애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과 특수학교가 들어와도 상관없다’는 75.2%가 그렇다고 응답함

○ 성적지향·성정체성

- ‘성 소수자가 나오는 영화, 소설, 드라마를 본 적이 있다’는 57.7%가 그렇다라고 응답함. 성 소수자 축제(퀴어 축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74.6%가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

- ‘중요한 업무를 할 때 상대방의 성별은 아무 상관없다’는 75.6%가 그렇다라고 응답함.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만드는 방송, 영상 등의 미디어를 접하는 게 불편하다’는 65.4%가 그렇다로 응답함
-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도 ‘중요한 업무를 할

- 때 상대방의 성별은 아무 상관없다'가 8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중매체에서의 성 차별이 없다'는 33.7%로 대중 매체에서의 수용도는 낮게 나타남
- 두 결과 모두 '중요한 업무를 할 때 상대방의 성별은 아무 상관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미디어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불편하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연령·세대

- '세대 차이가 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그렇지 않다가 높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과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그렇다가 높게 나타남.
- 이 연구 결과에서는 연령과 세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2년 3월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세대갈등 인식」에서는 81%가 '우리사회의 세대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해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나옴



[그림 V-10]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

출처: 여론(2022.3.30.). "세대갈등 인식과 전망." (이동한 기자) (<https://hrcopinon.co.kr/archives/21358>)

○ 소수 문화 취향

- '소수문화를 즐기는데 비용을 지불 할 의사가 있다'는 그렇지 않다가 조금 높게 나타난 반면, '독립·예술 문화예술가의 창작을 위해 공공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에는 지원할 의사가 있다가 68.9%로 높게 나타남
- 문화관광부의 「2017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서도 '독립문화예술 비용 지불 의향'에 대한 질문에 49.8%로 가장 낮게 나타남

V. 화성시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결과

<표 V-3> 사회현상에 대한 수용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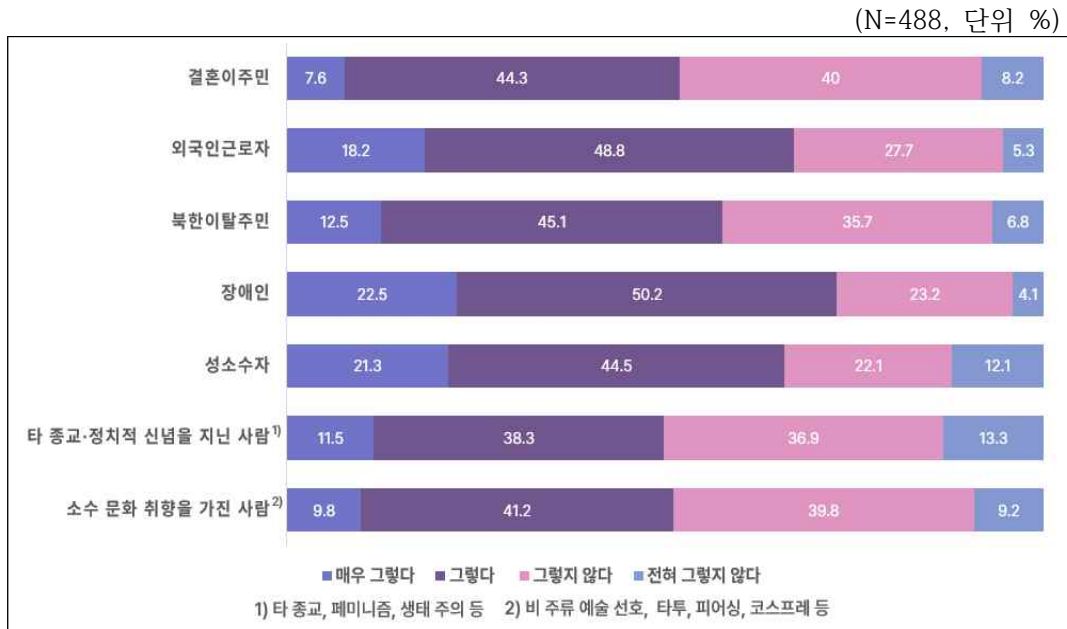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민족 인종 국적	우리나라에 다양한 인종, 민족의 문화가 많이 들어와도 괜찮다	488	12.5	51.8	28.5	7.2
	피부색이 달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한국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488	24.4	52.0	18.6	4.9
	나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주민이 모여 본국의 음악이나 무용, 공연을 즐기는 것을 보면 함께 참여하고 싶다	488	20.5	48.0	24.6	7.0
종교 신념	나와 다른 종교의 교리와 의식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면 안 된다	488	27.0	51.4	17.0	4.5
	종교 및 신념이 다른 사람과 깊이 친해지기 어렵다	488	12.5	43.6	33.6	10.2
장애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학 입학, 취업 전형을 실시하는 것은 부당하다	488	12.3	29.1	39.8	18.9
	내가 사는 지역에 장애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과 특수학교가 들어와도 상관없다	488	24.4	50.8	19.7	5.1
성적 지향 정체 성	성 소수자가 나오는 영화, 소설, 드라마를 본 적이 있다	488	15.8	41.8	25.2	17.2
	성 소수자 축제(퀴어 축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488	5.1	20.3	29.1	45.5
성별	중요한 업무를 할 때 상대방의 성별은 아무 상관없다	488	29.3	46.3	21.1	3.3
	성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을 만드는 방송, 영상 등의 미디어를 접하는 게 불편하다	488	23.2	42.2	27.3	7.4
연령 세대	세대 차이가 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어려움이 있다	488	8.2	38.5	37.9	15.4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과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다	488	21.9	50.4	23.4	4.3
소수 문화 취향	소수 문화(비주류 예술, 타투, 피어싱, 코스프레 등)를 즐기는데 비용을 지불 할 의사가 있다	488	12.9	34.8	34.8	17.4
	독립/예술 문화예술가의 창작을 위해 공공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488	15.4	53.5	25.4	5.7

(4) 문화다양성 차별경험에 대한 인식 정도

① 구성원들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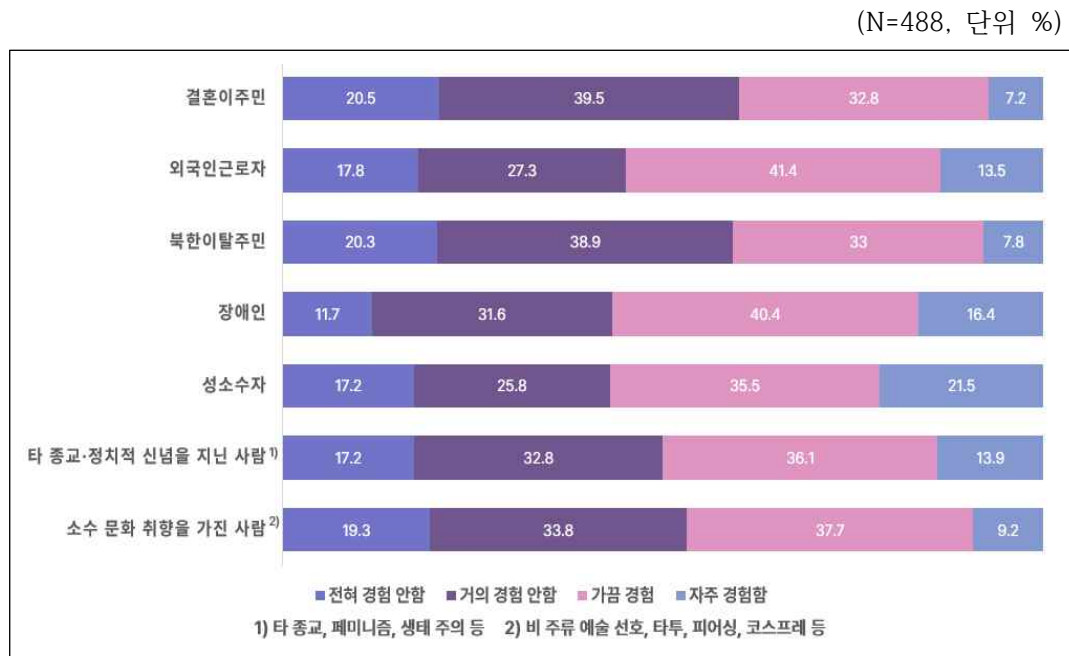
-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이 ‘우리 사회로부터 차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72.7%가 장애인에 대해 그렇다(그렇다 +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해 가장 차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외국인근로자 67.0%, 성소수자 65.8%, 북한이탈주민 57.6%, 결혼이주민 51.9%, 소수문화취향을 가진 사람 51.0%, 타 종교·정치적 신념을 지닌 사람 49.8% 순으로 나타남
 -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서는 성소수자가 76.7%로 가장 차별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에 대해 50%가 넘게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장애인집단의 경우, 사회적 차별에 대한 문제 인식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사회적 차별을 많이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V-11] 구성원들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 정도

② 구성원에 대한 혐오표현

-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을 얼마나 자주 보거나 듣는지’에 대한 질문에 성소수자 57%, 장애인 56.8%로 거의 비슷하게 혐오표현을 많이 경험한(가끔 경험 + 자주 경험함) 것으로 나타남
- 결혼이주자는 60.0%로 가장 혐오표현을 경험하지 않은(전혀 경험 안함 + 거의 경험 안함) 것으로 나타남
- 결혼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은 성소수자,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에 비해 혐오표현을 상대적으로 적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결혼이주민의 경우,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지난 1년간 외국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에 응답자의 2009년 36.4%에서 2021년 16.3%로 줄어든 수치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여짐(여성가족부,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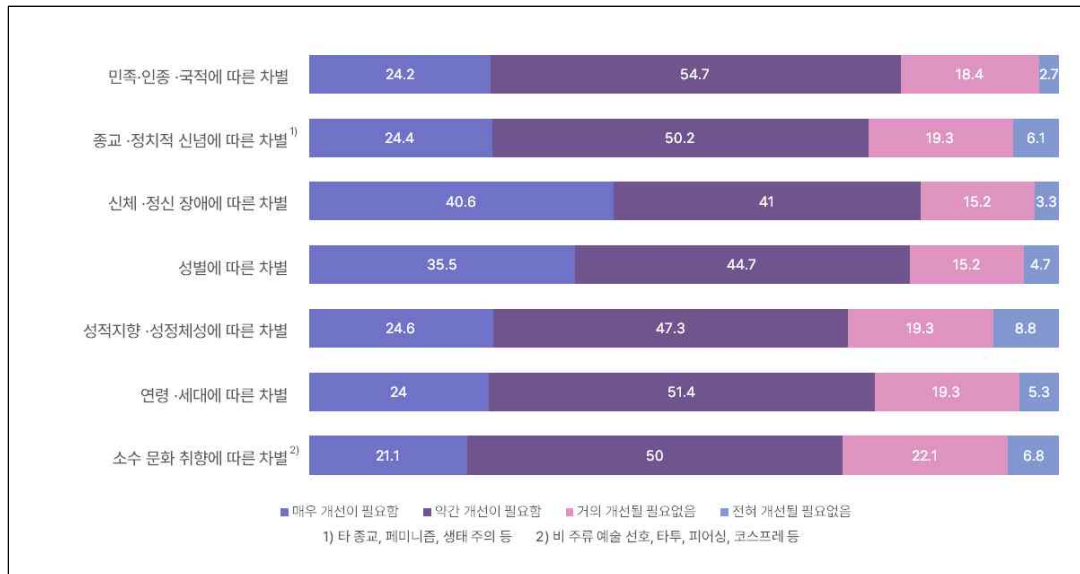
[그림 V-12] 구성원에 대한 혐오표현

(5) 문화다양성 정책지원 필요도

① 사회현상에 대한 개선 인식 정도

- ‘각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차별개선’에 대한 질문에 모든 집단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0%가 넘음
- 분석 결과, 신체·정신 장애 81.6%가 개선이 필요(매우 개선이 필요함 + 약간 개선이 필요함)하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성별 80.2%, 민족·인종·국적 78.9%, 연령·세대 75.4%, 종교·정치적 신념 74.6%, 성적지향·성정체성 71.9%, 소수문화취향 71.1%로 순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N=48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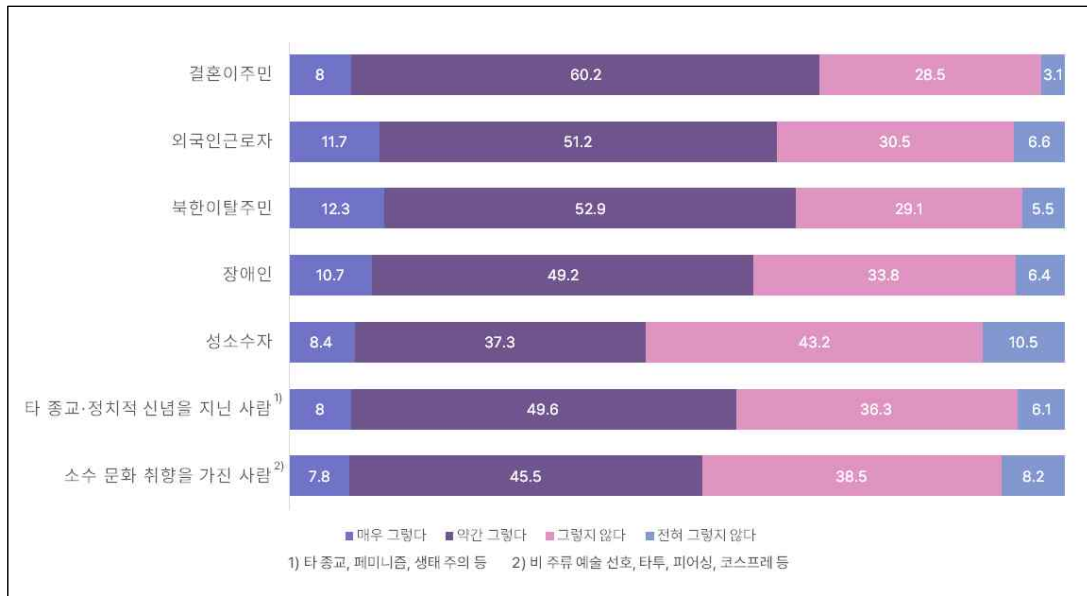


[그림 V-13] 사회현상에 대한 개선 인식 정도

② 화성시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에 대한 지원 정도

-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에 대한 화성시의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성소수자 집단을 제외한 다른 구성원에게는 화성시가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다(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는 응답이 50%를 넘김
- 이 중 결혼이주민에 대한 지원이 그렇다(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 68.2%로 가장 높았고, 성소수자가 45.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종교인, 결혼이주민, 장애인, 외국인근로자, 성소수자 순으로 나타남
- 정부와 화성시 조사 모두 성소수자에 대해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N=488, 단위 %)



[그림 V-14] 화성시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에 대한 지원 정도

③ 사회현상에 대한 화성시 정책 대응 정도

- ‘사회현상에 대한 화성시의 대책의 충분한 정도’에 대해 성별 불평등, 독신 가구의 증가, 외국인주민의 증가, 세대 간 갈등, 주류 문화예술 독점, 지방 (지역)문화에 대한 차별, 소득에 따른 문화 소외, 전통문화 위기의 8가지 항목에 대해 질문함
- 분석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정책대응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 응답이 50%를 넘겼으나, 주류 문화예술 독점은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음
- 화성시 정책 중 가장 잘하고 있다(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는 ‘독신가구의 증가’로 59.8%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반대로 주류문화예술 독점에 대해서는 50.4%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각 항목에 대한 화성시의 정책 대응 정도를 묻는 질문에 ‘적절

하게 대응하고 있다'와 '그렇지 않다'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문화다양성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지만 정확한 개념이나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짐

(N=488, 단위 %)



[그림 V-15] 화성시의 사회현상에 대한 정책 대응 충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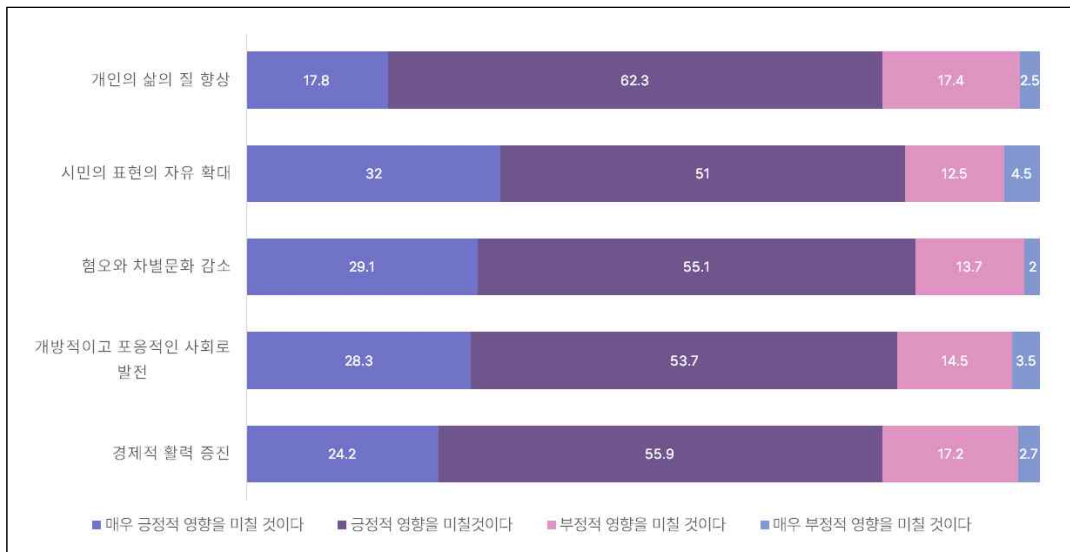
④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이 화성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남. 이 중 ‘혐오와 차별문화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84.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 확대 83.0%,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로 발전 82.0%,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활력 증진이 80.1% 순으로 나타남
 - 서울시의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 개발과 시범조사」와 비교해 보면 모든 항목에서 화성시민의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남

<표 V-4>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이 미치는 영향 (서울시와 화성시 비교)
(단위 : %)

항목	화성시	서울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80.1	60.0
시민의 표현의 자유 확대	83.0	69.4
혐오와 차별문화 감소	84.2	61.0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로 발전	82.0	68.8
경제적 활력 증진	80.1	54.9

(N=488, 단위 %)



[그림 V-16]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⑤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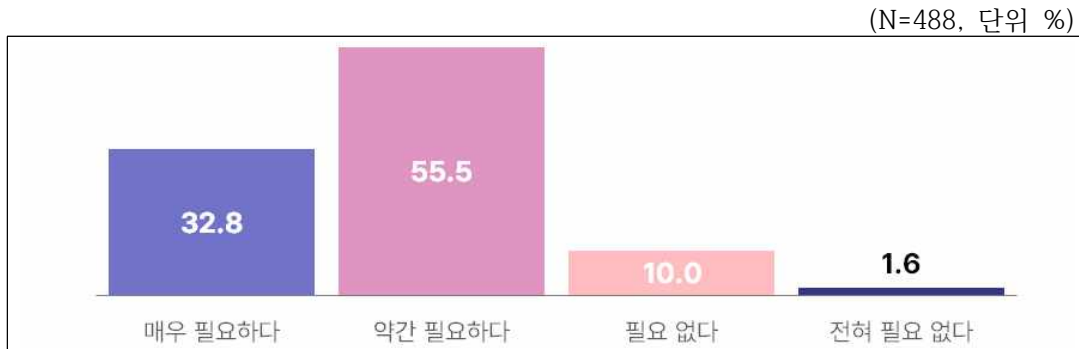
- ‘화성시가 문화다양성 정책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렇다)가 84.6%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15.3%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의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 개발과 시범조사」에서 ‘서울시가 문화다양성 정책을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결과 그렇다 69.4%보다 더 높게 나타남



[그림 V-17]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요도

⑥ 화성시 차원의 문화다양성 정책 필요성

- ‘화성시 차원에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필요하다(매우 필요 + 약간 필요)가 88.3%로 필요 없다(전혀 필요 없다 + 필요 없다) 11.6%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남
- 응답자의 대부분이 화성시 차원에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그림 V-18] 화성시 차원의 문화다양성 정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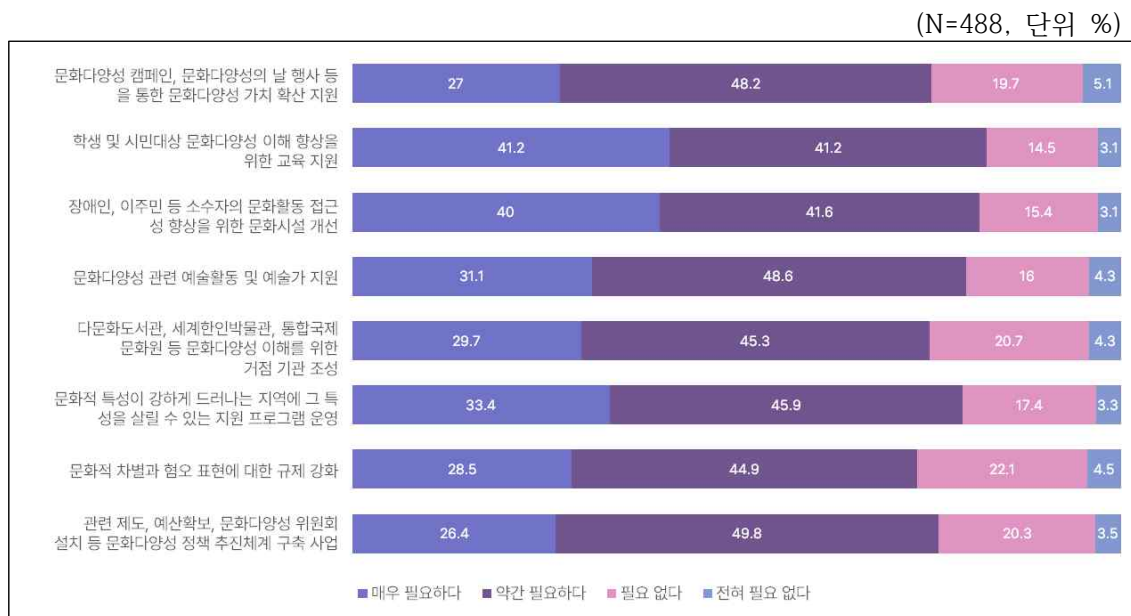
⑦ 문화다양성 사업 필요성

- 화성시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을 위한 사업의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 ‘시민대상 문화다양성 이해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이 82.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의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 개발과 시범조사」에서도 ‘서울시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실행할 수 있

는 사업의 필요도’에서 ‘학생 및 시민대상 문화다양성 이해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이 3.68점(5점 척도)으로 가장 높게 조사된 것과 같은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음

○ 그 다음은 ‘장애인, 이주민 등 소수자의 문화활동 접근성 향상을 위한 문화시설 개선’ 81.6%, ‘문화다양성 관련 예술활동 및 예술가 지원’ 79.7%, ‘문화적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지역에 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운영’ 79.3%로 비슷하게 나타남

○ ‘관련제도, 예산확보, 문화다양성 위원회 설치 등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체계 구축 사업’ 76.2%, ‘문화다양성 캠페인,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 등을 통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지원’ 75.2%, ‘다문화도서관, 세계한인박물관, 통합국제문화원 등 문화다양성 이해를 위한 거점기관 조성’ 75.0%, ‘문화적 차별과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강화’ 73.4%, 순으로 나타남



[그림 V-19] 문화다양성 사업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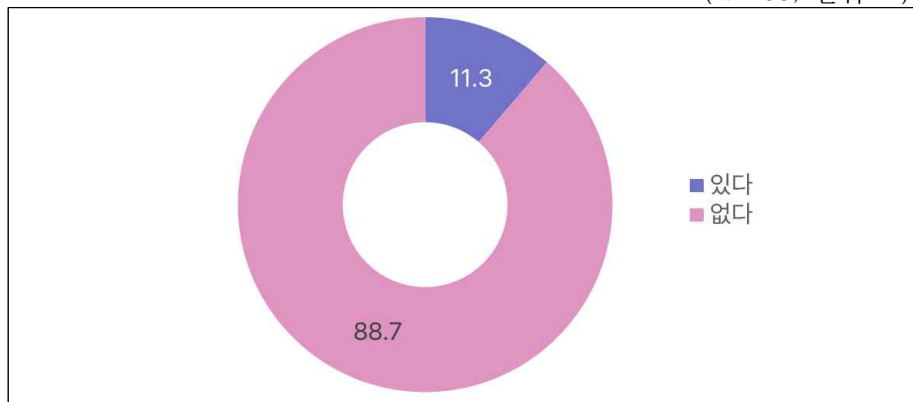
(6) 외국인주민 관련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경험

① 외국인주민 관련 문화다양성 관련 프로그램 경험

○ ‘외국인주민 관련 프로그램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 응답자의 11.3%만 경험한 적이 있고 대부분은 경험한 적이 없는 것(88.7%)으로 나타남

○ 경험한 외국인주민 관련 프로그램은 가족체험이나 명절축제 등 이벤트성 행사에 참가하여 음식이나 전통놀이, 의상 등을 체험해 본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 외국인주민과 함께 하는 체육대회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N=488, 단위 %)



[그림 V-20] 외국인주민 관련 프로그램 경험

② 경험한 프로그램이 없는 이유

○ ‘외국인주민 관련 프로그램을 경험하지 않은 이유’로는 관심 없음 31.8%, 시간 없음 28.3%, 필요를 못 느낌 17.0%, 장소 멀음 9.2%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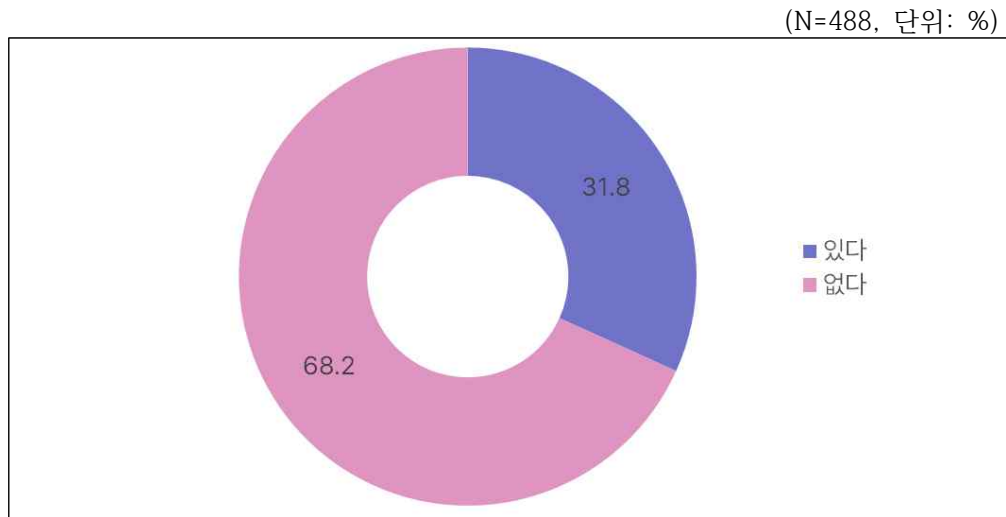
(N=433, 단위: %)



[그림 V-21] 경험한 프로그램이 없는 이유

③ 외국인주민 관련 프로그램 참여 의사

- ‘외국인주민 관련 프로그램 참여 의사’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155명 (31.8%)이 참여 의사가 있다고 함



[그림 V-22] 외국인주민 관련 프로그램 참여 의사

-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으로는 다양한 국가의 문화나 의상, 음식 등의 체험이나 외국인주민과의 상호작용하는 프로그램을 선호하였고 이 외에도 문화예술포럼이나 축제 등 행사, 외국인주민의 한국 정착에 대한 이야기나 다문화가정에 대해 알고 싶다 등으로 나타남

4) 화성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 조사 요약 및 시사점

(1) 화성시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결과 분석 요약

○ 문화다양성의 인식 및 가치

- 화성시민의 문화다양성 용어에 대한 인지도는 74.6%로 높은 편이지만 문화다양성과 연관된 대상을 ‘민족·인종·국적’ 66.2%로 인지하고 있음. 그 이유로 ‘다양한 외국인이 있다’, ‘다문화가정이 많다’, ‘다양한 나라의 문화체험이 자주 있다’, ‘간판이나 상점이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다’ 등으로 응답함. 이러한 결과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개념을 다문화개념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 화성시민 절대다수(89.7%)는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이는 전국 평균 73.8% 보다 높은 수치임

○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도

- 구성원에 대한 거리감 부분에서 ‘성별’이나 ‘연령·세대’에는 별로 거리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종교·정치적 신념’은 51.4%가 사회적 거리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나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에 대해 차별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사회현상에 대한 수용도

- 다른 문화적 배경 구성원에 대한 개인의 수용 정도는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수용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타 종교·정치적 신념을 지닌 사람, 그리고 소수 문화취향을 가진 사람 순으로 낮게 나타남
- ‘나와 다른 종교의 교리와 의식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면 안 된다’고 인식은 하지만 ‘종교 및 신념이 다른 사람’과는 친해지기 어렵다고 응답해 인식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문화다양성의 차별 경험

- 장애인, 성소수자, 외국인근로자 집단이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혐오 표현도 자주 보거나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문화다양성 정책지원 필요도

-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남.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경제적 활력 증진, 혐오와 차별문화 감소,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로 발전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 이를 실천하는 방안의 하나로 화성시 차원의 문화다양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88.3%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외국인 주민 관련 프로그램 경험 여부

- 전국에서 네 번째로 외국인 주민이 많은 화성시에서 외국인 주민 관련 프로그램을 경험한 경우가 없다는 응답이 88.7%로 높게 나타남. 경험하지

않은 이유로 관심이 없거나 시간이 없고, 필요를 못 느낀다는 응답이 나옴

(2)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결과 분석 시사점

-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민족·인종·국적’의 연장선으로 인지하고 있음
 - 화성시민의 문화다양성 용어에 대한 인지도는 74.6%로 높은 편이지만 문화다양성과 연관된 대상을 ‘민족·인종·국적’ 66.2%로 인지하고 있어 문화다양성에 대한 개념을 다문화개념의 연장선에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장애, 성별, 성적 지향·성정체성, 세대(연령), 출신지역, 기호, 취향, 비주류예술(독립예술, 실험예술), 소득 등 문화다양성으로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서는 연관성을 낮게 인식함
 - 이러한 결과는 화성시가 문화다양성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문화다양성이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며 개인과 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존중하고 그 문화와 표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보여줌
-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과의 접촉 및 교류 경험 부족에서 오는 거리감으로 수용도가 떨어짐
 - ‘성별’이나 ‘연령·세대’에는 별로 거리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종교·정치적 신념’ 51.4%, 성적지향·성정체성 50.2%, 민족·인종·국적, 46.7% 순으로 사회적 거리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대부분이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들과의 접촉 경험이나 자주 만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화성시민 89.7%가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문화적배경이 다른 모든 구성원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함.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별과 혐오 감소를 위한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 화성시 자체의 문화다양성 정책이 필요함
 -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남.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경제적 활력 증진, 혐오와 차별문화 감소,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로 발전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

- 이를 실천하는 방안의 하나로 화성시 차원의 문화다양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88.3%로 매우 높게 나타남. 문화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이벤트성 일회성 행사보다는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화와 녹여들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2. 화성시민 심층면접 결과 분석

1) 조사개요

(1) 조사의 목적 및 대상

- 화성시민의 문화다양성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화성시 거주자와 마을활동가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함
- 화성시 거주 한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및 마을활동가를 대상으로 한국인주민 11명, 외국인주민 6명, 마을활동가 7명으로 구성됨
- 심층인터뷰 내용은 문화다양성의 인식, 다양한 집단과의 교류 경험,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문화적 가치 확산 관련 요인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표 V-5>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참여자	성별	연령	면접일시
1	A 한국인주민	여	30대	2022. 11. 02.
2	B 한국인주민	여	40대	2022. 11. 02.
3	C 한국인주민	여	50대	2022. 11. 02.
4	D 마을활동가	여	50대	2022. 11. 02.
5	E 마을활동가	여	50대	2022. 11. 02.
6	F 마을활동가	여	50대	2022. 11. 02.
7	G 마을활동가	여	50대	2022. 11. 02.
8	H 마을활동가	남	60대	2022. 11. 02.
9	I 마을활동가	남	50대	2022. 11. 17.
10	J 마을활동가	여	50대	2022. 11. 17.
11	K 외국인주민	여	30대	2022. 11. 19.
12	L 외국인주민	남	30대	2022. 11. 19.
13	M 외국인주민	남	30대	2022. 11. 19.

V. 화성시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결과

14	N	외국인주민	남	30대	2022. 11. 19.
15	O	외국인주민	남	30대	2022. 11. 19.
16	P	외국인주민	남	30대	2022. 11. 19.
17	Q	한국인주민	여	30대	2022. 11. 19.
18	R	한국인주민	여	30대	2022. 11. 19.
19	S	한국인주민	여	40대	2022. 11. 19.
20	T	한국인주민	여	40대	2022. 11. 19.
21	U	한국인주민	남	30대	2022. 12. 14.
22	V	한국인주민	여	40대	2022. 12. 14.
23	W	한국인주민	여	40대	2022. 12. 14.
24	X	한국인주민	남	70대	2022. 12. 14.

(2) 조사내용

- 심층면접 내용은 화성시와 한국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화성시민의 문화다양성 수용도,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해 필요한 요인, 문화다양성 인식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과의 교류경험, 외국인주민과 함께 하면 좋은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 질문함

2) 심층면접 결과

(1)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 문화다양성을 서로 다르거나 차이를 인정하며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함

“문화다양성이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녀의 문화가 다르고 아이와 어른이 다르고, 쿼어의 문화가 다르고, 장애와 비장애의 문화가 다르고, 또 종교의 문화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우르며 다양성을 추구해야 하는데 요즘은 동남아시아 쪽의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니 후진국의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보여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D 님)

“나라, 종교, 성 등의 다름에 따른 서로의 문화와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표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 님)

“문화란 무엇인가 개념과 자신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이해,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것” (B 님)

- 이에 반해 문화다양성을 다문화의 다른 표현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정책적으로 다문화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문화다양성이란 단어가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응답함
- 다문화라는 단어는 갈등이 먼저 연상되고 문화다양성은 이러한 갈등을 중화시키고 다문화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이 단어가 사실 좀 불편했어요. 왜냐면, 정책적으로 사용할 때는 거의 다문화로 굳혀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문화 다양성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그니까 정책의 현장에서 쓸 때는 당연히 다문화로 통용해서 써야 될 거 같은데, 그거를 담기에는 너무 의미가 협소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U 님)

“갈등이라는 단어에서 되게 좀 꽂히는 게 다양성 하면 다문화라는 단어가 먼저 생각나고 요즘 코로나를 겪어서 그런지 다문화하면 사실은 갈등이거나 좀 저는 안 좋은 이미지가 약간 있긴 하거든요. 그거를 중화시키려고 다양성이라는 단어를 약간 정책적으로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요즘 사실 여기 오려고 약간 기사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문화가 좀 사람들에게 인식이 안 좋은 단어가 돼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문화는 다양하니까 다양성이라는 얘기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V 님)

(2) 화성시민의 문화다양성 수용도

- 화성시민들의 문화다양성 인식수준은 낮음. 문화에 대한 개념과 가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외국인의 문화를 인정하는 정도로 문화다양성의 수용도는 미흡하다고 여김

“화성만이 아니라 아직까지 일반시민들에게 문화란 가깝고도 어려운 것 같아요. 문화를 생활화하고 즐기지만 정작 문화가 무엇인지, 자신만이 추구하는 문화적 욕망, 가치 등 고민하고 찾아가는 활동은 보기 드물죠. 아직은 근본적인 문화 개념과 자신의 문화적 욕망, 가치에 대한 이해,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것 등 문화다양성의 수용도는 낮다고 생각해요.” (B 님)

“아주 작은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냥 외국인들의 문화를 인정하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D 님)

“화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 외국인 주민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문화 다양성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문화 다양성의 이해, 수용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적의 주민이 함께 생활하는 화성은 타 지역보다는 문화다양성의 수용도는 높은 편이라고 봅니다.” (E 님)

“이는 교육수준,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장에서 사업주 또는 한국인 직장동료들로부터 전달받는 느낌으로는 매우 낮죠.” (I 님)

“그렇죠 화성시는 다양한 형태의 이주민이 많고 개인의 문화, 지역별, 국가별 등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도시예요.” (B 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화성시에는 일자리를 찾아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문화를 수용하는데 급급해서 문화다양성을 너무 축소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D 님)

“네, 아직은 일부이긴 하지만 외국인 밀집 지역의 외국인 음식점, 종교 시설, 외국인 마켓, 전통 축제 등을 보고 경험하면서 문화다양성을 높여가고 있다고 봅니다.” (E 님)

- 문화를 즐기고 향유하기 위한 문화시설이나 내용 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함. 양질의 공연과 전시를 보기 위해 서울로 나가는 경우가 많음. 화성시민을 위한 저렴한 공연보다는 수준 높은 공연이나 전시회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

“시설도 뭐 여기 누립, 반석 아트홀 그리고 화성아트 그렇게 있다곤 하는데 기본적인 그냥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약간 세팅되는 그런 개념만 있다고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뭔가 좀 다양하게 하고 싶은데 그런 시설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많이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자유 예술이나 뭔가를 더 펼치기 위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조금 더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장들이 펼쳐지면 너무 좋겠는데 그분들조차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그게 또 시민들한테도 접하는 기회가 소수 한정적이다 보니까, (...) 여기는 별로 안 보게 되고 이왕이면 뭐 서울, 그렇게 약간 돼버리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개입을, 조금 겹을 조금 없애는, 이왕에 지을 거면, 이왕에 돈을 들일 거면, 우리 화성시민들이 진짜로 저렴하면서도 고퀄리티나 아니면 다양하게 그런 고민을 혹시나 재단해서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W 님)

“내가 공연이나 이런 거 보고 싶을 때는 이왕에 돈 지불하는 거 조금 더 퀄리티 있고 이런 거. 3~40분이면 저희는 서울 예술의 전당 가거든요. 그럼 가까운 데 조금 더 좋은 데 가지. 화성시에서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훨씬 저렴한 건 맞아요. 5000원, 10,000원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렴하게 하시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글썄 모르겠어요. 돈을 지불 하면서 내가 이왕이면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는 만큼 조금 더 들여서 내가 원하는 보고 싶은. 뭔가 퀄리티 미술 작품이라든지. 뭐 예술 공연을 조금이라도 좋은 곳을 가서 보는. 그런 게 조금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고 뭔가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용하지는 못한다는 좀 그런 생각이 전 들었어요.” (W 님)

- 화성시에서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추진 시 단순히 부스를 운영하는 형식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전달하고자 하는 문화코드를 설계 과정에서 어떤 요소를 담을 것인가에 고려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음

“전체적인 설계 부분인 게 안산에서 이질감이 없으셨던 건 그냥 단순히 옷을 입는 부스가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축제에 다문화 프로그램을 넣으려고 굉장히 오랜 기획과 설계가 있었고, 그리고 1년 차의 설계가 아니라 제가 있을 때부터 있었던 거니까 근 10년 차의 설계인 거고. 그들이 쌓아온 인프라인 거예요. 아마 1년 2년 나오신 게 아니라, 매년 축제를 즐기면서 나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질감이 없었던 거예요.” (V 님)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재단이든 시든 문화 코드를 먼저 설계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얼마 전에 이제 화성시 생활문화 아마 축제가 지난번에 동탄 홍사용 문화 거리에서 진행된 게 있었는데, 거기서 00센터 부스가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느꼈던 것들은 행사에서 사실 부스를 설치하고 프로그램 파트를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기계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서 공연 순서 그리고 공연자의 라인업 그리고 어떤 곡을 연주하고 어떤 곡을 부를 것인지 심지어 행사장에서 어떤 홍보문이나 이런 거에 주조색과 부조색 그리고 거기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유도해야 하는 어떤 동선까지. 여기에 다 사실은 문화적인 코드가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싶다고 해서 다문화 부스를 하나 설치하는 것이 과연 다문화의 달성인가. 저는 그거 보다는 차라리 이 모든 프로그램의 설계 과정에서부터 그런 디테일한 요소에서부터 다른 문화적인 요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오픈을 해야지 이게 진정한 다문화고 문화 다양성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어떤 문화 다양성은 이게 꼭 다문화가 됐든 아니면 다른 분야가 됐든 간에 문화 코드를 처음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신경을 쓰고 설령 그로 인해서 시간이 더 걸린다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어떤 다른 그동안 보지 못했던 문화적인 요소를 담을 것인가를 좀 더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U 님)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들의 문화다양성 수용도가 낮다고 생각함. 서로 다른 외국
인주민들 간에도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수용도가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함

“사회적으로 문화다양성을 강요하고 있는 분위기라서 내재적으로 체화된 문화다양성이라
기 보다는 학습된 문화다양성을 포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특히 외국인 입장에
서는 다자적 관점에서의 문화다양성이 아니라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한국이라서
한국의 문화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지 외국이 또 다른 국적의 외국인의 문화를 인정하는
모습은 찾기 어려워요”(I 님)

“여가부 다문화감수성 테스트 문항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외국인 대상 평균 감수성은 절
반 이하일 것 같아요. 이 역시 외국인주민의 교육수준,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
죠. 다만 외국인들이 한국이라는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보니 내국인과는 상대적으로 상
호문화주의에 근접하고는 있지만, 본인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적 상호문화주의로 봐
야지 절대적 상호문화주의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일례로 이슬람권 이주민들의 경우
에 한국의 전통문화, 유교, 불교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걸 봐도 알 수 있죠.”(I 님)

- 외국인 주민에 대한 시선이 다르다고 느끼고 있음. 국적 취득을 하고 의사소
통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도 여전히 자신을 도와줘야 되는 존재로 보는 시선
이 불편하다고 함

“맨 처음에 말 좀 못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약간 외국사람이구나 약간 그
런 시선이 싫었어요. 지금은 다문화가정들이 많아서 이제 개선이 됐는데 약간 연세 있으신
분은 아직도 좀 그래요.”(T 님)

“향남지역에서 외국 사람 많이 만나서 편견을 조금 낮춘 것 같아요. 남양은 또 다르죠. 그
냥 동네 사람 눈치가 좀 달라요. 지금은 국적도 취득했고 말도 알아들어서 대화도 괜찮은데
그래도 눈치가 그 사람 생각은 되게 아직도 어색하고 뭔가 다문화는 어려운 사람 뭔가 부
족하고 못하는 사람, 이 사람 도와줘야겠구나, 참 고생한다 그런 소리 들어서 기분 나빠요.
요즘도 그런다고요. 말로 하지는 않지만 근데 그래요. 난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구나. 이게
기분이 좀 안 좋아요.”(S 님)

“한국사람도 어려운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냥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 계속
살아야 되고 아이도 키우면서 어차피 한국 사람인데. 근데 한국사람 입장에서는 저희는 국
민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맨날 다문화야. 이쪽으로 그냥 이렇게 분리하는 것 같아
요.”(S 님)

“저는 버스 타면 전화 안 받아요.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시선이..... 사실은 모습은 티가 안 나는데 그런데 말을 하는 순간 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K 님)

(3)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해 필요한 요인

- 화성시는 지역적으로 인구 및 경제 인프라의 격차가 심한 도시 중 하나임. 이에 지역문화의 특성과 가치를 잘 살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화성시가 지금 지역적인 갈등이 굉장히 지금 또 심한 곳 중에 하나거든요. 동부는 너무 현대화되고 아파트 많이 되고, 뭔가 혜택을 많이 받는 거 같은데, 서부는 어르신들이 많고 외국인들이 많고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 그래서 문화 다양성이라 이런 주제를 통해서 아까 뭐 계층마다 이제 좀 살릴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균형적 이게 그런 갈등을 조금 와해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W 님)

“정책도 중요하지만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필요성 등을 위한 활동과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식과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정책으로 이어갔으면 합니다.” (B 님)

“문화다양성을 다른 나라 문화의 융화만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외국의 문화를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D 님)

“아직도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있어 성인과 학생 대상으로 학교, 도서관 등 교육 기관에서의 문화 다양성 이해 관련 교육을 다양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편견과 선입견도 타 문화를 몰라서 일어난 현상이라 봅니다.” (E 님)

- 해당 기관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해도 시민들은 정보 부족으로 참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좋은 프로그램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 및 체계적인 기획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어떤 그런 컨트롤. 주민 자치라든지. 아까 말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근데 내가 왜 컨트롤 타워를 이야기했냐면 이 사실 문화를 갖고 지금 다양성이 됐든 뭐가 됐든 시민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든 무엇을 하든 어떤 그걸 갖고를 일상 분할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그 것을 조망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책임 있는 부서가 있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시 공무원은 공무원 손 놓기 싫고 자기 관은 갖고 싶고 재단은 재단에 그 명분은 그러니까 어쩔 무언가 좀 빼껴빼껴하는 거 같아.” (X 님)

“지금 거의 다 보면 큰 뭐 행사 돈 크게 들여서 그거 하면 오겠지. 근데 그것까지 좋아요. 근데 오게 홍보도 안 해줘, 몰라 시민들이. 저는 제일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X 님)

- 관이 주도하는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에는 제약이 많음. 이에 민관이 함께 하는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함

“사회라는 게 제도하고 사람이 같이 가야 되는, 그니까 제도하고 인식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이 질문을 그냥 시민으로서 받았다면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답을 했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도적으로는 이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로 갈려고 하는 의지를 시의 의지를 또는 공공기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 거 같아요.” (U 님)

“또 화성시가 이제 비평준화 지역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거의 입시 체제로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유형의 어떤 문화 예술을 상상하기가 힘들어지는 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화성시가 또 화성시 문화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문화 다양성을 지향해 보자라고 제도적으로는 이미 앞서가고 있어도 실제로 일선에서 시민사회라든지. 아니면 일선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사람들 지역사회의 인식 체계가 아직 또 다른 문화 다른 유형의 사람 다른 유형의 프로그램을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U 님)

- 과거 타성에서 벗어나 발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문화를 통한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들의 특성과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함

“이런 문화 가치라는 걸 통해서 일상에서 이제 문화를 통한 통해서 이제 삶의 질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각각의 계층에 특성들을 이제 살린다 그래야 되나요? 그걸 이해해서 그분들에게 있어서의 뭔가 삶의 질을 변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여기 구성원이 있고 뭐 장애인 미술 전시도 될 수도 있고 장애인 음악을 조금 배우게 해서 그분들을 무대 경험을 시켜서 그런 힘든 일상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자기의 결핍을 심리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일상의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또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예술을 통해서 이 문화 자체를 통해서 이제 이 실현의 장이 되는 그런 게 될 수 있다.” (W 님)

(4) 문화다양성 인식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 우리에게 내면화되어 있는 불관용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이미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봄. 다양성에 대해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함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차별 다양성을 좀 인정하지 못하는 불관용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면화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니까 요새는 교과서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지만 옛날 교과서는 아주 단적으로 엄마, 아빠, 아들, 딸 항상 그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은연중에 모르게 아이들도 거기에 내면화가 되는 거고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게 뭐 엄마 아빠 아들 하나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아니면 엄마 아빠 딸 딸 둘이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 수도 있는 거 심지어 인종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엄마 아빠가 둘 다 여성이거나 둘 다 남성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지로부터 이미 어떤 차별 그리고 차이를 좀 받아들이기 어렵게 교육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지금이라도 이제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이 다양성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한 그런 교육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U 님)

- 일방적 주입식 인식개선 교육은 한계가 있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다각적 접근 방법의 모색이 필요함.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이해교육은 문화교육이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은 아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음

“문화다양성은 강요된 정책을 통한 일방적 주입식으로 진행되서는 안된다고 봐요. 이는 효과성도 없고 허위 껍데기를 덧씌워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나마 감수성이 형성되는 연령인 영유아나 초등학교 대상 교육은 효과성이 있지만, 수년간 고정화된 방식 즉, 이주여성의 다문화교육에 한계를 느끼게 돼요.” (I 님)

“우리 딸도 제일 재미없는 게 다문화 교육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문화교육 맨날 똑같이 식상해. 핸드폰을 뒤져보면 다 나와 있는 거를 사람들이 와서 잘 되지도 않는 말로 얘기하는 게 너무 재미가 없다는 거야. 15년째 똑같아요. 근데 문화교육이 다문화 이해 교육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 사람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 그냥 옆에서 수다 떨듯이 잠깐 듣는 거지 그거는 이해교육에 절대 아니거든요.” (J 님)

“문화 다양성, 다문화 감수성의 지표가 뭔지 그리고 그거를 측정을 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이 정부에서 별로 깊이 생각 안 하고 내려 보내고 또 지자체가 받고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이민정책연구원도 마찬가지구요. 정책 중심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문화 교육도 지금 한 15년 16년째 계속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냥 인형 만들고 그림에다 색칠

좀하고 옷 좀 입어보고 하면 다문화교육. 지긋지긋한 거죠. 뭔가 변화를 주려해도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문화 감수성이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근로자들에 대한 혐오나 이런 게 말로 표현을 안 한다고 그걸 가지고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 그런 다문화 감수성이 상승됐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저는 의문이 있다는 거죠. 결국엔 중앙에서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끌어주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I 님)

“저는 좀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자꾸 보여주는 것도 좀 필요하고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자꾸 이제 기관에서 이미 가족 센터가 돼서. 우리처럼 다문화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접근하기 쉬운 것도 있을 거 같고, ” (J 님)

- 문화다양성 주간에 하는 행사들을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지역 축제로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음

“맘프 축제 안 가보셨어요? 벌써 되게 오래됐는데 창원은 이제 그거를 지역행사처럼. 문화다양성 축제를 이틀 동안 연달아 하는데, 그걸 진짜 호주처럼 하더라고요. 하루는 무슨 토론이랑 포럼도 하고, 그다음에 국가별 부스도 하고.” (J 님)

“경기도도 세계인의 날 행사라고 해서, 딱 5월 24일 주간에 근데 그게 이름 자체가 문화다양성 주관으로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우리 다 세계인의 날 행사라고만 하는데 지자체에서부터 한 번 하루 행사하고 말잖아. 좀 잘하는 데가 주간 행사로 한 번은 토론회 하고 한 번은 이제 정말 뭐 장날처럼 다 열어 가지고 이렇게 주민들이 체험해 볼 수 있게 이렇게 광주 같은 데도 시청 앞 광장 탁 열어 가지고 이런 행사하더라고요.” (J 님)

- 우리가 가진 삶하고 이주민을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봄. 이들도 같은 사람 우리도 같은 사람 이렇게 느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함

“우리가 가진 삶하고 이주민을 연결시키는 작업이었어요. 이주민들은 물을 건너온 사람들 이잖아요. 그리고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서 아등바등 싸워서 내 삶을 쟁취하는 사람. 그래서 그때는 이주노동자 센터에서 예술가들이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은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물질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해서 해녀의 문화랑 연결을 시켰어요. 그니까 우리나라의 문화랑 연결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 거리에 커다란 수조를 만들고 아티스트들이랑 이주민 여성 노동자들이 물속 수조에 같이 들어가서. 물이 점점 차는 거예요. 거기서 무용을 하는데 그게 생존을 위한 움직임이었던 거기서 이들도 살기 위해 발버둥 친 거고 해녀들도 우리 문화랑 이분의 문화도 다르지 않고 이들도 같은 사람 우리도 같은 사람. 이렇게 느끼게 하는 그런 작품이 있었거든요.” (V 님)

- 프로그램 설계부터 문화코드가 들어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원함.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즐겁게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는 기회를 원함

“그분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녹아질 수도 있고 저는 그때 조금 기억이 나더라고요. 외국인분들이 각 나라의 것을 뭐 이렇게 가지고 와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서 참여를 하시면서 그래도 자기도 즐겁게 하시는 거 보고 이렇게 참 사실 내가 이 지역에 살면서도 뭔가 소소하게 이런 재미나 이런 참여를 하시면서 그래도 삶에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느끼시면서 가는 프로그램 요런 기획은 참 좋다는 생각이 참 들었었어요. 그런 게 또 아이들이나 보는 사람한테도 자연스럽게 녹여져 갈 것 같고.” (W 님)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재단이든 시든 문화 코드를 먼저 설계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싶다고 해서 다문화 부스를 하나 설치하는 것이 과연 다문화의 달성인가 저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 모든 프로그램의 설계 과정에서부터 그런 디테일한 요소에서부터 다른 문화적인 요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오픈을 해야지 이게 진정한 다문화고 문화 다양성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어떤 문화 다양성은 이게 꼭 다문화가 됐든 아니면 다른 분위 여기 있는 이제 수많은 한 열 가지 이상의 분야가 됐든 간에 문화 코드를 처음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신경을 쓰고 설령 그로 인해서 시간이 더 걸린다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어떤 다른 그동안 보지 못했던 문화적인 요소를 담을 것인가를 좀 더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U 님)

“저희 서부 쪽에 다문화 아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놀이터 디자인 워크숍 같은 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보통 공공 놀이터가 이제 새로 좀 어찌 보면은 동부권보단 놀이터나 이런 사업들이 서부 쪽에 많이 이제 새로 지어지고 있는데, 그 디자인을 어떻게 할까요를 아마 외국인 아이들까지 다문화 아이들까지 참여시켜서 같이 그리게 하면 기존에 한국이 설계하는 놀이터와는 많이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워크숍도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U 님)

(5)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과의 교류 경험

- 나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과 한 공간에서 만나다 보면 서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함.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제가 이사 와서 올해부터 처음 알았어요. 파크 골프장은 파크가 짧아요. 그런데 재미가 있어요. 내가 처음에 가서 구경할 때 깜짝 놀랐던 게 장애인들이 하는 거예요. 휠체어타고

같이 섞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낫설더라고요. 똑같이 낫설 건데 근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녹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어떤 속된 표현이 있잖아요. 뭐, 뭐 한다고. 근데 그런 것이 사람들 속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젠 아우 대단하다고 다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거기 가보면 항상 쳐요. 보면 같은 팀으로 없을 때는 들어가기도 하지만 자기들이 워낙 실력이 좋으니까 우리는 초보자니까 잘 안 치려고 하죠. 이런 게 문화 다양성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뭔가가 좀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다양성이 자연스럽게 녹아가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X 님)

“이제 건물을 와 보게 하는. 그게 다 자연스러운 인식 개선이 되고, 또 이 건물에서 이런 거 하는구나, 정말 필요한 거 잘 한다. 그냥 우리가 다문화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처음엔 저기 뭐야? 재네들을 위한 공간이야? 이런 게 있어? 하다가 근데 와서 보면, 오 여기 이렇게 좋은 거 있네. ...꼭 뭔가를 이용한다기보다는 친근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인식개선이 되는 거죠.” (J 님)

“안산의 경우 센터에서 노인급식도 했었고 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다문화 엄마도 같이 함께 듣고 했더니 이제 어떤 엄마들은 와서 중국 말을 배우고 싶다고 끝나고 한 시간만 중국말 가르쳐 주면 안 될까? 하고는 카페 앉아서 중국말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J 님)

“저는 아이가 어려서 그런지 다양한 곳에서 만나고 있어요. 지역 내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학부모로 자주 만나고 직장동료로도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교인으로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으로도 자주 만나고 있어요.” (E 님)

“동네 주민으로도 만나기도 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로도 만나고 있습니다.” (D 님)

-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처음에선 낫설어 해도 자꾸 만나고 접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낫선 문화도 받아들이기 쉬워지고 즐기게 된다고 함

“우리 세대가 우리 아버지 세대를 보면 국악 그런 것을 들었지만, 그런데 그냥 거부감이 있었는데, 그걸 듣다 보니까,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에 우리 국악을 나와요. 근데 음악도 문화 수용이 되더라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 그러면 다양성도 문화가 이 어떤 기본적인 걸 알게 되면 다른 것도 자연스럽게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X 님)

“저는 네팔에서 여기 그런 문화, 학교에서 배웠어요. 한국에서 막내면 모든 일을 해야 된다. 그거 알았으니까 별로 화가 안 났지만 모르는 친구들은 그거 내 일 아니야 라고 화가 날 수 있을 거 같아요.” (N 님)

“클래식이라든지, 미술 같은 거 그런 교육을 도서관에서 해서 한 일 년에 걸쳐서 쪽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했어요. 하다 보니까, 클래식에 들어가서도 들어보고 미술에서 어떻게 보는 그런 기초적인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단 말입니다. 나이 먹어서 편하려면, 문화가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그 일반 뽕짝이라든지, 뭐 트로트라든지, 많이 접한 그런 거지만 클래식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중한 거구나 나이 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우리가 기회가 없어서 못 했지만, 이런 분들에게 기본적인 그것을 해줄 때 물론 그거에 협조적인 건 아니겠지만, 어떤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어쨌든 여기 와서는 그런 기회를 잘 못 봤어요.” (X 님)

- 한국인주민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외국인주민들 스스로도 적극적인 행동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저는 중국에서 왔으니까 당연히 중국어 제일 잘하고 그래서 중국어 강사활동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거의 한국사람이고 그래서 엄마들과도 잘 지내게 되고 아는 사람도 많이 생겼어요. 지금도 한국엄마들하고 모임 많이 하고 아이와 거의 비슷한 또래들이다 보니까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 게 좋아요.” (T 님)

“좋은 생각하면 관계가 좋아졌어요. 내가 관계에서 나쁜 생각하면 진짜 나쁜 생각으로 가요. 직장에서 4, 5년 지나도 가끔 문자 와요. 옛날 사장님이 혹시 아는 사람 중에 소개해 줄 수 있는지 물어봐요.” (Q 님)

“돈만 생각하고 들어오면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자기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 좀 다른 거 같아요. 있는 대로 즐기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돈만 생각해서 회사 그만두고 다른데 가도 처음엔 일 많을 수 있어요. 나중에 더 일이 없어서 기본급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그만두게 되고...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죠.” (P 님)

“한국인들과 활동하면 한국 생활이랑 한국 문화랑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생활하기가 더 편해져요.” (N 님)

“일반적으로는 교류의 기회가 상당히 적다. 현재 소속된 기관의 특성상 다문화가족, 지역 내외국인주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취미 나 봉사 활동(재능 나눔 등)을 통하여 만나고 있습니다.” (B 님)

(6) 외국인주민과 함께 하면 좋은 프로그램

- 나라별 유명 음악가 등을 테마로 나라별 주민이 동네 주민들에게 설명해주면 재미있는 이벤트가 될 것임. 1회 이벤트성 행사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게 마을의 작은 축제가 될 것 같다고 함

“문화재단에서 한다면, 한국에서 뭐 맛 따라? 뭐 이런 거 여행하면서 냉면도 그러니까 북쪽 냉면과 남쪽 냉면이 다르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국수라면 국수인데 한국에서는 기후가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국수를 한다면, 베트남에서는 이렇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렇고 태국에는 이렇고 그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쪽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걸로 하면 재미있을 것 같고 여러 사람들이 들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5월은 국수, 그 다음 6월은 장, 나라에 따라서 소스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S 님)

“여러 나라 여행하듯이 소개해주는 거 좋아요. 한국의 유명한 곳도 소개해주고 다른 나라도 소개해주고 그러면 친구들도 재미있게 들을 것 같아요.” (T 님)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민속춤, 민속악기 등 전통공연을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를 소개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 좋겠어요. 하나의 주제를 마련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도 좋구요. 저희 센터에서 추석을 주제로 10월 한 달간 베트남, 네팔, 태국, 캄보디아가 매주 행사를 진행했는데, 결과 벵농사 문화권이라는 공통된 생활양식이 드러났죠. 쌀국수, 참쌀떡과 같은 유사한 음식도 보게 되면서 재밌더라구요.” (I 님)

“여러 나라의 전통 음악, 악기, 춤 등을 공연하면 좋아요. 전 구경하는 거 좋아해요.” (O 님)

“나라별 유명 음악가 등을 테마로 주민들에게 소개해주며 나라별 주민이 설명해주면 재미있는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1회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게 마을의 작은 축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F 님)

- 시니어 선생님 만나기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계층이 만날 수 있는 교류의 시간을 원함

“다도를 참 좋아 하더라고요. 한국어가 어려운 외국인들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시니어 선생님들과 매칭시키기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도선생님과 차 한잔하면서 지난 일주일간의 지내온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툴러도 시니어 분들에게는 외국인의 낯섦을 없애고

외국인들에게는 시니어 분들의 안내로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D 님)

- 흥미 위주의 단기성 프로그램 말고 그림이나 음악, 악기 등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배워 공연이나 전시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원함

“이게 미약한 의견일 수 있는데, 요리하는 체험도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근로자들도 요리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단순 외국 음식 만들어보기를 떠나서 한국 음식이랑 외국 음식 통틀어서 하는 음식 만들기 프로그램. 실제로 한국분들도 간식 문화체험을 하면 이게 어느 나라 음식이에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반대로 외국분들도 한국 음식 만드는 거 배워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A 님)

“내외국인이 같은 취미를 배우는 동아리 같은 거요. 취미지만 전문적인 활동으로 악기라든지 그림 그리는 거라든지 공통의 관심사를 전문적인 선생님께 배우고 나서 전시를 한다거나 공연을 하는 거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D 님)

“내외국인 모두 같이 하는 영상아카데미로 다큐멘터리나 유튜브 찍어 편집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같이 공동 작업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H 님)

3) 심층면접 결과 분석 요약 및 시사점

(1) 심층면접 결과 분석 요약

-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 연구 참여자들은 문화다양성을 서로 다르거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다문화의 다른 표현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화성시민의 문화다양성 수용도
 - 연구 참여자들은 화성시민이 문화개념이나 가치에 대한 이해,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수용도는 낮다고 생각함
 - 문화를 즐기고 향유하기 위한 문화시설이나 내용 면에서 부족하다고 여김
 - 외국인 주민에 대한 시선이 다르다고 느끼고 있고, 외국인 주민들의 문화다양성 수준도 낮다고 인식함

○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정책

- 화성시는 지역적으로 인구 및 경제 인프라의 격차가 심한 도시 중 하나임. 이에 지역문화의 특성과 가치를 잘 살린 프로그램 개발하여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해당 기관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해도 시민 당사자들은 정보 부족으로 참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좋은 프로그램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 및 거시적이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기획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함
- 관이 주도하는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에는 제약이 많음. 이에 민관이 함께 문화다양성 제도적 발전뿐만 아니라 현장 및 시민과 같이 발전하는 노력 필요

○ 문화다양성 인식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 연구참여자들은 화성시에 가장 시급한 것으로 문화다양성 인식 교육을 꼽음. 문화다양성 교육은 일방적 주입식 인식개선 교육의 한계를 넘어 지속적이고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함
- 프로그램 설계부터 문화코드가 들어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과의 교류 경험

- 나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과 한 공간에서 만나다보면 서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됨
- 낯선 문화도 배우면 받아들이기 쉬워지고 즐기게 됨
- 적극적인 행동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관계 향상에 도움이 됨
- 다른 지역에 비해 외국인의 거주 비율이 높고 외국인주민 수용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 교류가 거의 없어 인식과 현실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함

(2) 심층면접 분석 결과 시사점

- 문화다양성을 다문화의 연장선으로 생각함. 문화다양성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있으나 교류로 이어지지 않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개념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많은 담론이 이루어진 다문화정책에 비해 문화다양성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보다 큰 포괄적인 개념임. 대부분 연구 참여자들은 문화다양성을 다문화정책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있음
 - 한국인주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여김. 프로그램이라는 매개체를 통한 지속적 접촉으로 자연스러운 인식개선과 다양한 문화 가치 확산 기회 제공 필요함
- 문화다양성을 추진할 컨트롤타워 필요함
 - 연구 참여자들은 화성시가 문화다양성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문화시설 확충 및 공연의 질적인 부분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고 여김
 - 특히 문화다양성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기획부터 문화다양성 코드가 들어갈 수 있게 설계하고 추진이 가능한 컨트롤 타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함
-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과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낯선 문화에 대해 알아가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원하고 있었음
 - 화성시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외국인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내국인과 외국인이 교류하는 기회와 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심층면접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과 상호작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3. 화성시 문화다양성 정책 발전 방안

○ 화성시민의 인식조사와 심층면접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1) 문화다양성의 제도적 측면

(1)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제정

- 화성시민의 문화다양성 용어에 대한 인지도는 74.6%로 높은 편이지만 문화다양성과 연관된 대상을 ‘민족·인종·국적’ 66.2%로 인지하고 있고, 장애, 성별, 성적 지향·성정체성, 세대(연령), 출신지역, 기호, 취향, 비주류예술(독립예술, 실험예술), 소득 등 문화다양성으로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서는 연관성을 낮게 인식함
- 하지만,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한 차별에 대해 모든 항목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 중에서 신체·정신 장애에 대한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그 다음은 성별, 민족·인종·국적 순으로 나타남
- 또한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남.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경제적 활력 증진, 혐오와 차별문화 감소, 개방적이고 포용적 사회로 발전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
- 이는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많은 담론이 이루어진 다문화정책은 자연스럽게 문화다양성 정책과 연결하여 인식하는데 비해 신체·정신 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에 대해서는 사회가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러한 생각을 ‘문화다양성’이라는 큰 틀에서 인식하기보다는 각 집단별 복지차원의 분산된 소극적인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는 기존의 정책이 집단별 복지차원과 분산된 조례에 의한 분야별 정책 추진

의 결과로 보여짐

- 따라서 문화다양성의 의미와 가치를 확장하고 실현하기 위해 구성집단별 그리고 분야별로 나누어진 정책을 통합한 화성시의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이 시급함

(2) 문화다양성 정책의 추진 및 확대를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구현하기 위해서는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서와 각 부처와 지역에 있는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전담 인력이 필요함
- 이에 화성시가 문화다양성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문화시설 기반 확충 및 개선, 화성시민이 원하는 문화예술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운영할 전담기구가 필요함
- 이 컨트롤타워가 설치된다면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들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음. 또한 프로그램 기획부터 문화다양성 코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화성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2) 문화다양성의 교육적 측면

(1)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및 수용을 위한 인식 교육

- 화성시민의 문화다양성 용어에 대한 인지도는 74.6%로 높은 편이지만 문화다양성과 연관된 대상을 ‘민족·인종·국적’ 66.2%로 다문화와 연결시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다양성 개념에 익숙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요인임
- 이는 ‘나와 다른 종교의 교리와 의식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면 안 된다’고 인식은 하지만 ‘종교 및 신념이 다른 사람’과는 친해지기 어렵다고 응답해 인식과 수

- 용에는 거리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이처럼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도 간 차이는 문화다양성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감수성의 부재에서 기인함
- 화성시민의 문화다양성 인식전환이 선행되기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이 추진되어야 하며 지역 문화기반 시설이나 학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이 진행되어야 함

(2) 모두를 위한 다양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개발

- 연구 결과, 화성시에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문화다양성 인식개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여김. 화성시민의 84.6%가 화성시에 문화다양성 정책이 중요하다고 함.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확산되면 시민의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고 혐오와 차별문화가 감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음
-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과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과 낯선 문화에 대해 알아가고 즐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을 원하고 있었음
- 따라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은 세대를 어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 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외국인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3) 문화다양성 교류 측면

(1) 지역네트워크 구축

- 문화다양성은 모두에게 필요한 가치로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시작되어야 함. 문화다양성이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의 내부 또는 집단사회 상호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다는 의미에서 지역공동체의 역할은 크기 때문

- 세대 및 연령, 장애인, 외국인주민들 다양한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절이 아닌 만날 수 있는 교류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이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 내 기관들의 네트워크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함
-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마을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 구축하고 다양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홍보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에도 효과적임

(2) 문화다양성 문화시설 기반 확충

- 지역 내에서 다양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을 진행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 현재에는 인구가 많은 동부 쪽에 문화시설들이 많음. 지역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에 문화시설을 구축하면 이용률이 저조할 수 있음
- 이에 필요한 문화시설 확충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현재 있는 시설을 다각도로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문화시설을 새로 건립하기에는 많은 예산과 시간,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문화시설 건물을 새로 짓기보다는 지역 내 학교나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현재 시에서 공간대여를 하고 있지만 이용 시간 등 많은 제약이 있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가장 밀접한 거리에 문화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면 자연스럽게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기대됨

(3) 문화다양성 상호 교류 프로그램

- 화성시문화재단에서 진행했으면 하는 프로그램
 - 화성시 문화다양성 서포터즈 양성:
눈높이에 맞는 문화란 무엇인지 개념, 이해, 가치를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는 문화다

양성 서포터즈를 양성해 화성시민의 주체적인 문화다양성 인식 증진 활동으로 확산

- 다양한 동아리 지원: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들이 하나의 주제로 함께 활동하는 동아리 지원

예) 난타, 그림, 춤, 악기 등

-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심층면접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시니어와 장애인, 외국인주민과 한국인주민,

시니어와 청년 등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예) 그림, 음악, 운동, 캠페인, 축제 등

- 도농복합 축제:

지역 편차가 큰 동부와 서부의 격차를 줄이면서 지역 특색을 살린 축제

-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

집안에만 있는 시니어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필요함. 심층면접에서도 나왔지만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한다면 배우는 과

정에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삶의 활력소를 찾을 수 있고, 우울증이나 외

로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이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추천

- 주제를 정해서 각 나라 문화 소개 프로그램:

예) ‘국수’라는 주제로 각 나라의 국수 문화를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각 나

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음

- 전문성을 살린 예술 프로그램: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그림이나 악기, 춤을 배우고 이를 공연과 전시로 이

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

- 세계 집 박람회:

집을 주제로 한 마을 만들기(세계 여러 나라의 집)

- 이주민과 함께하는 공동 프로젝트

- 요리 프로그램: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나누는 체험 활동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기

- 문화체험 쿠폰 운영:

문화쿠폰을 발행해 원하는 시간에 문화생활을 즐길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1. 결론

- 이 연구는 화성시의 문화다양성 인식조사와 정책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화성시에 거주하는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설문 및 면접조사를 수행함
- 화성시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1)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연관대상을 ‘민족·인종·국적’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높았고 장애, 성별, 성적 지향·성정체성, 세대(연령), 출신지역, 기호, 취향, 비주류예술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해서는 연관성을 낮게 인식함
- 화성시민의 문화다양성 용어에 대한 인지도는 74.6%로 높은 편이지만 문화다양성과 연관된 대상을 ‘민족·인종·국적’ 66.2%로 인지하고 있고, 장애, 성별, 성적 지향·성정체성, 세대(연령), 출신지역, 기호, 취향, 비주류예술(독립예술, 실험예술), 소득 등 문화다양성으로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서는 연관성을 낮게 인식함
- 문화다양성을 ‘문화예술’의 표현이라는 협의의 의미가 아닌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며 개인과 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존중하고 그 문화와 표현을 인정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2)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이 사회적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접촉 및 교류 경험 부족에서 오는 거리감을 느끼고 있음
 - 모든 항목에서 나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이 사회적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화성시민 89.7%가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나와 다른 종교의 교리와 의식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면 안 된다’고 인식은 하지만 ‘종교 및 신념이 다른 사람’과는 친해지기 어렵다고 응답해 인식과 수용에는 거리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화성시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들이 소통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다양한 계층이 서로에 대한 인식과 수용을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야 함

3)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실천하는 방안의 하나로 화성시 차원의 문화다양성 정책이 필요함

-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한 차별에 대해 모든 항목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남. 이를 실천하는 방안의 하나로 화성시 차원의 문화다양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88.3%로 매우 높게 나타남. 문화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이벤트성 일회성 행사보다는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화와 녹아 들 수 있는 화성시 특색에 맞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4) 문화다양성의 의미와 가치를 확장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화성시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필요함

- 화성시에서 문화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은 ‘문화다양성’이라는 큰 틀에서 인식하기보다는 복지 차원의 일환으로 각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음
- 이에 문화다양성의 의미와 가치를 확장하고 실현하기 위해 구성집단별 그리고 분야별로 나누어진 정책을 통합한 화성시의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

5) 문화다양성 정책이 입안되고 이를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구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문화다양성 정책이 필요함. 이를 위해 프로그램 기획부터 문화다양성 코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 시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까지 이 모든 과정을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6)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의 다양화(소수집단에서 모두를 대상으로)

-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과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과 낯선 문화에 대해 알아가고 즐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을 원하고 있었음
- 따라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2. 제언

- 이 연구는 화성시 시민들의 문화다양성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안 하는데 목적이 있음
- 1차적으로 화성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인식조사를 실시함. 이는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해서는 화성시민들의 문화다양성 인식 증진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
- 다양한 소수 문화 집단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 연구에서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시간과 예산 등의 제약으로 외국인주민에 대해서만 심층 면접을 진행해 다양한 소수 집단의 의견을 담지 못한 한계를 지님
-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추진해 화성시에 맞는 균형있는 문화다양성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함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2021).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021~2024)」.
- 권선영·황설화(2019). 「고양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연구」. 고양시정연구원.
- 남북하나재단(2022).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6).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2018). 「제2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연구」.
-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0년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년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0 문화다양성 시범조사(1권)」.
-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년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 백혜선·조운정(2021).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 개발과 시범조사」. 서울연구원.
- 안태호 외(2019). 「경기도 문화다양성 정책 현황 및 발전 방안연구」. 경기문화재단.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01).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 오주희 외(2016).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광주문화재단.
- 요약본 유네스코(200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 이성호(2019). 「수원시 문화다양성 정책 발전 방안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최영화·김창수·민경선(2017). 「인천시문화다양성 지표 개발연구」. 인천발전연구원.
- 안태호(2019) 「경기도 문화다양성 정책 현황 및 발전 방안연구」, 경기문화재단.
- 여성가족부(2022). 「2021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 장현선 외(2018). 「부산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을 통한 실태조사」, 부산광역시·부산문화재단.
- 최영미(2020). 「화성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화성시.
- 최영미(2022). 「화성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화성시.
- 최지연(2020). 「수원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화성시(2021). 「화성시 문화도시 조성계획」. 문화도시추진단.

<참고 사이트>

경기남부 하나센터 (http://www.nambuhana.net/bbs/content.php?co_id=m1_1)

경기일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0509580023>)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data/3044645/fileData.do>)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대학저널 (<http://www.dhnews.co.kr>)

문화다양성 주간 공식 누리집 (diversityweek2021.com)

문화다양성 주간 (<https://www.diversityweek2022.com>)

여론 (<https://hrcopinon.co.kr/archives/23960>)

유네스코 (<https://www.unesco.or.kr/data/standard/view/7/page/0?>)

한국예총화성지회

(http://www.hsyecheon.or.kr/bbs/board.php?bo_table=intro03)

화성도시공사 (<https://www.hsuco.or.kr/main.do>)

화성시 (<https://www.hscity.go.kr/>)

행정안전부 (<https://jumin.mois.go.kr/index.jsp>)

부록

1. 설문지
2.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예시

1. 설문지

화성시 문화다양성 인식 조사 설문지

(화성시문화재단 문화다양성 관련 프로그램 개발 기초 조사 연구)

안녕하세요.
화성시문화재단에서는 ‘화성시 문화다양성 인식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화성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식 및 프로그램 수요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귀하가 응답한 내용은 다른 분들의 의견과 함께 집계·분석되어 화성시문화재단의 문화다양성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가 응답한 내용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되고, 통계법 제 33조에 규정되어 개인의 비밀
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귀하의 의견이 화성시문화재단의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한 응
답을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

조사 일시		월	일
응답자 특성	거주지	화성시 여타 지역 → 화성시 이외 거주자 설문 중단	
		기배동 남양읍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4동 동탄5동 동탄 6동 동탄7동 동탄8동 마도면 매송면 반월동 병점1동 병점2동 봉담읍 비봉면 새솔동 서신면 송산면 양감면 우정읍 장안면 정 남면 진안동 팔탄면 향남읍 화산동	
	출생년도	()년 → 2003년 이후(만 18세 미만) 설문 중단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가치

문1. 귀하는 '문화다양성'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문1-2로 이동) ② 없다(문2로 이동)

문1-2. 들어본 적이 있다면 귀하가 생각하는 '문화다양성'은 다음 중 연관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민족, 인종, 국적 ② 종교, 정치적 견해 ③ 장애
④ 성별 ⑤ 성적 지향, 성정체성 ⑥ 세대(연령)
⑦ 출신지역 ⑧ 기호, 취향 ⑨ 비주류 예술(독립예술, 실험예술 등)
⑩ 소득 ⑪ 기타(자세히:)

문2. 귀하는 화성시가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문2-1.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

문3. 귀하는 화성시에 문화다양성의 가치(의미)를 보다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약간 필요하다
③ 필요 없다 ④ 전혀 필요 없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

문4. 귀하는 다음 구성원들에게 어느 정도 거리감(불편함)을 느끼십니까?

항목	전혀 거리감 없음	별로 거리감 없음	약간 거리감 느낌	매우 거리감 느낌
1) 나와 다른 민족·인종·국적의 사람	①	②	③	④
2) 나와 다른 종교·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 (타 종교, 페미니즘, 생태주의 등)	①	②	③	④
3) 나와 다른 신체·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	①	②	③	④
4) 나와 다른 성별의 사람	①	②	③	④
5) 나와 다른 성적지향·성정체성을 가진 사람	①	②	③	④
6) 나와 다른 연령·세대의 사람	①	②	③	④
7) 나와 다른 소수 문화 취향을 가진 사람 (비주류 예술 선호, 타투, 피어싱, 코스프레 등)	①	②	③	④

문5. 귀하는 다음의 사회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문제 아님	별로 문제 아님	문제 있음	매우 문제 심각함
1) 민족·인종·국적에 따른 차별	①	②	③	④
2) 종교·정치적 신념에 따른 차별 (타 종교, 페미니즘, 생태주의 등)	①	②	③	④
3) 신체·정신 장애에 따른 차별	①	②	③	④
4) 성별에 따른 차별	①	②	③	④
5) 성적지향·성정체성에 따른 차별	①	②	③	④
6) 연령·세대에 따른 차별	①	②	③	④
7) 소수 문화 취향에 따른 차별 (비주류 예술 선호, 채식, 타투, 피어싱, 코스프레 등)	①	②	③	④

사회현상에 대한 수용정도

문6. 귀하의 주변에는 다음 구성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항목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사람 있음	알고는 있지만 친분은 없음	전혀 아는 사람 없음
1) 결혼이주민			
2) 외국인근로자 등)			
3) 북한이탈주민			
4) 장애인			
5) 성소수자			
6) 타 종교·정치적 신념을 지닌 사람 (타 종교, 페미니즘, 생태주의 등)			
7) 소수 문화 취향을 가진 사람 (비주류 예술 선호, 타투, 피어싱, 코스프레 등)			

문7. 귀하는 다음 구성원들을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실 수 있습니까?

항목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	직장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음	동네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	단순히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음
1) 결혼이주민	①	②	③	④
2) 외국인 근로자	①	②	③	④
3) 북한이탈주민	①	②	③	④
4) 장애인	①	②	③	④
5) 성소수자	①	②	③	④
6) 타 종교·정치적 신념을 지닌 사람 (타 종교, 페미니즘, 생태주의 등)	①	②	③	④
7) 소수 문화 취향을 가진 사람 (비주류 예술 선호, 타투, 피어싱, 코스프레 등)	①	②	③	④

화성시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연구

문8. 귀하는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민족 인종 국적	우리나라에 다양한 인종, 민족의 문화가 많이 들어와도 괜찮다	①	②	③	④
	피부색이 달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한국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나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주민이 모여 본국의 음악이나 무용, 공연을 즐기는 것을 보면 함께 참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종교 신념	나와 다른 종교의 교리와 의식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면 안 된다	①	②	③	④
	종교 및 신념이 다른 사람과 깊이 친해지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장애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학 입학, 취업 전형을 실시하는 것은 부당하다	①	②	③	④
	내가 사는 지역에 장애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과 특수학교가 들어와도 상관없다	①	②	③	④
성적 지향 정체성	성 소수자가 나오는 영화, 소설, 드라마를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성 소수자 축제(퀴어 축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성별	중요한 업무를 할 때 상대방의 성별은 아무 상관없다	①	②	③	④
	성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을 만드는 방송, 영상 등의 미디어를 접하는 게 불편한다	①	②	③	④
연령 세대	세대차이가 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과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소수 문화 취향	소수 문화(비주류 예술, 타투, 피어싱, 코스프레 등)를 즐기는데 비용을 지불 할 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독립/예술 문화예술가의 창작을 위해 공공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문화다양성의 차별경험

문9. 귀하는 아래의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로부터 차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결혼이주민	①	②	③	④
2) 외국인근로자	①	②	③	④
3) 북한이탈주민	①	②	③	④
4) 장애인	①	②	③	④
5) 성소수자	①	②	③	④
6) 타 종교·정치적 신념을 지닌 사람 (타 종교, 페미니즘, 생태주의 등)	①	②	③	④
7) 소수 문화 취향을 가진 사람 (비주류 예술 선호, 타투, 피어싱, 코스프레 등)	①	②	③	④

문10. 귀하는 다음 대상을 향한 혐오표현을 얼마나 자주 보거나 들었습니까?

항목	전혀 경험 안함	거의 경험 안함	가끔 경험	자주 경험함
1) 결혼이주민	①	②	③	④
2) 외국인근로자	①	②	③	④
3) 북한이탈주민	①	②	③	④
4) 장애인	①	②	③	④
5) 성소수자	①	②	③	④
6) 타 종교·정치적 신념을 지닌 사람 (타 종교, 페미니즘, 생태주의 등)	①	②	③	④
7) 소수 문화 취향을 가진 사람 (비주류 예술 선호, 타투, 피어싱, 코스프레 등)	①	②	③	④

문화다양성 정책지원 필요도

문11. 귀하는 아래의 사회현상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개선이 필요함	약간 개선이 필요함	거의 개선될 필요없음	전혀 개선될 필요없음
1) 민족·인종·국적에 따른 차별	①	②	③	④
2) 종교·정치적 신념에 따른 차별 (타 종교, 페미니즘, 생태주의 등)	①	②	③	④
3) 신체·정신 장애에 따른 차별	①	②	③	④
4) 성별에 따른 차별	①	②	③	④
5) 성적지향·성정체성에 따른 차별	①	②	③	④
6) 연령·세대에 따른 차별	①	②	③	④
7) 소수 문화 취향에 따른 차별 (비주류 예술 선호, 타투, 피어싱, 코스프레 등)	①	②	③	④

문12. 귀하는 아래 구성원들에 대한 화성시의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결혼이주민	①	②	③	④
2) 외국인근로자	①	②	③	④
3) 북한이탈주민	①	②	③	④
4) 장애인	①	②	③	④
5) 성소수자	①	②	③	④
6) 타 종교·정치적 신념을 지닌 사람 (타 종교, 페미니즘, 생태주의 등)	①	②	③	④
7) 소수 문화 취향을 가진 사람 (비주류 예술 선호, 타투, 피어싱, 코스프레 등)	①	②	③	④

화성시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연구

문13. 귀하는 아래 사회현상에 대한 화성시의 대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성별 불평등	①	②	③	④
2) 독신가구의 증가	①	②	③	④
3) 외국인주민의 증가	①	②	③	④
4) 세대 간 갈등	①	②	③	④
5) 주류 문화예술 독점	①	②	③	④
6) 지방(지역)문화에 대한 차별	①	②	③	④
7)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	①	②	③	④
8) 전통문화 위기	①	②	③	④

문14. 귀하는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이 화성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개인의 삶의 질 향상	①	②	③	④
2) 시민의 표현의 자유 확대	①	②	③	④
3) 혐오와 차별문화 감소	①	②	③	④
4)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로 발전	①	②	③	④
5) 경제적 활력 증진	①	②	③	④

문15. 귀하는 화성시가 문화다양성 정책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문16. 귀하는 화성시 차원에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약간 필요하다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17. 귀하는 화성시에 다음 제시된 사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필요하다	조금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문화다양성 캠페인,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 등을 통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지원	①	②	③	④
2) 학생 및 시민대상 문화다양성 이해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①	②	③	④
3) 장애인, 이주민 등 소수자의 문화활동 접근성 향상을 위한 문화시설 개선	①	②	③	④
4) 문화다양성 관련 예술활동 및 예술가 지원	①	②	③	④
5) 다문화도서관, 세계한인박물관, 통합국제문화원 등 문화다양성 이해를 위한 거점기관 조성	①	②	③	④

6) 문화적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지역에 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운영	①	②	③	④
7) 문화적 차별과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강화	①	②	③	④
8) 관련 제도, 예산확보, 문화다양성 위원회 설치 등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체계 구축 사업	①	②	③	④

외국인주민 관련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경험

문18. 귀하는 외국인 관련 문화다양성 관련 프로그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문18-1로 이동) ② 없다 (문18-2로 이동)

문18-1.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경험하셨는지 작성해주세요

()

문18-2.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필요를 못 느껴서 ② 관심이 없어서
 ③ 장소가 멀어서 ④ 시간 여유가 없어서
 ⑤ 기타 ()

문19. 귀하는 화성시문화재단에서 외국인 관련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있다 (문19-1번으로 이동) ② 없다 (문20번으로 이동)

문 19-1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작성해 주십시오.

()

응답자 기본 정보

문20. 귀하는 화성시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나요? 대략 몇 년 몇 개월 정도입니까?

*화성시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 ①1년 미만 ② 1년-3년 미만 ③3년-5년 미만 ④5년-10년 미만
 ⑤10년 이상

문2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남성 ②여성

2.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예시

제 목	아시아문화이해프로그램		구 분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및 증진 프로그램
형 태	문화다양성 사업			
일시/기간	매주 토요일 2~5시			
프로그램명	아시아 만세!(1부)			
목 적	상이한 문화의 유산과 그들의 삶 이해를 통하여 존엄성과 의미를 이해하고 교류와 협동의 경험으로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편견과 혐오를 알아차 리고 대응하는 역량 함양			
목 표	화성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문화 이해 세대, 젠더, 지역, 계층, 소수집단 등 여러 범주의 집단구성원간 소통능력 함양			
프로그램 내용	회기	내용		비고
	1회기	태국(9,234명*)문화여행		* 2021년 11월 기준 화성시 거주 외국인주민수 (행정안전부, 2022)
	2회기	베트남(5,691명*)문화여행		
	3회기	중국(3,036명* / 중국동포 12,615명*)문화여행		
	4회기	우즈베키스탄(2,686명*)문화여행		
	5회기	캄보디아(2,484명*)문화여행		
	6회기	네팔(2,472명*)문화여행		
	7회기	필리핀(2,119명*)문화여행		
	8회기	미얀마(1,744명*)문화여행		
	9회기	인도네시아(1,296명*)문화여행		
	10회기	카자흐스탄(1,118명*)문화여행		
기대효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간 소통을 통해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 며 건강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함양			
참여자특성	인 원	30명 이내		
	특기사항	1. 모집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으로 집단을 구성하 여 집단원간 소통 강화 -다양한 기관 홍보(가족센터, 새로일하기센터, 외국인복지센터, 장 애인복지관 등) 2.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흥미로운 교육 진행 3. 해당 국가 관련 기념품 만들기로 적극적 참여 독려		

제 목	다어울림 공동체 모임	구 분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및 증진 프로그램
형 태	동아리 지원 사업		
일시/기간	매주 토요일 2~4시		
프로그램명	만나고, 즐기고, 나누자!		
목 표	-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일상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상호교류 시간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대 상	-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한국인주민, 외국인주민)		
운영계획	○ 동아리 필요성 -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 및 교류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음 - 공동의 주제로 참여자들이 교학상장(敎學相長)할 수 있음 ○ 동아리 운영 계획 - 다양한 주제로 동아리를 개설해 선택의 폭을 넓게 함 (노래, 악기, 춤, 봉사, 난타, 기타, 그림, 축구, 농구, 탁구 등) - 동아리 회원 구성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 - 동아리 리더를 선발해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만나고 즐기고 나누는’ 시간 마련 ○ 동아리 기대효과 -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해소 - 타문화에 대한 혐오와 편견 감소 - 지역공동체 구성원이라는 소속감과 연대감 형성		

제 목	오감으로 하는 세계 여행	구 분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및 증진 프로그램
형 태	문화다양성 사업		
일시/기간	매주 토요일 2~4시		
프로그램명	알면 사랑하게 된다		
목 적	-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차이를 알 수 있다 -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다		
대 상	-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한국인주민, 외국인주민)		
운영계획	○ 필요성 - 문화적배경이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 및 공감의 필요 - 문화상대주의 관점에서 역지사지하는 태도 형성하기 ○ 운영 계획 - 매월 다양한 주제를 정해 각 나라의 문화 소개하기 * 1월 : ‘국수’를 주제로 각 나라의 국수 문화 소개 및 문화 이해하기 * 2월 : ‘축제’를 주제로 각 나라의 축제 문화 및 의미 살펴보기 * 3월 : ‘명절’을 주제로 각 나라의 명절 및 의미 살펴보기 * 4월 : ‘스포츠’를 주제로 각 나라의 스포츠의 유래 및 의미 살펴보기 * 5월 : ‘음료나 술’을 주제로 각 나라의 대표적인 음료 살펴보기 * 6월 : ‘전통의상’을 주제로 각 나라의 의상 알아보기 * 7월 : ‘휴가’를 주제로 각 나라의 휴가지에 대한 정보 알아보기 등 - 각 나라의 문화와 체험 활동으로 구성 - 음식을 같이 만들어 먹어보기 등 다양한 구성으로 흥미 유발 - 다양한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해 인식개선이 될 수 있도록 유도 ○ 기대효과 -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해소 - 타문화에 대한 혐오와 편견 감소		